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 한국어 명사의 단위 명사적 쓰임에 대한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Satta Giacomo (사타 자코모)

<한국어 초록>

## 한국어 명사의 단위 명사적 쓰임에 대한 연구

사타 자코모

본 연구는 한국어 명사의 단위 명사적 쓰임에 대한 연구이다. 즉 이 글에서는 어떤 대상을 셀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의 통사 및 의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한다. 지금까지 학교 문법에서는 어떤 대상을 셀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를 ‘분류사’라는 명칭으로 다루어 왔는데, 본고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의 명칭으로는 ‘단위사’가 더 적합하다. 어떤 단위를 셀 때 쓰이는 명사나 의존 명사의 역할은 지시대상을 분류하는 것보다 단위화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단위사는 자립적 단위 명사와 의존적 단위 명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자립적 단위 명사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펼쳐 보인다.

제2장에서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를 구분하여 이들의 개념적 정의가 실제 예문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가 단위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자립적 단위 명사의 속성을 보이기 위하여 수 관형사와 공기할 때에는 어떠한 통사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검토했는데 이를 통해서 의존적 단위 명사가 나타나느냐 혹은 자립적 단위 명사가 나타나느냐에 따른 문장 구성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자립적 단위 명사를 분류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단위 명사들은 그들이 세는 대상이 부분인지, 개체인지, 집합인지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단위 명사들이 세는 대상의 수효뿐만 아니라 그 명사만의 의미적 속성이 어떠한지에 따라서도 단위 명사의 쓰임이 달라지므로, 수효 외의 의미적 속성에 따른 분류 기준을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이때 단위 명사와 공기하여 나타나 썸의 대상이 되는 명사들을 ‘공기 명사’라고 약칭하는데, 즉 이 장에서는 공기 명사의 의미적 속성에 따른 자립적 단위 명사의 분류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단위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구성을 보고 공기 명사에 의존성에 따른 분류 방식을 제시한다. 의존적 단위 명사 같은 경우에는 [N(일반 명사)-Q(수 관형사)-CI(단위 명사)]로 자주 쓰이는데 이와 달리 자립적 단위 명사들은 [Q(수 관형사)-CI(단위 명사)]와 같은 구조로 사용된다. 따라서 자립적 단위 명사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본장에 나타나는 사실은 자립 명사들은 단위 명사로 사용될 때 항상 자립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고 반대로 어떨 때는 의존성이 많아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존 명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단위 명사와 공기 명사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준 의존 명사’에 대한 개념도 도입하였다. ‘준 의존 명사’라는 말이 수량 표현에 나타날 때 의존 명사처럼 행동하는 자립적 단위 명사를 가리킨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한국어의 자립적 단위사들은 단독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많이 없다. 그래서 본 연구로써 자립 명사들의 단위 명사적 쓰임을 연구하면서 단위사를 서술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틀을 제공해 보았다.

**주요어:** 단위사, 분류사, 공기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 준 의존 명사

**학 번:** 2017-22448

## 차 례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범위 .....	2
1.3. 연구 자료 .....	8
1.4. 논의의 구성 .....	8
2. 예비적 연구 .....	10
2.1. 단위 명사의 개념과 논의 .....	10
2.2. 의존 명사 단위사와 자립 명사 단위사 .....	15
2.3. 외래어 단위사 .....	20
2.4. 수사와 단위사 .....	22
2.4.1. 한자 수사와 고유 수사 .....	22
2.4.2. ‘하나’의 특성과 ‘단위사 - 하나’의 구조 .....	26
2.4.2.1. ‘하나’의 특성 .....	26
2.4.2.2. ‘단위사 - 하나’의 구조 .....	29
2.4.3. 자립 단위 명사의 복수성 .....	31
3. 의미론적 관점에 의한 단위사의 분류 .....	33
3.1. 단위사 설정과 기존 연구 .....	34
3.1.1. 단위사의 판별 기준 .....	34

3.1.2. 기존 연구에서의 하위 부류 .....	39
3.2. 의미적 부류 .....	46
3.2.1. 구체성 .....	49
3.2.1.1. 유정성 .....	49
3.2.2.1. 무정성 .....	52
3.2.2. 추상성 .....	63
3.2.3.1. 관계성 .....	63
3.2.3.2. 사태성 .....	64
3.2.3.3. 기타 (공간/시간/추상물류) .....	65
3.2.3. 종류 .....	67
3.3. 명사의 단위사성 .....	68
3.4. 소결 .....	71
4. 구성에 따른 단위사의 구분 .....	74
4.1. 준(準)의존 명사 .....	77
4.2. 자립 명사 .....	80
4.3. 용기류 명사 .....	84
4.4. 소결 .....	88
5. 결론 .....	89

참고문헌 .....	92
------------	----

부록 .....	97
----------	----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자립 명사 명사 가운데 단위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명사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어떤 특정한 단위를 셀 때 단위 명사를 쓰는 언어들이 많은데, 이러한 언어를 단위사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단위사 언어는 아시아 언어 가운데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단위 명사에 관하여 논의를 펼친다. 한국어의 단위 명사는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학 내에서 단위 명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본고는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연구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단위 명사들은 주로 다른 동아시아 제어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왔는데, 일본어 혹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면 각 언어들 간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단위 명사들은 ‘수량사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뜻으로 조수사(助數詞)라고 불린다. 이것은 일본어 학계에서는 단위 명사는 수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단위 명사처럼 일본 학교문법에서의 단위 명사들은 명사의 하위 부류로 간주된다. 한편 중국어에서 단위 명사들은 양사(量詞)라는 이름의 독립된 품사로 간주된다. 기능적으로 한·중·일의 단위 명사들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형태론적으로 그리고 통사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단위 명사로 사용되는 자립 명사들을 살펴보는 데,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들은 다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 통털어 하나의 부류로 다룬 것이었다. 즉, 한국어에서 단위 명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품사는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가 있는데 이들은 개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유일한 부류로 연구되었다. 단위 명사는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나 자립 명사인데, 한국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존 명사에만 초점을 두었다. 단위사의 성격을 가지는 자립 명사들은 의존 명사를 연구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통해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단위사의 성격을 갖는 일반 명사 역시 단위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단위사 언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어에서 의존 명사 뿐만 아니라 자립 명사가 어떻게 단위 명사의 역할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의존 명사와 달리 기능적으로 그리고 문장 구성에 관하여 어떤 제약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어에서의 단위 명사가 포함된 구성은 [N-Q-CI](개 두 마리)와 [Q-CI-N](두 마리의 개)의 두 가지이다. 본고는 단위사로 쓰이는 자립 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단위 명사가 등장하는 새로운 구조나 제약 등 단위 명사로 사용되는 자립 명사만의 속성에 따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재정리하자면 한국어에서 자립 단위 명사를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단위성 의존 명사와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단위사로 쓰이는 일반 명사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연구 자료로는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네이버 검색 브라우저에서 단위 명사의 사용 방법과 빈도를 검토하여 논의하겠다. 나아가 자립 단위 명사와 단위사가 아닌 일반 명사들의 차이점을 검토한 후 한국어에서 단위사성에 해당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일반 언어학적 관점에서 단위사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지위를 확인하는 작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에 접근할 때 더 정확한 단위사 체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차적인 목적도 있다. 특히 단위사가 없는 언어의 원어민들이 한국어에 접근할 때 한국어의 명사와 단위사를 체계화적으로 익히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1.2. 연구 범위

본고의 연구 대상은 단위 명사이다. 단위 명사를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명사 체계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반 명사와 단위 명사에 대한 구별을 보겠다. 일반 명사란 일반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여러 가지 사물의 공통된 특징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단위 명사는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

는 명사를 가리킨다. 일반 명사와 단위 명사의 공통점은 품사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문장에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다. 일반 명사들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다양한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단위 명사들은 일부 언어들에만 나타나는 요소로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셀 때 일반 명사와 같이 사용되는 명사이다.

일반 명사와 단위 명사들은 둘 다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그런데 한국어 경우에는 가끔 일반 명사와 단위 명사의 역할이 겹칠 때가 있다. 즉, 어떤 명사들은 일반 명사이면서 동시에 단위 명사로도 쓰인다. 원래 단위 명사들은 일반 명사와 같이 사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조적 요소 없이 수 관형사와만 결합하여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단위 명사가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N(일반 명사)-Q(수 관형사)-Cl(단위 명사)] 또는 [Q(수 관형사)-Cl(단위 명사)-N(일반 명사)]인데 만일 단위 명사와 일반 명사의 역할이 겹치게 되면 3개의 요소 중 하나가 빠진다. 즉, 일반 명사가 단위 명사성의 성격이 드러날 때 이는 이중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구조는 [Q(수 관형사)-Cl(단위 명사)]가 된다. 예를 들어 일반 명사인 ‘사람’의 상황을 보면 ‘남자 두 사람’과 같은 형식도 가능하고 ‘두 남자’와 같은 형식도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단위 명사성 성격을 띠는 일반 명사들은 사전에도 다른 일반 명사와는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sup>1)</sup>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는 일반 명사의 하위 부류이며 이 둘의 차이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즉, 자립 명사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명사들은 항상 다른 명사와 같이 나타나야 한다. 단위 명사에는 자립적 단위 명사와 의존적 단위 명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 명사로 인정되는 명사들은 의존 명사인데 예로는 ‘명(名)’, ‘마리’, ‘대(臺)’, ‘채’ 등이 있다. 이 의존 명사들은 수량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이 명사들이 세고 있는 대상인 일반 명사와 함께 나온다. 자립 명사도 단위 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는데 예로는 ‘사람’, ‘송이’, ‘자루’ 등이 있다. 이 명사들은 직접 세는 대상에 해당한다.

1)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2.2장에서 하겠다.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의 성격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사전의 처리를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단위사로 사용되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를 나누고 그 중 자립 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두 종류에 해당하는 단위 명사들을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들의 사전 정의를 비교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단위사로 쓰이는 자립 명사인데, 이를 의존 명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個/箇/介) 「의존 명사」**

「1」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

사탕 한 개.

사과 몇 개.

**사람 「명사」**

「1」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인간.

「2」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3」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인간.

「4」 인격에서 드러나는 됃됨이나 성질.

「6」 친근한 상대편을 가리키거나 부를 때 사용하는 말.

「7」 자기 외의 남을 막연하게 이르는 말.

「8」 뛰어난 인재나 인물.

「9」 어떤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할 일꾼이나 인원.

「10」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1」’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쓴다.

한 사람.

여러 사람.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동해에 다녀왔다.

‘사람’의 사전 정의를 보면 첫 번째 의항은 일반 명사이다. 한편 열 번째 뜻풀이는 단위 명사로서 기능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고의 관심사는 바로 이 ‘사람’

의 열 번째 뜻풀이처럼 일반 명사가 갖는 단위 명사로서의 기능이다. 이와 같은 명사들의 뜻풀이에는 공통적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한편 의존 명사인 단위 명사 ‘개(個)’의 사전 정의를 보면 뜻풀이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나 자립 명사인 ‘사람’의 뜻풀이는 ‘개(個)’와 상황이 다르다. 의항이 여러 개일뿐더러,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의 뜻풀이는 다 일반 명사에 해당하는데, 열 번째 뜻풀이만 단위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같은 자립 명사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단위 명사의 역할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어에는 수백 개의 단위 명사가 있으며 이 중 절반 정도가 자립 명사이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명사들은 총 304개의 명사이며 다음과 같다.<sup>2)</sup>

가구03(家口), 가닥, 가락01, 가락02, 가래02, 가래03, 가리02, 가리04, 가마04, 가마니, 각07(刻), 갈래, 갈-이02, 감03, 갑03(匣), 강16(綱), 개비01, 개안01(個眼), 개표-구02(開票區), 가자(架▽子), 걸음, 겁01(劫), 게임(game), 계05(界), 계절01(季節), 경11(景), 계단04(階段), 고개02, 고팡이01, 곡02(曲), 곡조(曲調), 골08(goal), 곳01, 공기06(空器), 과04(科), 과10(課), 과목02(科目), 관항(款項), 광주리01, 교구06(敎區), 구05(句), 구15(區), 구기01, 구력, 구역04(區域), 국자01, 군단01(軍團), 굽-이, 권질(卷帙), 퀘03(櫃), 그릇01, 그룹01(group), 글-자(-字), 급04(級), 기10(紀), 기19(期), 겁01, 국가01(國家), 꺼풀, 꼬치01, 꼬치02, 꾸러미, 꾸리01, 퀘미, 끼01, 끼니, 나라01, 날, 다랑-이, 다래끼01, 다발01, 단01, 단07(段), 단계02(段階), 단별(段別), 단위01(單元), 달구지, 대07(代), 대11(隊), 대야01, 대접01, 더미01, 덩어리, 덩이, 도막01, 독01, 돌기01, 돌림01, 동강01, 동이01, 되-들이, 뒷-박, 두둑01, 두레01, 드럼(drum), 등급(等級), 등분02(等分), 땀02, 때01, 떨기01, 떼01, 빼기01, 라운드(round), 롤(roll), 마름01, 마신01(馬身), 마투

2) 본고에서 언급되는 단위 명사들은 진려봉(2012)과 최형용(2017)에서 정리된 단위 명사의 목록을 가지고 재정리한 결과이다. 위의 자료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서 단위 명사의 목록을 보충하였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자립 명사인 304개의 단위 명사를 찾았다.

리, 매끼01, 면05(面), 모03, 모숨, 모태01, 목09(目), 목기04(木器), 목판01(木板), 무더기, 무리01, 뭍-음, 문06(門), 문단01(文段), 문장02(文章), 뭉치, 바가지01, 바구니, 바리01, 박스(box), 박자(拍子), 반08(班), 밭01, 밭-자국, 방울01, 밭01, 배01, 배미01, 병05(瓶), 보-따리(褌--), 보시기01, 봉06(封), 봉지06(封紙), 부류02(部類), 부부02(夫婦), 부분01(部分), 부족05(部族), 분과03(分課), 분단02(分團), 분대03(分隊), 분절-음(分節音), 블록02(block), 뿌리, 사단07(師團), 사람, 사리01, 사리02, 사발01(沙鉢), 삼태기, 삽01, 상03(床), 상자08(箱子), 셋-수(-數), 선거-구(選舉區), 성상06(星霜), 세02(世), 세기03(世紀), 세이브(save), 세트(set), 속05(屬), 송아리, 송이01, 쇠02(刷), 수-동이, 순03(巡), 순배(巡杯), 순-가락, 순-갈, 승어리, 스텝01(step), 스푼(spoon), 시가05(時價), 시간04(時間), 시절02(詩節), 식구01(食口), 기01(食器), 신14(scene), 씹지, 쌍02(雙), 악단02(樂段), 악장04(樂章), 악절(樂節), 알갱이02, 양-재기(洋--), 어절(語節), 억양-구(抑揚句), 연19(聯), 열04(列), 오라기, 오리01, 올01, 올-새, 운율-구(韻律句), 음보01(音步), 음소02(音素), 음절(音節), 이랑01, 인02(人), 입, 앞01, 자11(字), 자락01, 자래01, 자루01, 자루02, 자릿-수(--數), 잔02(盞), 잠01, 장20(章), 장면04(場面), 접시, 젓-가락, 정신09(艇身), 조14(組), 조각01, 조목01(條目), 조사-구(調查區), 종09(種), 중구라기, 종류(種類), 중발02(鍾鉢), 중지01, 주22(株), 주먹, 죽02, 줄01, 줄기01, 줌01, 중대03(中隊), 지-게01, 지역-구(地域區), 직01, 짐01, 집01, 집단(集團), 짝01, 쪽02, 차06(車), 차례02(次例), 차선03(車線), 차시01(次時), 차원02(次元), 챕터(chapter), 책01(冊), 처02(處), 초롱01, 촉01, 층02(層), 칸01, 캔(can), 커플(couple), 컵(cup), 켜, 코02, 타래01, 탕기01(湯器), 텍스트(text), 토리01, 토막01, 통02, 통03, 통09(桶), 통화04(通話), 통구리, 트럭(truck), 트랙02, 틀, 팀(team), 파트(part), 판06(板), 판08(版), 패03(牌), 페이지(page), 편03(片), 편04(便), 포03(包), 포04(包), 포기01, 포대03(布袋), 폭04(幅), 표04(票), 품02, 프레임(frame), 품종(品種), 학급(學級), 학기02(學期), 학년(學年), 학점(學點), 항05(項), 항목(項目), 행01(行), 형태-소(形態素), 호동03(號棟), 호봉02(號俸), 화소03(畫素), 환04(丸), 획02(劃), 획지(劃地)

위에서 언급된 명사들은 단위 명사로도 쓰이는 자립 명사들인데 한자어 명사, 고유어 명사, 외래어 명사가 모두 포함된다. 위의 명사들은 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정리한 명사들이고 각 명사의 쓰임새는 말뭉치<sup>3)</sup>와 한국의 검색 브라우저로 확인하였다.

단위 명사의 주요 특성은 기능에 있다. 즉, 단위 명사는 어떤 체계나 집합 따위를 세는 기능을 한다. 의존 명사 단위사가 나타나는 일반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 두 마리’라는 구는 [N-Q-Cl]의 구조로 정리가 된다. 이 구조의 특성은 바로 일반 명사와 의존 명사가 공기(共起, co-occurrence)한다는 것이다. 만일 단위 명사의 개념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외국인이 이러한 한국어의 구조를 보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대개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것이다. 하나는, 일반 명사와 의존 명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째서 수 관형사와 명사, 즉 [Q-N] 구조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지와 같은 문제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의 더 고급 단계에 도달하면 후자의 구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람 두 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서 ‘두 사람’이라는 구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개 두 마리’와 같은 구성에서는 ‘\*<sup>2</sup>두 개(동물)’와 같은 구성을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위의 ‘두 사람’과 ‘\*<sup>2</sup>두 개(동물)’와 같은 문장들을 평행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후자는 상당히 이상한 문장이라는 걸 관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사람 두 명’, ‘두 사람’, ‘<sup>2</sup>두 명’, ‘\*명 두 사람’, ‘학생 두 명’, ‘학생 두 사람’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구조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구조들이 각각 저마다의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예들은 일반 자립 명사를 단위 명사로 쓸 때 각각 상황에 따라 한정된 구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의 차이점, 자립 명사가 단위사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 나아가 단위사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립 명사와 단위사성을 가질 수 없는 자립 명사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3)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 1.3. 연구 자료

지금까지 단위 명사에 대한 논의들은 국내외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어의 단위 명사들을 논의할 때 주로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선호되는데 이런 논의 방식은 Aikhenvald(2000)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단위 명사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Aikhenvald(2000)을 중심 토대로 삼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khenvald(2000)에서 이루어진 단위 명사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는 수 단위 명사(numeral classifiers)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에서의 단위 명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Lyons(1977)에서 논의된 도량 단위 명사도 주목할 만하다. Lyons(1977)에는 수 단위 명사에 대한 판별 논의가 있으며 도량 단위 명사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단위 명사가 있는 언어이든 단위 명사가 없는 언어이든 상관없이 도량 단위 명사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단위 명사 체계가 굉장히 발달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도량 단위 명사와 다른 여러 가지 단위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국어 단위 명사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로는 최현배(1946, 1961), 우형식(1996), 채완(1996)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모두 단위 명사를 의미적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한국어의 단위 명사를 체계화하였으며 이후 단위 명사 연구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에서 정리해 보이도록 하겠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위 명사들의 의미와 이들이 문장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말뭉치와 네이버 등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참고한 사전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과 등이다. 특히 본고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뜻풀이의 양식은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 1.4. 논의의 구성

이 논문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여기서 이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뤄진 단위 명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본고를 이해할 수 있는 예비적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가장 먼저 단위 명사에 대한 기본적 논의를 밝힌 후 단위 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에 대한 차이를 고민하고 의존적 단위 명사와 자립적 단위 명사의 차이점을 보도록 한다. 이어서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와 함께 외래어에서 유래된 명사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단위 명사의 제약점에 대해 언급하고,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에 대해서 논의한 후 단위 명사의 복수성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단위 명사를 의미론적으로 볼 것인데 앞서 논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단위 명사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에 기존 연구에서의 하위 부류를 보겠다. 제3장 후반부에는 명사들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이 여러 가지 명사들을 다시 재분류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단위 명사로 사용된 자립 명사들이 문장 구성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갖는지 그 기능적 특성을 검토한 후 명사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 명사의 부류의 특성을 밝힐 것이다. 여기서 명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자립적 단위 명사와 다른 명사와의 의존성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전의 장에서 서술한 핵심적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 2. 예비적 연구

### 2.1. 단위 명사의 개념과 논의

한국어에서는 다른 언어와 같이 어떤 단위를 셀 때 단위 명사들을 사용한다. 어떤 언어에서는 단위 명사가 단독 품사 부류에 해당하나 한국어의 단위 명사는 명사의 하위 부류로 보인다. 한국어의 단위 명사 체계에서는 주로 “수 단위사”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 온 것이다. 현대 학교 문법에서는 ‘분류사’로 칭한다. 예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있었다.<sup>1)</sup>

- 셈날덩이안웅근이름씨: 최현배(1961)
- 수량단위/수단위: 서정수(1969, 1996) 김하수(1976), 서광수(1975), 등
- 수량사: 김민수(1971), 김영희(1976, 1981, 1984), 노대규(1977), 등
- 양사: 성광수(1975)
- 셈가름말: 김영희(1981, 1984)
- 단위어/단위명사: 박성훈(1985), 김병운(1998), 조현룡(1998), 최정혜(1999), 정제한(1998), 박진호(2011), 등
- 수량단위형식명사: 임동훈(1991)
- 분류사: 이익섭(1973), 임홍빈(1979, 1991a/b), 이남순(1995), 석주연(2009), 채완(1983, 1990, 1996), 우형식(2001, 2005, 2015), 곽추문(1995), 유동준(1983), 최민우(2000), 황순희 외(2010), 등.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위 명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명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학자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동안 이익섭(1973)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분류사’라는 명칭이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아직도 ‘분류사’라는 명칭을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학자

---

1) 최형용 (2017) ‘한국어 분류사 연구’ 45-50을 재인용하였다.

들이 많은 만큼 종종 다른 명칭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박진호(2011)에서 제시하는 ‘단위사(unitizer)’라는 명칭이 있다. 박진호(2011)에서는 언어 요소를 위해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언어 요소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옳바르다고 하였다. 그래서 ‘분류사’라고 하면 주된 기능이 분류하는 기능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분류사’로 불려온 요소들의 실제 기능은 지시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며, ‘단위화’하는 것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류사’보다 ‘단위사’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박진호(2011)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며, 어떤 단위를 셀 때 쓰이는 명사나 의존 명사의 역할은 지시대상을 분류화 시키는 것보다 단위화 시키는 것이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단위 명사’나 ‘단위사’라는 이름으로서 이들을 칭할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려면 단위사와 분류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수적일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가. 불안산 마루에 흰 구름 한 장이 걸쳐져 있었다.  
나. 저 멀리 나무 위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다. 그 초원의 바다 위로 구름 몇 점 걸리면 동화속 그림이 따로 없다.
- (2) 가. 기자 두 {분/명/놈} 밖에 없었다.  
나. 기자 두 사람 밖에 없었다.

위의 예들은 진려봉(2012: 102-106)에서 가져온 예들인데 (1)에서 나오는 ‘구름’은 분류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구름’의 뜻을 ‘공기 중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구름은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장’, ‘점’이라는 의존 명사와 ‘조각’이라는 자립 명사가 ‘구름’과 같이 쓰여 ‘구름’의 의미적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를 보면 이와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가)에서 나타나는 ‘분’, ‘명’, ‘놈’은 주어인 ‘기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2나)에 쓰인 단위 명사 ‘사람’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기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세고 있을 뿐이다. 의존 명사 ‘명’은 자립 명사 ‘사람’과 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단위 명사인 데, ‘명’이 쓰이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나 ‘놈’과 같은 단위 명사는 ‘명’에는 없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이들은 ‘명’의 의미적인 인식 방법을 넓혀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자립 명사 ‘사람’은 대신에 교체할 수 있는 자립 명사가 없기 때문에 주어의 셈을 나타내기만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를 ‘분류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다. 단위화시키는 자립 명사나 의존 명사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의미적 범위를 넓히므로 이 명사들의 주된 기능을 분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소위 분류사라는 것들은 핵이 되는 명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이것은 분류사의 주요 기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점이다.

단위사들의 단위화 역할에 대한 증거는 명사의 ‘개체 집합적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임홍빈(1979)에서는 명사 범주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내포적 유개념의 용법이고 또 하나는 외연적 유개념의 용법이다. 이 중에서 외연적 유개념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수의 문제<sup>2)</sup>가 있다는 걸로 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이 두 가지 명사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한국어의 ‘개체집합적인’ 성격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홍빈(1979)에 따르면 한국어의 명사들은 ‘개체집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관사가 없는 한국어는 또 다른 제3의 요소가 필요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단위 명사이다. 단위 명사는 수사와 같이 쓰여 개체집합적인 명사들의 수를 한정시킨다.

- (3) 가. 집에 사람이 있다.  
나. 집에 한 사람이 있다.

위의 (3)을 보면 (3가)와 (3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수 관형사가 도입되었는가의 여부이다. (3가)의 ‘사람’은 단수형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반대로 (3나)의

2) 수의 문제란 한국어 명사의 ‘개체집합적인’ 성격에 달려 있다. 즉, 어떤 명사들은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문맥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명사들은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 이들은 개체를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집합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없다.

‘사람’은 수 관형사 ‘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수일 수밖에 없다.

또 살펴야 할 것으로는 불가산 명사가 있다. Lyons(1977)<sup>3)</sup>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단위 명사들은 분류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량의 기능도 겸한다. 이 중에서 용기류 단위 명사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는다. 단위 명사가 없는 언어인 영어의 경우를 다음 예로 검토해 보자.

- (4) 가. He drank 3 whiskies.  
나. He drank 3 bottles of whisky.
- (5) 가. \*그는 세 술 마셨다.  
나. 그는 술 세 병 마셨다.

Lyons에 의하면 불가산 명사인 ‘whisky’는 상황에 따라 가산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 (4가)에서는 액체를 표시하는 ‘whisky’를 분류성을 지닌 명사로도 다룰 수 있고 단위성의 성격을 지니는 명사로도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즉, ‘3 whiskies’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류성의 입장에서 ‘whisky’는 ‘whisky 세 종류’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단위성의 입장에서 ‘whisky 세 잔/병/...’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핵 명사인 ‘whisky’가 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4나)의 ‘3 bottles of whisky’에서는 단위화를 시키는 ‘bottles’가 들어가면서 ‘whisky’에 단위성만 남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상황은 영어와 같지 않다. (5가)에서 볼 수 있을 것처럼 ‘술’은 단위사처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와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영어와 같이 분류성과 단위성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 한국어의 규칙대로 표현하려면 단위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5나)와 같은 경우를 보면 ‘술 세 병’이 나온다. 자립 명사인 ‘병’이 들어가야 핵 명사인 ‘술’을 단위화시킬 수 있다.

Aikhenvald(2000)에서도 분류사(Numeral Classifiers)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량 분류사(mensural classifiers)와 종류 분류사(sortal classifiers)이다. 그리고 한국어

---

3) Lyons(1977) ‘Semantics’ (461-467)에서 determiners, quantifiers, classifiers에 대한 논의가 있다. 여기에서 Classifiers는 mensural(도량)과 sortal(종류) classifiers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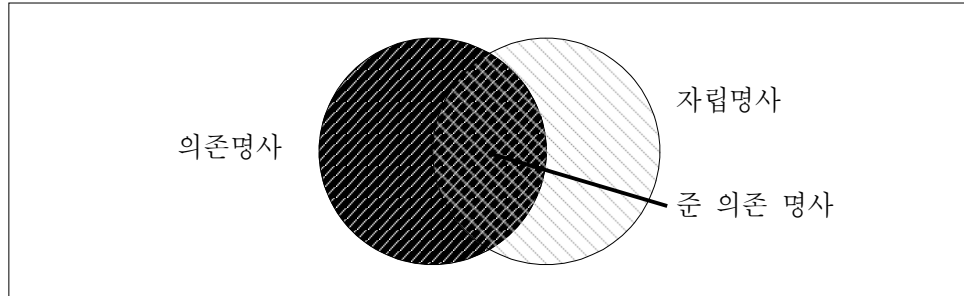
에서는 도량 분류사와 단위 명사(Quantifying Expressions/Counters)의 두 가지 부류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는 부류보다 단위나 도량의 기능이 더 강하므로, 본고에서는 분류사라는 명칭보다는 단위사라는 명칭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Lyons와 Aikhenvald가 도량 분류사로 분류한 것들을 단위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한국어의 단위에 대한 간단한 윤곽이 나온다. 한국어의 단위 명사로 쓰이는 요소들은 자립 명사나 의존 명사 부류에 속한다. 의존 명사들은 분류성 성격이 있으나 단위성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자립 명사지만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사용할 때 의존 명사처럼 사용되는 명사들도 있는데 이들은 의존 명사와 동일하게 보고자 한다. 다음 예를 보자.

- (6) 가. <sup>2</sup>한 송이를 사왔다.  
나. <sup>2</sup>한 꾸러미가 있다.

자립 명사인 ‘송이’와 ‘꾸러미’는 배경 없이 사용될 때 문장의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송이’와 ‘꾸러미’를 세는 단위로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물건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의 문장들의 맥락이 한정되지 않은 이상 ‘송이’와 ‘꾸러미’가 무엇을 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단위사들은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존 명사처럼 사용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립 단위사를 앞으로 준(準) 의존 명사(semi-bound nouns)로 부르겠다. 그리고 핵 명사에 대해 의존성을 아예 보이지 않는 자립 명사들은 단위성만 있는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준 의존 명사들은 자립 명사의 똑같은 품사 유형을 공유하나 기능에 있어서는 의존 명사와 똑같은 쓰임새를 공유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한국어 명사 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아래의 다음 <표1>과 같다.

<표1> 명사의 체계



## 2.2. 의존 명사 단위사와 자립 명사 단위사

우리는 지금까지 분류사보다 단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준(準) 의존 명사 부류도 도입하였다. 이 세 가지 부류(의존 명사, 준(準) 의존 명사, 자립 명사)는 따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명사들이 분류정보보다 단위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에 대해서 더 적절한 체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의존 명사, 준(準) 의존 명사, 자립 명사 세 가지 부류를 같이 서술할 것이다. 본고의 주된 관심사는 자립 명사의 단위명사적 쓰임새인데 편의상 앞으로 단위사로 사용되는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 구분하여 전자는 ‘의존적 단위사’로, 후자는 ‘자립적 단위사’로 칭할 것이다. 주로 ‘자립적 단위사’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인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를 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명사’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뜻풀이가 나온다.

명사03 (名詞) 「명사」 『언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이는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냐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뉜다. ㄴ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뉜다.”라는 구절에 나오는 ‘자립 명사’가 본고에서 연구할 대상이다. 의존 명사는 필수적으로 자기를 꾸미는 말이 있어야 되는 반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자립 명사라고 불린다. 그러나 앞서 간략하게 본 바와 같이, 단위사 기능을 가지는 자립 명사를 살펴보면, 모든 명사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 (7) 가. 우리 방에 두 사람이 있다.  
나. <sup>2</sup>우리 방에 한 송이가 있다.

(7가)는 ‘사람’을 꾸미는 다른 명사가 필요 없는 예이다. 그러나 (7나)는 이와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검토하면 ‘송이’도 ‘사람’처럼 자립 명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이 두 명사의 사용 방법은 같지 않다. (7나)에서 나타나는 ‘송이’는 (7가)의 ‘사람’과 달리 구체적인 맥락 없이 쓰이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낸다. ‘송이’의 사전정의를 찾아보면 ‘꼭지에 달린 꽃이나 열매 따위를 세는 단위’와 같이 나오므로 (7나)에서 말하는 ‘송이’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들에는 ‘꽃’이나 ‘열매’ 따위의 부류에 속하는 모든 명사가 해당하므로 (7나)의 문장만 보고는 이것이 과연 어떤 ‘송이’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려면 ‘송이’를 한정해 주는 명사가 따로 필요하다. 이를테면 ‘우리 방에 장미/꽃 한 송이가 있다.’ 혹은 ‘우리 방에 배 한 송이가 있다.’ 등과 같은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7나)의 ‘송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명사는 꽤 많은데, 다른 예를 제시하자면 ‘조각’이 있다. ‘조각’도 ‘송이’와 유사하게 문장에 나타날 때 항상 자신을 꾸며 주는 제2의 명사가 요구된다. ‘조각’은 어떤 개체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어휘로서 개체의 정체성이 밝혀져야 된다. 즉, 핵심 명사가 ‘피자’라면 무조건 ‘피자 한 조각’이라고 말해야 되고 ‘조각’을 한정하는 다른 명사가 생략되면 안 된다. 위에서 본 ‘사람’과 ‘송

이'와 '조각'은 다 자립 명사지만 단위사로서 쓰일 때는 쓰임새에 통사적 차이가 보인다. 다음 예들에서 '사람'과 '송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이다.

- |                   |                 |
|-------------------|-----------------|
| (8) 가. 사람이 있다.    | $N_1-V$         |
| 가'. 한 사람이 있다.     | $Num-N_1-V$     |
| 가''. 학생 한 사람이 있다. | $N_2-Num-N_1-V$ |
| 나. *송이가 있다.       | $N_1-V$         |
| 나'. ?한 송이가 있다.    | $Num-N_1-V$     |
| 나''. 꽃 한 송이가 있다.  | $N_2-Num-N_1-V$ |

위에 예를 통해서 '사람'이 쓰일 때와 '송이'가 쓰일 때의 차이를 볼 수 있다. (8가)에서의 존재성을 나타내는 동사(V) '있다'와 같이 단독적으로 써도 문장이 자연스럽고 내용도 성공적으로 전달되어 있다. (8가')에서도 문장이 역시 자연스럽다. 수사(Numeral)가 있든 없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지만, 수사의 역할을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정체성이 강한 명사이므로 수사가 없으면 모든 사람의 집합을 가리킬 수 있거나 사람 한 명만 가리킬 수도 있다. 오성애(2009)에서 명사들에 대한 체계<sup>4)</sup>를 제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사람'을 '단수, 복수 의미를 모두 포함한 명사'라는 부류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8가)에서처럼 '사람'을 한정시키는 수사나 복수 표지 '-들'이 없으면 '사람'은 단수로도 복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8가')에서와 같이 핵심 명사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가 들어가 있으면 (8가')의 사람은 단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8가'')에서는 제2 명사( $N_2$ )가 들어가 있으므로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같은 자립 명사는 단위 명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단위 명사가 허용하는 모든 문장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항상 자연스러운 문장을 이룬다.

그러나 '송이'는 '사람'과 같이 자립 명사로 분류되면서도 상황이 다르다. (8나)와 (8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송이'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는데 (8나)는 아예 비문이며 (8나')는 문맥이 없이는 어색하게 들리는 문장이다. (8나') 같은 경우

4) 오성애(2009)에서는 한국어 체계에 있어 명사의 복수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명사들은 보통명사, 고유명사, 수사 수식을 받는 명사, 단수와 복수 의미를 모두 포함한 명사 등 네 가지 부류로 나눈다.



는 ‘방에 꽃이 얼마나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사전 문맥 없이는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다. ‘송이’와 같은 명사를 사용할 때는 특정 문맥이 존재하거나 (8나”)처럼 제2 명사를 도입해야 한다.<sup>5)</sup>

지금까지 집합, 개체, 부분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위사만 간략히 보았는데 단위사에 포함된 자립 명사를 보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립 명사 부류가 있다. 이것은 Lyons(1977)에서 ‘mensural classifiers(도량 분류사)’로 정의하는 도량 단위사이다. Lyons(1977)에서는 ‘classifiers(분류사)’라는 명칭을 취하지만 Jackendoff(1968)에 따르면 소위 ‘mensural classifiers(도량 분류사)’로 일컬어지는 것들은 ‘quantifiers(단위 명사)’와 겹친다. 따라서 이미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를 논의할 때 이 두 가지의 부류를 한 가지 큰 부류로 볼 것이며 이 안에 세 가지 하위 부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명사의 체계에 있어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크게 어떤 특정한 지시대상을 분류화하는 분류사(classifiers)와 지시대상을 단위화시키는 단위 명사(quantifier)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분류사의 하위 부류에는 도량 분류사(mensural classifiers)와 종류 분류사(sortal classifiers)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지시대상을 분류화하는 단위 명사가 없다고 여기므로 한국어의 도량 분류사와 단위 명사를 다 단위사로 볼 것이다.

도량 단위사에는 또 다른 쓰임새가 보인다. 도량 단위사가 이중적인 역할을 갖는다는 점을(Lyons 1977: 464)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다음 예를 통해서 이

5) ‘송이’는 단위 명사처럼 사용되지 않을 때도 다른 명사에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의 정의를 보면 두 가지의 뜻풀이가 나온다. 두 번째 뜻풀이는 본고의 관심 대상인 단위 명사이고 첫 번째 뜻풀이는 단지 자립 명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명사」 「1」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

¶ 그녀는 꽃뭉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버렸다.

¶ 백합 송이를 코끝에 대고 마음껏 들이마시어 본다.《이무영, 농민》

위의 예문들을 보면 ‘송이’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2의 명사에 의존성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만약 위의 두 예문에서 ‘송이’가 의존하는 핵심 명사 ‘꽃’이나 ‘백합’을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이를 보면, ‘그녀는 뭉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버렸다.’와 같이 원래 문장에서 ‘꽃’을 빼면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기가 어려워진다. 두 번째 문장도 같다. ‘백합 송이를 코끝에 대고 마음껏 들이마시어 본다.’에서 핵심 명사인 ‘백합’을 생략하면 ‘송이를 코끝에 대고 마음껏 들이마시어 본다.’처럼 되는데 여기서도 ‘송이’의 정체를 알 수가 없게 된다.

두 가지의 역할을 살피고자 한다.

- (9) 가. 아주머니, 두 그릇<sub>1</sub> 주세요!  
나. 아주머니, 그릇<sub>2</sub> 두 개 주세요!

위의 (9)번을 보면 수량 표현에 사용된 ‘그릇’의 두 가지 사용방법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9가)를 보겠다. 여기서 사용된 ‘그릇’은 단위사이다. 공기 명사 ‘밥’이 있든 없든 위의 (9가)의 ‘그릇’은 단위사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밥’이란 명사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릇’과 같이 잘 어울리고 ‘그릇’은 환유적으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물체를 가리킨다. 한편 (9나)에서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지만 이것은 단위사로 해석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그릇’은 단위사의 역할이 없고 반대로 단위사 ‘개(個)’와 공기하게 되는 명사가 된다. 이럴 때의 ‘그릇’은 그 안에 담긴 물체를 가리키지 않고 단순히 용기 자체를 가리킨다.

도량형(度量衡)은 표준화된 도량형(standard measures)과 일시적인 도량형(temporary measures)로 양분되는데(채완 1990), ‘그릇’과 같은 보통 명사가 일시적 도량형의 예에 속한다.<sup>6)</sup> 이 일시적인 도량형의 또 다른 예로는 ‘가래03, 가마니 01, 공기, 광주리, 대야01, 바가지01, 바구니, 박스, 병05, 숟가락’ 따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용기류’ 단위사로 칭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사 중에는 전형적인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가 있다. 자립 명사 중에는 일반 자립 단위사가 있고 자립 명사지만

6) 표준적 도량형(그램, 미터 등)을 분류사 범주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채완(1990), 곽추문(1995), 전재연(2002), 진려봉(2012), Oh(1995) 등에서는 수 분류사처럼 보지 않으며, 김영희(1981), 유동준(1983), 우형식(2000, 2005) 등에서는 수 분류사로 여긴다. 이 중에서 진려봉(2012)에서는 일시적 도량형인 화폐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와 나이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위와 같은 단위 명사들을 표준적 도량형처럼 논의하고 수 분류사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명사 중에서 의존 명사(초, 분, 시간, 등)도 있고 자립 명사(세기)도 있다. 본고에서는 분류사라고 부르지 않고 단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니까 이들을 단위사처럼 여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 특히 ‘세기’와 같은 자립 명사가 단위사처럼 보는 것에 의문이 없다. 진려봉(2012)에 따르면 ‘세기’와 같은 소위 수 분류사가 선행명사 없이 홀로 공기하는 명사의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 분류사’처럼 볼 수가 없는 논의가 나온다. 그러나 자립 명사인 만큼 ‘세기’의 속성 의미만 충분하여 공기하는 명사 없이 ‘수사-단위사’의 구성이 나타날 법이다. ‘시간 단위사’(Time unitizer)로 볼 수 있다.

단위 구문에서 쓰일 때 의존 명사처럼 쓰이는 준(準) 의존 명사도 있다. 그 다음으로 ‘그릇’처럼 사용에 따라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바뀌는 ‘용기류’ 단위사가 있다. ‘용기류’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립 명사지만 단위사처럼 사용될 때의 쓰임새와 특성이 다른 자립적 단위 명사와 다르므로 이들을 ‘자립 명사’와 ‘준 의존 명사’에 버금가는 세 번째 부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보인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단위사들의 쓰임새와 의미적 특징을 반영하여 새로운 단위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2.3. 외래어 단위사

언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어로부터 어휘, 문법, 다양한 개념 등이 차용될 수도 있다. 단위사도 이 절차를 겪는다. Aikhenvald(2000)에서는 단위사의 차용을 간접적 단위사 차용(Indirect diffusion and noun categorization)과 직접적 단위사 차용(Direct diffusion and noun categorization)으로 나눈다.<sup>7)</sup> 간접적 단위사 차용은 주로 주변 언어에서 영향을 받을 때의 현상이며 직접적 단위사 차용은 대상인 언어에 어떤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다른 언어의 단위사 체계 전체나 일부를 빌리는 것이다.

한국어에 도입된 외래어는 대개 간접적 단위사 차용 과정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외래어로 보는 단어들은 한자어가 아니고 한자권 외의 서구에서 온 단어만 볼 것이다.<sup>8)</sup> 차용의 원리에 따라 서구어로부터 한국어에 도입된 단위 명사는 25개 정도인데, 이 중 몇 개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7) Aikhenvald(2000)에서 설명된 간접적 단위사 차용(Indirect diffusion and noun categorization)을 세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눈다. 즉, 단위사 체계 창조(Creation of a noun categorization system), 단위사 체계 재구조화(Restructuring of noun categorization), 단위사 체계 상실(Reduction of noun categorization)이다.

8) 여기서 한자어를 외래어로 보지 않겠다는 이유는 언어권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한국어는 한자어와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한자어는 한국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외래어로서 언급되는 것들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외래어 어휘들은 주로 서양 언어들에서 유래된 것들을 일컫는다. 외래어와 한자어는 따로따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게임(game), 골14(goal), 그룹01(group), 드럼02(drum), 라운드(round), 롤(roll), 박스(box), 스텝01(step), 스푼(spoon), 텍스트(text), 페이지(page), 등...

위의 어휘들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여러 단어들에 해당하는 한국어 고유어와 한자어 어휘도 있으므로 간접적 단위사 차용으로 본다.

게임 (game) 경기	골14 (goal) 득점	그룹01 (group) 모임	드럼02 (drum) 통	라운드 (round) 경기	롤 (roll) 두루마리
박스 (box) 상자	스텝01 (step) 발	스푼 (spoon) 숟가락	텍스트 (text) 글	페이지 (page) 장	

도량형 단위사 ‘드럼’, ‘박스’, ‘스푼’과 같은 경우는 단위사 체계 상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Lee(1997)에서는 현재 세대 사람들이 전통 도량형 단위사에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아서 요즈음 도량형 표현에 대한 상실이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사람들은 고유어 도량형 단위사보다 더 익숙한 영어의 도량형 단위사를 비교적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서 등재된 외래어의 뜻풀이에는 단위사라는 뜻풀이가 없다. 예를 들어 ‘롤(roll)’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뜻풀이만이 제시된다.

「명사」

「1」 물건을 눌러 펴거나 윤을 내는 데 쓰는, 둥근 통 모양의 주조물.

「2」 『출판』=롤러 「3」 .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롤’이라는 단어에 단위사로서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휴지의 두루마리, 사진기에 넣는 필름, 원통형으로 쌓인 동전의 묶음 등을 셀 때 ‘롤’이라는 단위사가 자주 쓰인다. 따라서 ‘롤’의 뜻풀이에 「3」 번의 의미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른 명사 단위사처럼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외에도 ‘롤’처럼 아직도 정의가 없는 외래어 단위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 2.4. 수사와 단위사

단위사에 대해서 서술하자면 수사에 대한 내용이 빠질 수가 없다. 그리고 수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복수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된 문헌들은 많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단위사-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蔡琬(1983), 고성철(1990), 이남순(1995), 최정혜(1999), 이정곤(2000) 등의 연구는 수사와 단위사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데에 참조가 된다. 수사를 연구하는 데에 아직도 밝히지 못한 점이 많고 무엇보다 더 수사와 단위사의 관계를 서술하는 논문도 다양한 견해를 보이므로 이 측면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수사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한자 수사와 고유어 수사를 보겠다. 그 후에 ‘하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틀을 제공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복수 표지 ‘-들’에 대해서도 작은 절을 따로 구성하여 이에 관한 몇 가지 고민을 다룰 것이다.

### 2.4.1. 한자 수사와 고유 수사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의 수사 체계가 있다. 이것은 바로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이다. 단위사와 같이 사용하는 수사를 양(量)수사라고 하는데 양수사로서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온 단어와 한자어 수사, 고유어 단어와 고유어 수사가 쓰인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지시물을 세고 있느냐 나열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외

도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를 통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10) 가. 지금 2학기예요.  
나. 두 학기 동안 설 거예요.

(10)의 두 문장들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0가)는 ‘2학기째 수학중’이라는 뜻의 문장이고 (10나)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낸다. 즉, ‘학기’와 같은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선행하는 수 관형사에 따라 정체성을 바꾼다. ‘학기’의 예를 보면 자신이 한자어에서 온 단어라도 선행하는 자리에 한자 수사든 고유 수사든 다 도입이 가능한데 이런 현상은 시간류, 공간류, 차원/등급류에 속할 수 있는 명사에서 다른 부류의 명사보다 비교적 빈번하게 보인다. 각 부류에 들어가 있는 명사를 하나씩 뽑아서 다른 예를 보고자 한다.

- (11) 가. 세 층으로 된 빌라이다.  
나. \*3(三)층으로 된 빌라이다.  
나’. 3(三)층에서 산다.
- (12) 가. 1(一)년 가운데 네 계절이 있다.  
나. 1(一)년의 사계절이 뚜렷하다.  
나’. \*1(一)년에 4계절이 있다.
- (13) 가. 처음 두 단계만 이해했다.  
나. \*처음 2(二)단계만 이해했다.  
나’. 2(二)단계만 이해했다.

(11), (12), (13)번 예들은 공간류, 시간류, 차원/등급류에 해당하는 단위사가 속하는 문장들이다. (11가)는 층의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것은 고유어 수 관형사가 핵 명사에 선행하므로 가능한 일이며, (11나)와 같은 경우에는 한자 수사가 비문을 만든다. 한자어 수사 ‘삼(三)’은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대로 (11나’)와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 수사 ‘삼(三)’은 수량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삼 층에서 산다.’라는 문장은 옳은 문장이다.

(12)번 예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시간류의 예이다. (12가)에서의 ‘네 계절’이란 일 년을 계절로 나눔으로써 네 가지 계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네 계절’은 네 가지 계절로 구성된 비교적 긴 시간을 말한다. (12나)에는 ‘사계절’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는 ‘사계절’은 시간을 세는 단위가 아니고 일반 합성명사이므로 이 문장도 옳은 것이다. 그러나 (12나)와 (12나')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12나')의 ‘사(四) 계절’은 (12나)의 ‘사계절’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12나')의 ‘사(四) 계절’은 일 년 안의 시간을 셀 수 있는 단위로 쓸 수 없는 표현이다.

(13)의 예들도 지금까지 서술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차원/등급류 명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계’에 관한 예들인데 (13가)에서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 낼 수 있다. 단계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전제로 하여 ‘처음 두 단계만 이해했다.’이라는 문장은 다섯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이해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나)는 역시 고유어 수 관형사 자리에 한자어 수사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여기서 ‘이(二) 단계’란 첫 번째 두 가지 단계를 가리키지 않고 둘째 단계만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13나)의 문장에서 (13나')처럼 ‘처음’이란 말을 빼면 옳은 문장이 된다. (13나')는 해석해 보면 다섯 개의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만 이해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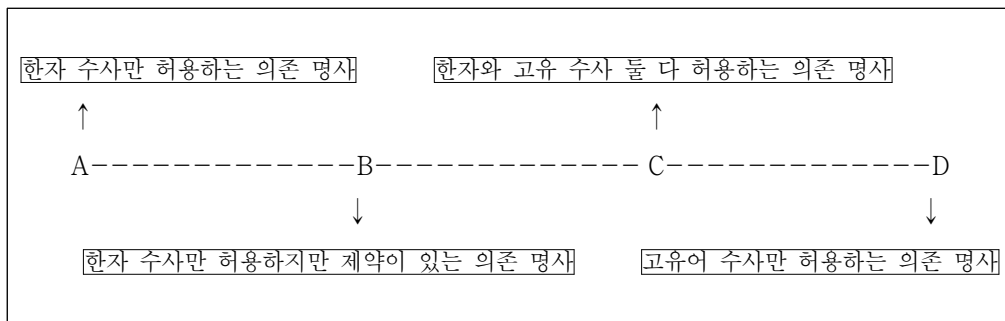
위에서 본 것처럼 문장의 의미는 단위사 전에 한자어 수사를 쓰느냐 고유어 수사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예외가 많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위의 문단에서 시간류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한자어 수사가 쓰이느냐, 고유어 수사가 쓰이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지만 ‘년’, ‘개월’, ‘주’/‘주일’, ‘일’, ‘시간’, ‘분’, ‘초’와 같은 의존 명사들은 그렇지 않고 각각의 명사가 저마다 다른 특성을 보인다. 다음 예를 보자.

- (14) 가.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  
       가'. \*두 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다.  
       나. 2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  
       나'. ?두 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다.

- (15) 가. 두 주일 후에 보자.  
 가'. (일, 이, 삼, 사, 오, ...) 주일 후에 보자.  
 나. 두 주 후에 보자.  
 나'. 2 주 후에 보자.
- (16) 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가'. \*세 일 동안 잠을 못 잤다.
- (17) 가. \*이 시간 기다렸다.  
 가'. 2 시간 기다렸다.

위의 예를 해석하려면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 있다.

<표 2> 수사에 따른 스펙트럼



위의 스펙트럼을 보면 A, B, C, D 부류가 있는데 A 부류에는 ‘년’, ‘개월’, ‘분’, ‘초’, B 부류에는 ‘일’, C 부류에는 ‘주’, ‘주일’, D 부류에는 ‘시간’이 속한다.

A류 의존 명사들은 수사와 명사의 일반적인 규칙에 작용된다. 즉, 모두 한자어에서 온 명사이므로 한자어 수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년’과 ‘개월’에는 대응할 수 있는 ‘해’와 ‘달’과 같은 고유어 명사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과 ‘초’에는 대응하는 고유어 명사가 없으므로 이 마지막 두 개의 명사들을 예외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B류 명사는 ‘일’인데 이것은 제약적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하루’, ‘이틀’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과 같이 한자 수사를 사용하되 불규칙적인 ‘하루’, ‘이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류의 ‘주’와 ‘주일’은 둘 다 의존 명사이고 서로 비슷한 말들인데 제약이 별로 없다. ‘주’와 ‘주일’을 사용할 때는 주로 한자어 수사와 사용되지만 고유어 수사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D류 명사는 ‘시간’인데 이것이 단위사로 쓰일 때는 고유어 수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수사와 단위사들의 결합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한계가 애매하고 많은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 등급, 공간에 해당하는 자립 명사들은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두 종류의 수사 체계와 결합이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보인다.

자립 단위사에 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사와 단위사의 제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자어 수 뒤에 사용하는 명사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수사와 관련된 제약들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명사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한자어 수 뒤에 쓰이는 자립 단위사

쇄02(刷), 인02(人), 차시01(次時), 판10(版)

### 2.4.2. ‘하나’의 특성과 ‘단위사 - 하나’의 구조

‘하나’라는 수사는 수사 중에서도 특별한 쓰임새를 보인다. ‘하나’와 비슷하게 ‘둘’, ‘셋’, ‘넷’도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와 비교해 보면 다소 다른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관형사로서의 ‘하나’의 사용 방법을 간략히 서술한 다음에 ‘단위사-하나’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 2.4.2.1. ‘하나’의 특성

개체집합적인 성격을 띠는 한국어 명사들을 단수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수사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라는 의미의 관형사 ‘한’이 있는데 이것은 문맥적으로 제약이 많이 보인다. ‘하나’에 관하여 최정혜(1999)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최정혜(1999)에서는 추상적 명사와 관형사 ‘한’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나온다고 하였다. 다음 예를 보면 이것을 볼 수 있다.

- (18) 가. ?희망 세 가닥 마음에 품고...  
나. ?이제서야 다섯 꼬투리 잡았다.  
다. ?육 여섯 바가지 얻어 먹었으니 배 부르겠군.  
라. ?그는 국어학에서 네 획을 그은 학자이다.

최정혜(1999 : 60)

위의 문장들이 어색한 이유는 ‘하나’의 독특한 의미 속성에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나’의 관형사인 ‘한’은 수사로 쓰이지만 고대 한국어에서 ‘한’이라는 관형사의 기본형인 ‘하다’는 ‘많다, 크다’의 뜻도 있었기 때문이다. 즉, (18)의 ‘셋’, ‘다섯’ 등의 수 관형사들을 ‘한’으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만 이것이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정혜(1999)에서는 추상적 명사가 선행하는 경우라면 수사의 제약이 있으므로 ‘하나’와 결합이 되긴 하지만 이를 수량 표현으로 볼 수는 없으며 ‘하다’의 관형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는 추상적 명사 앞에서 ‘한’을 사용하면 수사 의미로서의 ‘한’인지 형용사 의미로서의 ‘한’인지 명쾌하게 구별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 (19) 가. 육 한 바가지 얻어 먹었으니 배 부르겠군.  
나. 그는 국어학에서 한 획을 그은 학자이다.

최정혜(1999 : 61)

(19)를 보면 ‘한’이 수사인지 형용사인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양쪽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8)의 문장들에 나오는 ‘세’, ‘다섯’, 등의 수 관형사 대신에 형용사 ‘한’을 교체하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긴 하지만 ‘한’은 ‘크다’와 ‘많다’라는 뜻의 형용사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예를 들면 (18가)의 ‘세’를 ‘한’으로 바꾸어 보면 ‘희망 한 가닥 마음에 품고...’처럼 되는데 이 문장에서 ‘한’ 대신에 ‘크다’를 놓으면 문장이 어색하다. 즉, ‘?\*희망 큰 가닥 마음에 품고...’와 같은 문장은

굉장히 어색하며 심지어 비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정혜(1999)의 위와 같은 언급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상적 명사와 결합하는 ‘한’을 형용사로도 볼 수 없고 수사로도 볼 수 없다고 하면 이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좋을까. 본고에서는 이 경우의 ‘한’을 부정관사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관사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따위에서 명사 앞에 놓여 단수, 복수, 성, 격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한국어에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관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18가)의 예를 가지고 ‘한’을 도입시킨 다음에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문장들이다.

- (20) 가. 희망 한 가닥 마음에 품고...  
나. With a strand of hope within his heart...  
다. Con un lume di speranza nel cuore...

위에서 밑줄 친 부분들은 관사이다. (20)의 관사들은 다 부정관사이고 모든 언어에서 추상적 명사 앞에 ‘하나’보다 더 큰 숫자가 오게 되면 꽤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 ‘one’에 해당하는 부정관사가 ‘a/an’인데 이들의 역할은 뒤에 오는 명사를 단수화시키는 것일 뿐이며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탈리아어의 경우를 보면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는 관사 체계가 발달한 언어로 알려져 있듯이, 총 12개의 관사가 있다. 이 중에서 8개는 정관사이며 나머지 4개는 부정관사이다.<sup>9)</sup>

한국어 ‘한’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 관사는 ‘uno/un’이다. 전자는 영어 ‘a’처럼 후행하는 명사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쓰이고 후자는 영어 ‘an’처럼 후행하는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쓰인다. 위의 (20)번 예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구어 화자가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처럼 느끼지 않고 단순히 추상적 명사들은 우리가 인식할

9) 관사(冠詞)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따위에서 명사 앞에 놓여 단수, 복수, 성, 격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정관사와 부정 관사가 있다. 정관사는 정확한 지시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부정관사는 명사가 불특정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 앞에 덧붙여지는 관사이다. ‘하나의’ 또는 ‘어느’, ‘어떤’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어의 ‘a’, 독일어의 ‘ein’, 프랑스어의 ‘un’ 따위이다.

수 없는 개념으로서 불가산 명사들이므로 단수형만 취할 수 있는 명사로 이해한다. 따라서 위에서처럼 추상적 의미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단위사들은 ‘하나’만 취하면 단위사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핵심 명사 전에 ‘한’이란 수 관형사가 오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단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2.4.2.2. ‘단위사 - 하나’의 구조

‘하나’에 대해서 말하면 더 다른 특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단위사 - 하나’의 구조이다. 다음 예를 보고 ‘하나’의 사용을 보자.

- (21) 가. 사람 하나 있다.
- 나. 책상 하나 있다.
- 다. 사탕 하나 주세요.

위에서 ‘하나’를 선행하는 명사들은 다 단위사로 볼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은 단위사의 역할을 취할 수 있는 자립 명사인 데 ‘책상’과 ‘사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 사람’과 같은 구조는 옳은 표현이나 “\*한 책상”하고 “\*한 사탕”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명사 - 수사’의 구조가 단위사가 있든 명사가 있든 항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진려봉(2012: 112-113)에서는 [인간성]이나 [사물성]의 의미를 가진 명사인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고, [동물성]이나 [식물성]의 의미 자질을 가진 명사인 경우에는 ‘명사 - 수사’ 구성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 견해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 다음 예는 진려봉(2012)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하나’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든 예문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장들이 과연 비문일까 싶다.

- (22) 가. 학생 {하나, 한 명}이/가 강의실에 있다.  
 나. 토끼 {하나, 한 마리}를 키웠다.  
 다. 나무 {하나, 한 그루}를 심었다.  
 라. 사과 {하나, 한 개}만 주세요.

(22가)와 (22라)는 [인간성]과 [사물성] 명사이므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22나)와 (22다)는 각 [동물성]과 [식물성] 명사이므로 ‘하나’와 결합하지 않는다. [동물성] 명사와 ‘하나’를 결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식물성] 명사인 경우에는 이 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 규칙으로 보기가 어렵다. 코퍼스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나무 하나를 심었다’, ‘나무 하나를 가르켰다<sup>10)</sup>’, ‘꽃 하나가 그의 손에 내려 앉았다<sup>11)</sup>.’와 같은 표현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진려봉(2012)에서 나타나는 ‘하나’에 관한 제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 蔡琬(1983)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연필 셋’과 ‘사과 둘’과 같은 표현도 가능하다.<sup>12)</sup> 따라서 [사물성] 명사, 즉 물건들을 셀 때 단위사 없이 ‘연필 하나, 연필 둘, 연필 셋’처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맥락 없이 물건을 세는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명사 - 수사(하나, 둘, 셋, 넷)’의 구조는 항상 실용되는 구조이므로 이 구조에 사용된 명사들은 다 단위사로 보면 안 된다.

또 흥미로운 차이는 위의 표현들을 맥락과 관련을 지을 때 관찰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면 이런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0) 여기서의 ‘가르켰다’의 맞는 표현은 ‘가리켰다’이다.

11) 여기서의 ‘내려 앉았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내려앉다’처럼 붙여 쓰는 것이 맞다.

12) 蔡琬(1983)에 따르면 ‘세 연필’과 ‘두 사과’와 같은 표현도 가능한데 이것은 학교 문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즉, 단위사들을 의생활, 주생활, 따위로 분류하였는데 결국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옷, 음식, 집, 물건, 따위는 쉽게 단위사와 비슷하게 다른 의존 명사 없이 바로 수사 뒤에 (혹은 앞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 (23) 가. 연필 하나 주세요.  
 가'. \*연필 둘(셋, 넷, ...) 주세요.  
 나. 책상 위에 연필 하나가 있다.  
 나'. \*책상 위에 연필 둘이(셋이, 넷이, ...)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둘, 셋, 넷’ 등과 같은 수사는 그렇지 않고 큰 제약이 보인다. ‘둘, 셋, 넷’ 등은 수량을 셀 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 구조는 단위사구처럼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 그래서 단위사가 아닌 이상 ‘명사 - 수사’ 구조만 가능하나 ‘관형사 수사 - 명사’를 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관형사 수사 - 명사’ 구조는 화자와 청자에게 지시 대상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24) 가. 두 책상이 비슷하다.  
 나. \*다섯 책상을 샀다.

蔡琬(1983)

화자와 청자가 어떤 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전제로 하여 (24가)와 같이 말할 수 있지만 역시 ‘책상’은 단위사가 아니기 때문에 (24나)는 옳은 문장이 아니다.

### 2.4.3. 자립 단위 명사의 복수성

수사는 명사의 수를 한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데 복수형이 되면 자립 단위 명사들을 복수화할 때 명사처럼 행동할 수 없다. 자립 명사들은 복수일 때 자주 ‘-들’ 복수 표지를 결합한다. 의존적 단위사라면 (예: 명, 마리, 대, 개 등) 규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조사가 대개 한정적인데 이때도 역시 복수 표지 ‘-들’은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립적 단위사와는 (예: 사람, 집, 곳, 걸음 등) ‘-들’이 결합될 수 있을까? 다음 예는 단위사 ‘명’, ‘분’, ‘사람’에 ‘-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예들이다.

- (25) 가. \*사람 열 명들이 있다.  
       가'. 사람들 열 명이 있다.  
       나. ?\*선생님 열 분들이 계세요.<sup>13)</sup>  
       나'. 선생님들 열 분이 계세요.  
       다. ?\*열 사람들이 있다.<sup>14)</sup>

역시 단위사에 ‘-들’을 결합하면 단위사가 의존 명사든 자립 명사든 비문이다. 따라서 자립적 단위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명사처럼 쓰일 때처럼 ‘-들’을 취할 수 없으며 단위사일 때는 복수화의 역할은 수사에게 맡겨져 있다.

13) 말뭉치에서 검토를 해 보면 ‘분들’은 ‘한’ 빼고 ‘두’에서 ‘열’까지 같이 찾아보면 총 아홉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제일 최근의 자료는 2003년의 자료이며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과 같은 배열이 보인다.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들’

14) ‘사람들’도 ‘분들’처럼 말뭉치에서 찾아보니까 ‘두’에서 ‘열’까지 같이 찾아보면 총 열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도 제일 최근의 자료는 2003년의 자료이며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과 같은 배열이 보인다.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람들’

### 3. 의미론적 관점에 의한 단위사의 분류

언어학계에 일반적으로 ‘Classifiers(분류사)’로 알려져 있는 언어 요소를 많은 언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Aikhenvald(2000)에서 이루어진 분류사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Aikhenvald(2000)는 분류사(classifiers)를 세분하고 Craig(1994)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 7가지의 분류사(classifiers)를 파악하였다.

#### <표 1> 분류사 종류

1. 수 분류사 (numeral classifier)
2. 명사 분류사 (noun classifier)
3. 명사 부류와 성 (noun class and gender)
4. 동사 분류사 (verbal classifier)
5. 소유 분류사 (genitive classifier)
6. 처소 분류사 (locative classifier)
7. 화시 분류사 (deictic classifier)

이 중에는 수 분류사가 제일 일반적인 분류사인데, 이 유형은 주로 고립어에서 찾을 수 있다. 교착어와 포합어와 굴절어에서도 내림차순으로 발견된다. Gil(2005)에서 수 분류사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 2> 분류사를 사용하는 언어 체계

가. 수 분류사가 없는 언어	260개
나. 수 분류사가 수의적인 언어	62개
다. 수 분류사가 필수적인 언어	78개
총	400개

이 부류 중에서 한국어는 확실히 ‘다’ 부류에 해당한다.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가 범주화 기능보다 수량화 기능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보므로 ‘분류사’ 명칭보다 ‘단위사’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sup>1)</sup>



본장에서는 먼저 3.1에서 지금까지 연구해 온 단위사에 대한 대표 자료들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단위사의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실행되어 있는지를 볼 것이다.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3.2에서 의미·기능적 부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3.3에서 명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단위사로 문법화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Aikhenvald(2000)에서 단위 명사로 문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자립 명사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건들이 한국어에도 적용되는지를 볼 예정이다.

### 3.1. 단위사 설정과 기존 연구

#### 3.1.1. 단위사의 판별 기준

단위사란 공기 명사<sup>2)</sup>를 수량화 시키는 문법 요소이다. 문장을 구성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단위사는 공기하는 명사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핵심 명사와 단위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입장은 단위사는 범주화 기능보다 수량화의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갖는다. 그러나 ‘분류사’ 명칭보다 ‘단위사’란 명칭을 선호한다고 해서 핵심 명사와 단위사의 관계를 볼 때 단위사의 의미적 분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즉, 핵심 명사를 셀 때 필요한 단위사를 선택할 때 핵심 명사와 동일한 의미적 부류에 속하는 단위사를 골라야 한다. 예컨대, ‘\*사람 한 마리’, ‘\*물 한 박스’와 같은 표현들은 의미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 문장들이다. 첫 번째 예는 ‘사람’에 해당하는 단위사가 ‘명’이라서 [동물성] 나타내는 ‘마리’가 사용될 수가 없으며, 두 번째 예는 ‘물’에 해당하는 특정한 단위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산한 명사인 ‘물’은 다른 도량 단위사와 더 잘 성립한다.

- 
- 1)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으므로, 지금부터는 ‘분류사’ 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한 이전 연구 자료의 내용을 언급할 때도 ‘단위사’로 통일하여 부르겠다.
  - 2) 공기 명사란 단위사와 같이 사용되는 명사를 일컫는 용어로 본고에서 설정한 것이다. 이 두 명사들은 상의-하의 관계를 이룬다. 언어 요소들 중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인 어휘관계는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강범모(2010)에 따르면 이 어휘관계 중에서 상의-하의 관계(‘동물’-‘고양이’), 동의관계/유의관계(‘친구’-‘벗’), 반의관계(‘성공’-‘실패’), 부분관계(‘얼굴’-‘코’) 따위가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자립 단위 명사에 해당하는 어휘관계는 하의관계이다. ‘학생 두 사람’ 같은 문장에서 ‘학생’은 ‘사람’ 부류에 속하는 개념이므로 상의-하의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의 모든 것들은 모양, 크기, 무게, 따위 속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부류를 만들어서 범주화 시킨다. 예를 들어 ‘물’은 셀 수 없는 단위지만 우리는 이런 불가산 속성을 가지는 명사들을 액체와 고체로 양분하였다. ‘물’과 같은 액체는 원래 상자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잔’, ‘통’ 등에 도구 안에 보관하는 것이므로 ‘물’과 ‘상자’가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의 명사들을 셀 때 필수적으로 핵심 명사와 잘 어울리는 단위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2장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명사의 썸을 나타내는 단위사들은 명사이다. 따라서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명사와 단위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홍빈(1991)에서 제시한 단위사 판별의 점검 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임홍빈(1991)에서는 어휘-의미적 특성과 출현 위치의 특성<sup>3)</sup>을 제시하면서 단위사를 판별함에 있어 유용한 점검 틀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표 3> 단위사 판별

- |                 |  |
|-----------------|--|
| 가. 지시문맥에 의한 검증: | 저것(이것, 그것)은 ~이다.                       |
| 나. 표현단위에 의한 검증: | ~를 셀 때에는 {단위사}로 센다.<br>~은 {단위사}로 나타낸다. |

우선 <표3>의 (가)를 설명할 것이다. 단위사들은 지시문맥에서 보았을 때 일반 명사처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할 때 ‘이것’, ‘저것’, ‘그것’이 쓰이는데 이것은 지시 표현일 뿐이지 자기만의 의미가 없는 표현들이다. 따라서 어휘와 함께 쓰여야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사과이다’, ‘이것은 책상이다’와 같은 문장은 통하지만 ‘사과’와 ‘책상’은 단위사처럼 볼 수 없다. 위의 지시사들은 임홍빈(1991)에서 전형적 단위사로 보는 단어와 사용하면 (가)의

3) 임홍빈(1991)에서 언급되는 어휘-의미적 특성과 출현의 위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어휘-의미적 특성: 전형적인 단위사가 진정한 의미가 없으므로 어휘의 역할을 부여할 수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만 가진다.

출현의 위치의 특성: 전형적인 단위사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취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된 것이다. 즉, 핵심 명사를 후행하거나 속격 조사 ‘의’가 도입하여 핵심 명사를 선행 할 수도 있다.

문장이 비문이어야 된다. 단위사인 ‘명’, ‘마리’, ‘개’를 가지고 지시사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것은 명이다’, ‘\*이것은 마리아다’, ‘\*이것은 개(個)다’와 같은 비문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비문이 되는 이유는 단위사 ‘명’, ‘마리’, ‘개(個)’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은 데에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임홍빈(1991)에 의하면 ‘명’, ‘마리’, ‘개(個)’는 단위사이나 현대 한국어에는 단위사 중에 자립 명사도 포함되므로 위의 설명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자립 단위사의 일부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람’, ‘집’ 등을 예로 들면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집이다’라는 문장들은 모두 정문이 되므로 위의 점검 틀을 적용하려면 이들이 의존 명사로 쓰였는지 자립 명사로 쓰였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표3>의 (나)를 보겠다. ‘~를 셀 때에는 {단위사}로 센다.’에서 ‘~’ 대신에 일반 명사를 집어넣으면 괄호 안에 있는 ‘{단위사}’ 부분에는 앞에서 제시한 일반 명사를 셀 수 있는 단위사가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셀 때 명으로 센다.’ 같은 식으로 하면 명사들을 세는 공기 단위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사람’은 자립 명사이자 단위사의 성질도 갖고 있으므로 ‘사람을 셀 때 사람으로 센다.’와 같은 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은 {단위사}로 나타낸다.’도 ‘사람은 명으로 나타낸다.’와 ‘사람은 사람으로 나타낸다.’ 둘 다의 경우가 가능하다. 곧 이런 현상이 반복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명사 - 수사’ 구성 뒤에 나타나는 명사가 수사를 선행하는 명사와 같으면 반복소라고 한다(Aikhenvald 2000). 이것은 단어에 대응하는 단어가 없거나, 있을 때도 명사 자체를 사용할 때의 현상이다. 진려봉(2012 : 47-49)에서는 자립 단위사들은 반복소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는데 본고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반복소는 ‘명사<sub>1</sub>-수사-명사<sub>1</sub>’의 구성을 따르는데 Aikhenvald(2000)에서 언급되는 Hundius and Kölver(1983: 190)의 태국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반복소의 기본 유형을 알아보자.



피었다.’로 바뀌 보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지만 이것들은 반복소로 볼 수 없다. 반복소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조각’과 ‘송이’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의 자립 명사들을 반복소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각 단위사들이 갖는 다른 명사에 의존성에 대한 체계화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자세히 제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임홍빈(1991)에서 제시된 단위사 판별 기준과 반복소에 대한 기준은 단위사를 판별하는 도구로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한국어에는 자립 단위사가 많기 때문이다. 최정혜(1999: 32-33)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즉, ‘몇’을 의문문에 도입시키는 것이다. ‘몇 - 자립 명사’와 같은 문장을 만든 후 이 문장이 정문이면 후행하는 자립 명사를 단위사로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정혜(1991: 33)에서 제시된 다음 문장들을 보자.

- (4) 가. 몇 학급이 참가했습니까?  
나. 몇 나라를 방문했습니까?  
다. \*몇 지갑을 샀습니까?  
라. \*몇 폭포를 봤습니까?

(4)의 ‘몇’은 단위사를 밝히는 것이다. (4가)와 (4나)의 ‘학급’과 ‘나라’ 등의 명사들은 단위사로서 ‘몇’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다른 두 개의 문장들은 그렇지 않다. 한편 (4다)와 (4라)에서도 ‘몇’ 뒤에 (4가)와 (4나)와 마찬가지로 자립 명사가 오지만 이것은 단위사가 아니므로 이 문장들은 비문이다. 즉, ‘지갑’과 ‘폭포’가 단위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므로 수량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채완(1983)에 의하면 청자와 화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면 ‘수 관형사 - 단위사’와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 관형사’ 대신 한정되지 않은 관형사인 ‘몇’이 있으면 실현되지 않는다. 즉, ‘몇’은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이므로 청자와 화자가 지시대상의 수량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두 연필’과 같은 표현은 가능하나 ‘\*몇 연필’은 비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점점 틀은 단위사를 판별할 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단위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요소들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므로 다

른 언어보다 판별 과정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 일차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자립 명사 중에서 단위사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도 알아야 한다.

### 3.1.2. 기존 연구에서의 하위 부류

다음으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단위사에 관한 연구사를 점검하고자 한다. 단위사는 공기하는 명사와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단위사 언어에서는 한 문장 안에서 단위사가 핵심 명사의 부류(class)를 나타내고, 핵심 명사가 종(kind)을 나타내며 지시물의 수량을 밝혀주는 역할은 수사에 맡겨져 있다.<sup>4)</sup>

한국어의 단위사들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의미적으로 핵심 명사에 아무런 부가적 의미를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부류화보다 수량을 한정시키는 데에 더 본격적인 역할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의 단위사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와 수사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분류화의 기능이 단위화의 기능보다 더 강하더라도, 핵심 명사를 셀 때 사용해야 하는 단위사는 선택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위사 체계를 분류하기 위한 대한 의미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셀 때 사용해야 할 알맞은 단위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 분류 작업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논의는 Adams and conklin(1973), Denny(1976), Lyons(1977), Allan(1977), Aikhenvald(2000), 최현배(1955), 김영희(1981), 유동준(1983), 채완(1990), Oh(1994), 우형식(1997), 진려봉(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Adams and conklin(1973)에서는 단위사를 총 5개의 거시적 부류로 분류하였다. 이 부류들은 사람, 동물, 식물, 층위, 기능인데 각 부류를 다른 하위 부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사람 단위사들은 사회적 지위나 친족 관계에 따라 양분화하였다. 또는 동물 단위사들은 동물의 크기와 서식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Adams and conklin(1973)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똑같은 단위사가 여러 가지 부류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매’와 같은 지시 대상이 콩이나 공 따위와 함께 분류가

---

4) 핵심 명사와 공기하는 명사가 동일하다. 공기하는 명사는 단위사와 같이 사용된 명사이고 이 명사가 문장의 주된 명사이므로 핵심 명사로 부르기도 한다.

될 수 있다.

Denny(1976)은 크게 수량화의 기능을 가지는 단위사와 의미 자질을 나타내는 단위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후자를 명사의 의미 자질을 추상적으로 보았을 때 다시 여러 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세계의 만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분류화시킬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위사들이며 물리적 상호작용, 기능적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의 3가지 부류가 있다.

Lyons(1977)는 이미 2.1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위사를 도량 단위사(mensural classifier)와 종류 단위사(sortal classifier)로 구분하였다. 도량 단위사들은 주로 용기류 부류에 속하고 이들은 의미적으로 핵심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 없으며 종류 단위사들은 다른 명사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문맥에 따라 부가적 의미를 보충한다. 그리고 많은 명사들은 도량 단위사와 종류 단위사로도 겸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Allan(1977)에서는 총 7가지의 기본 부류, 즉 재료, 모양, 밀도, 크기, 위치, 배열, 수량으로 분류하였다. Allan(1977)의 논의에서도 한 특정한 단위사가 여러 가지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단위사 체계는 한국인 학자들이 쓰는 분류 방법과 제일 유사한 체계 중에서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한국어의 단위사 논의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ikhenvald(2000)는 이미 서술한 것처럼 분류사의 체계를 논의하였는데 안에는 수 분류사 (numer classifier), 명사 분류사 (noun classifier), 명사 부류와 성 (noun class and gender), 동사 분류사 (verbal classifier), 소유 분류사 (genitive classifier), 처소 분류사 (locative classifier), 화시 분류사 (deictic classifier)가 있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위사에 대응되는 것은 바로 소위 “수 분류사”로 일컬어져 온 것이다. 이어서 Aikhenvald(2000)는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사의 체계를 유정성과 인간성 및 성(性), 물리적 속성, 기능적 속성, 배열과 다양 총 4가지 큰 부류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단위사에 대한 연구를 볼 것인데 이 논의들에서도 주로 단위사의 수량화 기능과 범주화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최현배(1955)는 단위사 연구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은 기념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최현배(1955)에서는 분류

사를 ‘셈날덩이 안용근 이름씨’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류를 제시하였다.

- (5) 가. 길이(度) : 자(尺), 치(寸), 분(分)
- 나. 술(量) : 섬, 말, 되, 홑
- 다. 무게(重衡) : 양, 돈, 푼
- 라. 돈(貨幣) : 양, 돈, 푼, 리; 환, 전, 리
- 마. 다른 것(基他) : 사람(人), 채, 자루, 충, 켄레, 필, 마리, 그루, 들<sup>5)</sup>

김영희(1981)는 Allan(1977)의 단위사에 대한 처리를 한국어에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단위사 체계를 제시하였다.

- (6) 가. 중립 가름말 : 낱, 개, 깨
- 나. 세분 가름말 - 낱 가름말 : 개비, 그루, 마디, 마리, 명, 모금, 방울, 번, 살,  
송이, 자루, 잔, 장, 푼, 톨
- 무리 가름말 : 감, 관, 꾸러미, 다발, 단, 두름, 동, 마지기,  
벌, 섬, 손, 씹, 연, 접, 줄, 축, 채, 톳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영희(1981)는 단위사의 수량 범위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중립 가름말(neutral classifiers)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부가적인 의미 없이 단위의 셈을 나타낸다. 이것은 세분 가름말(specialized classifiers)과의 차이점이다.

세분 가름말은 핵심 명사와 같이 사용될 때 구체적인 의미 범주에 따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립 가름말인 ‘낱’과 같은 단위사가 제약 없이 많은 명사들과 나타날 수 있지만 세분 가름말들은 의미적인 제약이 보이므로 핵심 명사의 속성을 잘 살펴야 사용할 수 있다. 세분 가름말은 다시 둘로 재분류된다. 낱 가름말은 개체 명사와만 사용할 수 있고 무리 가름말은 집합 명사와만 성립한다.

유동준(1983)는 Allan(1977)과 Lyons(1977)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단위사를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단위사를 총 5개의 기본 범주로 나누었는데,

---

5) 최현배(1955)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타의 부류이다. 이 연구에서 공기하는 명사에 관한 연구가 없어서 속성이 아주 다른 ‘사람(人), 채, 자루, 충, 켄레, 필, 마리, 그루, 들’ 등과 같은 명사들이 다 똑같은 부류로 처리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 (7) 가. 척도 범주 | ① 절대척도 분류사 : 근, 평, 관     |
|              | ② 상대척도 분류사 : 줌, 뺌, 잔     |
| 나. 모양 범주     | ① 유형 - 구형 분류사 : 툴, 방울, 알 |
|              | 장방형 분류사 : 가락, 자루, 개비     |
|              | 편형 분류사 : 잎, 장, 폭         |
|              | ② 무형 : 건, 편, 시간          |
| 다. 배열 범주     | ① 규칙 배열 - 엮음 분류사 : 두름, 꿰 |
|              | 포갠 분류사 : 연, 꾸러미          |
|              | ② 불규칙 배열 : 꼬치            |
| 라. 인성 범주     | ① 인성 분류사 : 명, 분, 구       |
|              | ② 비인성 분류사 : 필, 마리        |
| 마. 수량 범주     | ① 중립 분류사 : 개             |
|              | ② 수량 분류사 - 낱 분류사 : 병, 바디 |
|              | 무리 분류사 : 다발, 접           |

우선 (7가)의 척도 범주 단위사가 있다. 이것은 절대척도 단위사와 상대척도 단위사 2가지 하위 부류로 재분류하였다. 전자는 절대적인 수량을 나타내고, 곧 지시 대상을 표준화된 수량으로 단위화하며 후자는 지시 대상을 일시적 수량으로 단위화한다. 예를 들어 ‘근’은 600g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표준화된 수량 단위사이고 ‘줌’과 같은 명사는 일정하지 않은 분량을 나타낸다.

(7나)처럼 모양 속성에 따라 분류된 단위사가 있다. 여기도 ‘유형’과 ‘무형’ 2가지 하위 부류가 있다. ‘유형’에 속하는 단위사를 보면 다시 3가지 종류에 따라 삼분하였는데 즉, ‘구형’, ‘장방형’, ‘편형’으로 나누었다. 유형 명사들은 해석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으나 무형 명사들은 주로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명사들이므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히, ‘시간’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모양 단위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7다)의 배열 단위사도 2가지 하위 부류로 분류하였다. ‘규칙 배열’은 지시 대상을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는 명사들을 가리키고 ‘불규칙 배열’은 지시 대상을 배열할 때 규칙성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규칙 배열에 정리된 단위사들은 다시 지시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묶느냐에 따라 ‘엮음’과 ‘포갠’ 단위사로 나뉜다.

‘쇄’는 사전에 따라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이며 한 쇠는 북어 스무 마리를 이르는 단위이므로 규칙적인 배열이다. 또는 ‘꾸러미’는 사전에 따르면 2가지 단위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꾸리어 싼 물건을 세는 단위이고 또 하나는 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 부류에 들어가는 꾸러미의 뜻은 두 번째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의미적 분류에도 이 차이를 고려해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7라)의 인성 범주인데 이것은 ‘인성 단위사’와 ‘비인성 단위사’로 갈라진다. 이 부류의 명사들은 [인간성]과 [비인간성]에 해당하는 명사들인데 본고에서 [비인간성] 부류에 식물 명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유동준(1983)의 처리 방식과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량 범주’이다. (7마)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립 단위사 ‘개(個)’가 이 범주에 해당된다. 수량 단위사에 속하는 명사들은 개체나 집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날 단위사’와 ‘무리 단위사’로 나뉜다.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본고의 기준에 따르면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용기류’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문장 구성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준(準)의준 명사로 처리될 수 있다.

채완(1990)에서는 기능, 행위와 사건, 모양, 인체에 따라 명사들을 체계화하였다.

- (8) 가. 기능 : ①의생활 ②식생활 ③주생활 ④문자생활 ⑤기계 · 기구류  
나. 사건 · 행위  
다. 모양  
라. 인체

(8가)의 의생활에는 ‘피륙’, ‘특정한 옷을 지을 수 있는 분량’, ‘완성된 옷’, ‘모자’, 따위와 같은 하위 부류가 있다. 식생활에는 ‘곡류’, ‘채소’, ‘과실’, 따위가 있다. 주생활에 제시된 단위사들은 비교적 적다. 그 다음에 문자생활의 하위 부류 중 ‘인쇄물’, ‘지필묵’이 있고 기계와 기구류 명사들은 다른 하위 부류로 재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두 가지 부류에 속하는 단위사들은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 사건과 행위 단위사 중에서 ‘번(番)’과 ‘회(回)’와 같은 중립적인 단위사가 있고 노래를 세는 ‘곡(曲)’과 같은 단위사도 있다. (8다) 모양 부류 단위사들에는 [식물성] 속성을 띠는 단위사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양별로 재분류된 체계가 없다. 앞에서 보았

듯이 유동준(1983)에서는 ‘구형’, ‘장방형’, ‘편형’과 같은 3가지 부류로 나뉘었는데 채완(1990)에서는 이런 세밀한 분류가 없다. 본고에서는 채완(1990)의 논의를 참조하되, [사물성]을 가지는 명사들은 미시적 하위 부류로도 나누겠다. 마지막으로 (8라)의 인체 단위사 부류에 인간이 하는 동작 동사를 명사화하여 그 동작의 셈을 나타낸다.

Oh(1994)에는 처음으로 단위사들은 지시 대상을 셀 때 ‘집합’, ‘개체’, ‘부분’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단위사들은 표시하는 분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9) 가. 집합 수 분류사
- 나. 부분 수 분류사
- 다. 개체 수 분류사 : ①유정성 ②식물 ③추상 명사 ④비신체적 개념 ⑤처소 ⑥약 ⑦기계와 탈것 ⑧모양 ⑨용기 ⑩의고적 또는 제한된 용법 ⑪기타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다) ‘개체 수 단위사’만 다시 여러 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9다)에 나타나는 하위 부류들은 ‘집합’과 ‘부분’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단위사들의 의미적 성질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고 ‘집합’, ‘개체’, ‘부분’과 같은 삼분화(三分化)는 이차적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우형식(1997)에서는 도량과 종류 단위사로 구분하였는데, 도량 단위사들은 다시 시간과 공간 단위사, 종류 단위사들은 사태 단위사와 사물 단위사로 구분하였다.

- (10) 가. 도량 분류사 : ①시간 ②공간
- 나. 종류 분류사 : ①사태 ②사물

‘시간’ 명사 중에서 ‘년’, ‘달’, ‘일’, ‘시간’, ‘분’과 같은 따위의 명사들이 처리되어 있고 ‘공간’ 명사들을 다시 재분류하였다. 여기는 ‘길이’, ‘넓이’, ‘무게’, ‘부피’ 하위 부류가 있는데 ‘부피’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본고의 ‘용기류’로 처리한 명사들이 들어가 있다. (10나)의 종류 단위사들은 사태와 사물 단위사로 분열되었는데 ‘사물’의 부류

가 제일 많은 하위 부류가 있다. 이것을 ‘집합’, ‘개체’, ‘부분’으로 나뉘고 ‘집합’은 [+정수]와 [-정수]로 다시 나누고 [+정수] 명사들을 다시 [+쌍]과 [-쌍]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개체’를 [+생물]과 [-생물]로 나누고 전자를 [+유정성]과 [-유정성]으로 나누고 [+유정성] 명사들을 [+인간성]과 [-인간성]으로 재분류하였다. 우형식(2006)에서는 또 다른 체계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위사들을 내적과 외적 성질에 따라 나누었다. 내적으로는 생물과 무생물, 유정물과 무정물, 인간과 비인간으로 나누었고, 외적으로는 모양이나 크기 따위와 같은 비슷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진려봉(2012)는 단위사를 수적 의미를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서 ‘집합’, ‘개체’, ‘부분’, ‘종류’, ‘용기류’로 나눈다.

- (11) 가. 개체 : ①유정성 ②무정성
- 나. 집합 : ①정수 ②비정수
- 다. 부분 : 무정성
- 라. 종류
- 마. 용기류

(11가)의 개체 단위사들은 [유정성]과 [무정성]으로 나누는데 [유정성] 명사들은 다시 ‘명’, ‘사람’과 같은 [인간성] 명사와 ‘마리’와 같은 [동물성] 명사로 구분한다. 그리고 [무정성] 명사들은 [식물성], [사물성], [사건성]으로 삼분하는데 [사물성]을 다시 ‘모양’과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1나)의 집합 명사들은 우형식(2006)과 비슷하게 [정수]와 [비정수] 단위사로 나누고 전자는 [+쌍]과 [-쌍] 속성에 따라 다시 논의하고 후자는 [유정성]과 [무정성] 단위사로 구분하였다. ‘부분’ 단위사에 속하는 명사들은 [무정성] 속성을 띠는 명사만 포함시켰는데 이 분류 방식은 본고와 좀 다르다. 본고의 생각은 ‘부분’ 안에 [유정성]과 [비인간성] 성격을 가지는 명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와 같은 거시적 부류가 본고에도 일차적 분류 기준으로 삼았고 (11나)의 ‘용기류’ 단위사들은 이 논문에서 [무정성] 명사 부류에 포함시켰다.

### 3.2. 의미적 부류

단위사들을 체계화시키려면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적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체계화를 시켰다. 하나는 유정성 여부에 따른 부류화이고 또 하나는 다량, 배열에 따른 부류화이다. Allan(1977)에 따라 ‘다량’의 의미를 가지는 단위사들은 작은 범주가 아니며 다른 범주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Oh(1994)에서도 이것은 기준으로 하여 수 단위사들을 개체, 집합, 부분으로 삼분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반하여 Aikhenvald(2000)는 유정성과 부정성 속성에 집중해서 수 단위사들을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연구 대상인 단위 명사들의 속성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위 명사들은 어떤 대상을 셀 때 사용되는 요소인데 이 요소가 세어진 명사의 성질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즉, 세어진 명사와 단위 명사가 의미적 속성을 공유하므로 배열이나 다량의 기준보다 명사를 체계화할 때 사용되는 유정성과 부정성과 같은 기준이 더 적절하다는 것으로 본다. Aikhenvald(2000)에서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단위 명사들을 정리하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면 더 쉽게 단위사와 공기 명사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Aikhenvald(2000 : 272-293)에 단위사 체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우선 이런 명사들은 세 가지 큰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곧 유정성<sup>6)</sup>(animacy)과 외적 특성(physical properties)과 기능(function)에 따른 분류이다. 유정성을 띠는 명사들은 다시 인간성 여부나 성(sex)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성 체계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유정성 여부에 따라 구별하였다. 한편 부정성 명사들은 일반적으로 외적 특성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즉, 확장성(extendedness)<sup>7)</sup>, 내적 특성(interiority), 크기(size),

6) Aikhenvald(2000)을 참고하면 유정성에 대한 논의를 Trask(1993 : 16)에서 찾을 수 있다. Trask(1993)에 따라 유정성의 속성을 가지는 명사들은 의식 혹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나 고등동물(higher animal)에 해당한다.

7) 확장성 안에 두 가지 하위 부류가 있다. 하나는 모양(dimensionality)이고 또 하나는 방향(direction)이다. 모양에 속하는 명사들은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에 따라 처리된다. 그리고 방향은 세로와 가로 방향을 차지하는 사물들이 속한다.

농도(consistency), 상태(constitution or state), 재료(material), 내재적 성질(inherent nature or time-stable properties), 기능(function), 단위(arrangement), 분량(quanta) 등이 있다.<sup>8)</sup> 다음으로 Aikhenvald(2000)는 [구체성] 명사와 [추상성] 명사로 체계화 시킬 수 있다는 이론도 제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어의 단위사들은 집합-개체-부분과 같은 삼분화에 따라 연구되어 왔거나 각 단위사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중심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자립 명사들은 단위사뿐만 아니라 일반 명사의 쓰임새도 있으므로 아예 명사들을 의미적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체계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sup>9)</sup>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단위사 자체의 속성으로서 의미적으로 어느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 왔다. 본고에서는 단위사가 어떤 명사와 사용되는지를 보고 분류를 하려고 한다. 즉, 단위사들을 공기 명사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쌍(雙)’과 ‘열(列)’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속성을 가지는 명사와 잘 어울려 쓰이므로 ‘인간’ 부류에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Aikhenvald(2000)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기 명사와 단위사의 관계를 파악한 후 단위사들이 잘 어울리는 명사의 부류를 일차적으로 [구체성], [추상성], [종류]의 총 3가지의 거시적 부류로 구분할 것이다. 이 세 개의 부류들은 귀납적으로 분석해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위 명사들 다 하위 부류에 정리할 것이다. 단위 명사들의 범위가 굉장히 크므로 기존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필연성에 따라 사실적 지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논의를 하겠다. 일단 [구체성] 명사 안에 [유정성], [무정

8) 확장성(extendedness), 내적 특성(interioricity), 크기(size), 농도(consistency), 상태(constitution or state), 재료(material), 내재적 성질(inherent nature or time-stable properties), 기능(function)은 유지되는 상태의 사물에 해당하나 단위(arrangement), 분량(quanta)은 일시적인 상태가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

9) Aikhenvald(2000: 275)에 의하면 공기 명사와의 단위사의 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을 수 있다. 하나는 명사의 정해진 기능이나 일시적인 기능에 따라 단위사를 고를 수 있는 논의이고 또 하나는 단위사가 공기 명사와 똑같은 의미적 부류에 속하되 공기 명사와 단위사가 상위-하위 관계에 있어야 하는 논의이다. 즉, 명사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인간성을 가지는 명사이므로 ‘학생’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하는 ‘사람’인 단위사와 잘 어울린다. 또는 공기 명사와 단위사는 ‘범칭적-명세적’(generic-specific) 관계에 있어야 한다.

성]의 속성을 가지는 명사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일차적인 기준은 생명의 성격을 가지는 명사와 공기할 수 있는 단위 명사인지의 여부이다. ‘사람’, ‘그룹’, ‘무리’와 같은 명사는 생명을 가지는 명사와 잘 어울리므로 이 명사와 같은 성격을 가진 명사들을 하나의 부류에 포함시키고 이 부류를 [유정성] 부류로 칭하겠다. [유정성] 부류에서 제외된 단위 명사들은 [무정성]이라는 부류로 정리하겠다. [유정성]과 [무정성] 부류 안에 속하는 명사들은 아직 각양각색의 속성을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으므로 다시 여러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누었다. [유정성] 단위 명사들은 [인간성]을 가지는 명사와 공기하느냐에 따라 [인간류]와 [비인간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편 [무정성] 단위 명사들도 이차적인 분류 기준으로 ‘생명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어서, [무정성] 단위 명사들 중에 ‘뿌리’, ‘송이’와 같이 생명성을 띠는 것도 있고 ‘집’, ‘병’, ‘용기’ 등처럼 생명성을 보이지 않는 다른 명사도 있다. 생명을 가지는 [무정성] 단위 명사들은 [식물류]로 칭하고 그 나머지 속성에 따라 [장소류]와 [사물류]로 나누었다. 그런데 [사물류]의 단위 명사들을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종의 명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바로 ‘병’, ‘잔’과 같은 [용기류] 단위 명사들이다. [용기류] 단위 명사들은 일반 [사물류] 단위 명사들과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아예 따로 서술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본다.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용기류]의 명사들은 아주 특별한 명사들이다. 이 명사들은 문맥에 따라 지시물 자체를 가리킬 수 있을 뿐더러 용기 안에 속한 액체나 고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적 도량 개체로 보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삼고자하는 것은 범위이다. 범위에 따라 ‘집합’, ‘개체’, ‘부분’으로 세분하고 [사물류]와 [용기류]의 경우에는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와 [기정수 도량(既定數度量)류]와 같은 범위의 부류도 도입할 것이다.

[추상성] 명사들은 인간의 고유적인 문화 특성에 따라 생겨난 명사들이므로 [구체성] 명사들과 같은 층위를 갖는 별도의 부류로 본다. [추상성]에 속하는 명사들은 추상 세계와 관련된 명사들이므로 분류하기가 제일 어렵다. 우선 추상 명사들을 [관계성], [사태성], [기타]로 나누었다. [관계성] 명사의 하위 부류로는 [등급/차원류] 명사와 [기정수 도량(既定數 度量)류],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 등이 있다.

최경봉(1998)에서도 추상 명사들을 분류할 때 [관계성]과 같은 하위 부류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상대적으로 보아야 할 명사들이 들어가 있었다.<sup>10)</sup> 단위 명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 최대한 세밀하게 명사의 하위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추상성] 명사들을 일차적으로 [관계성]과 [사태성] 명사로 나누기로 한다. [사태성] 부류에는 [행동류], [사건의 횡수류]와 같은 하위 부류가 있다. [기타] 명사의 하위 부류에도 [추상물류] 부류가 있지만 여기에는 ‘개체’와 ‘부분’만 있고 ‘집합’의 부류가 없다. 그 외에 [기타]에 속하는 다른 하위 부류로는 [공간류], [시간류]가 있다. [추상성] 단위 명사들을 분류할 때 하위 부류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으나 [관계성], [사태성], [기타]와 같은 중간 단계의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단위사와의 공기 명사와 결합시키는 것이 더 논리적일 것이다.

한편 [종류] 부류에 들어가 있는 수 단위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거시적 부류(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를 넘어서 모든 명사와 공기하는 명사들이므로 이 부류를 따로 처리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종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몇 개 밖에 안 되지만 공기 명사와의 제약이 많이 안 보이는 명사이므로 따로 처리하였다.

### 3.2.1. 구체성

#### 3.2.1.1. 유정성

[유정성] 수 단위사들은 제일 일반적인 부류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인간 명사와 공기하는지, 동물 명사와 공기하는지, 아니면 식물 명사와 공기하는지에 따라서 삼분하였다.

##### 3.2.1.1.1. 인간류

인간과 연관성이 있는 명사들은 다음과 같다.

---

10) 최경봉(1998)과 김인균(2002)에서는 추상 명사에 대해 각기 다른 구분을 제시하였다. 최경봉(1998)에서는 [사태]와 [관계] 명사로 구분하였으며 김인균(2002)에서는 [사태]와 [추상] 명사로 나누었다. 본고에서 이 두 가지 연구를 같이 다루고 추상 명사들을 [관계성], [사태성], [기타]로 나눈다. [관계성]과 [사태성] 단위 명사들은 최경봉(1998)의 [사태]와 [관계] 명사에 해당하며 [기타] 단위 명사들은 김인균(2002)의 [추상] 명사에 해당한다.



(12) 가. 사람, 인02(人)

나. 가구03(家口), 군단01(軍團), 그룹01(group), 대11(隊), 떼01, 무리01, 부부02(夫婦), 부족05(部族), 분대03(分隊), 사단07(師團), 식구01(食口), 쌍02(雙), 열04(列), 조14(組), 중대03(中隊), 집단(集團), 처02(處), 커플(couple), 팀(team), 패03(牌), 편04(便), 품02

(12가)의 명사는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이고 (12나)의 명사는 인간들의 모임, 즉 ‘집합’을 나타낸다. Aikhenvald(2000)의 논의에 따르면 인간과 관련된 수 단위사들은 주로 한정된 범주인데, 한국어는 이러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존 명사 ‘분’, ‘명’, ‘놈’ 등을 포함하여 한국어에서 ‘인간’을 나타내는 수 단위사는 꽤 많은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자립 단위사 중에 ‘사람’과 ‘인’이 있는데 이 두 명사의 차이는 선행하는 수량에 있다. ‘사람’은 고유 수사와 결합하고 ‘인’은 한자 수사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12나)에서 나타나는 ‘집합’ 명사들을 관찰해 보면 그 집합에 포함된 사람 수에 따라 다시 한 번 나눌 수 있다. [+쌍] 부류와 [-쌍] 부류로 나누겠다. [+쌍]이란 사람 두 명의 집합이고 [-쌍]은 사람 두 명 이상의 집합이다. [+쌍] 안에 이를테면 ‘부부’, ‘커플’, ‘쌍’이 있고 [-쌍] 안에 ‘팀’, ‘가구’, ‘식구’가 있다. 또한 집합 명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명사들은 군대와 관련된 명사인 ‘군대’, ‘분대’ 등은 그의 예이다.

[인간] 명사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전형적인 단위사들은 수사와 결합해야 단위사로 인정할 수 있으나 ‘사람류’ 명사들은 다 특별한 제한 없이 수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학생’과 같은 명사들은 수사와 직접 결합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

(13) 우리 방에 두 사람(남자, 여자, 학생)이 있다.

위에서 보듯이 ‘사람’, ‘남자’, ‘여자’, ‘학생’ 다 자연스럽게 단위사의 구성을 취한다. 그러나 이 4개의 명사 중에서는 ‘사람’만이 단위사로 인정된다. 蔡琬(1983)에서

이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인간과 가까운 개념과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물건들은 다 이런 현상을 겪는다고 하였다. Aikhenvald(2000)에서도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역시 ‘인간’ 명사들은 쉽게 단위사화를 한다고 하였다. 그럼 왜 위에서 언급한 명사 중에서 ‘사람’만 단위사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은 ‘남자’, ‘여자’, ‘학생’은 ‘사람’의 하위 부류로 처리할 수 있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즉, ‘사람’이란 개념은 ‘남자’, ‘여자’, ‘학생’ 따위보다 더 기본적인 개념이고 ‘사람’이 단위사로 사용할 수 있으니 ‘사람’의 하위 부류로 볼 수 있는 ‘남자’, ‘여자’, ‘학생’과 같은 명사들도 쉽게 수 관형사와 잘 성립한다.

### 3.2.1.1.2. 비인간류

[비인간] 부류에 [동물] 명사들을 포함시켰다. 이 부류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다시 ‘개체’와 ‘집합’으로 나눌 수 있다. [동물] 명사에 해당하는 수 단위사가 다음과 같다.

- (15) 가. X  
 나. 강16(綱), 계05(界), 과04[3](科), 때01, 무리01, 목09(目), 문06(門), 속05(屬), 쌍02(雙), 열04(列)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5가)에 ‘개체’ 부류에 해당하는 수 단위사가 들어 가야 하지만 자립 수 단위사들 중에는 그런 명사가 없다. 유일하게 [동물]의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는 다 의존 명사이고 ‘마리’, ‘두(頭)’ 등이다. (15나)에는 [동물] 명사의 ‘집합’을 나타내는 단위사가 있다. 이 단위사들의 일부가 [인간] 명사의 ‘집합’을 나타내는 단위사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류의 독특한 단위사 중에서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강’, ‘계’, ‘문’과 같은 명사들이 있다. 최형용(2017)에서는 ‘계’와 ‘목’을 단위사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본고에는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명 체제(class)의 명칭들을 이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를 테면 ‘계’ 같은 단위사가 ‘생물들을 6계 체계로 나뉜다.’와 같은 구조를 허용하므로 단위사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dams and conklin(1973)에 의하면 단위사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계를 분류할 때 서식지(공중, 육지, 수중)와 크기(소, 중, 대)와 등급과 기능(교통수단, 농업 동물, 등)에 따라 분류한다. 이것은 한국어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물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의존 명사 ‘마리’만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적 부가적인 의미가 없다.

### 3.2.2.1. 부정성

무정성 부류에는 ‘식물류’, ‘장소류’, ‘용기류’와 ‘사물’의 4가지 하위 부류가 있다. 여기에는 의식과 의지가 없는 현실 세계의 온 객관적 대상물을 가리키는 명사들이 속한다.

#### 3.2.2.1.1. 식물류

다음은 [식물성] 명사 부류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 (16) 가. 뿌리, 잎01, 축01, 통02, 편03(片), 포03(包), 포기01  
나. 송아리, 송이01, 송어리, 쌍02(雙), 열04(列), 떨기01

(16가) 개체에 해당하는 단위사이고 (16나) 집합에 해당한다. ‘개체’를 표현하는 단위사 중에서 흥미로운 쓰임새가 보이는 단위사로는 ‘뿌리’가 있다. ‘뿌리’는 모든 식물을 셀 수 있는 단위사가 아니다. ‘뿌리’는 진려봉(2012 : 69)에 따라 식용성을 나타내지 않는 명사이므로 ‘뿌리’와 공기하는 명사들에 제약이 있다.

- (17) 가. {산삼, 더덕, 대파} 한 뿌리  
나. \*{나무, 풀, 꽃} 한 뿌리  
다. \*{마늘, 고구마, 감자} 한 뿌리.

진려봉(2012)의 논의에 따라 (17가)와 같은 경우에는 ‘뿌리’와 공기하는 명사들은 다 식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뿌리’는 (17나)처럼 식

용성을 가지지 않는 ‘나무’, ‘풀’, ‘꽃’과 공기하지 않는다. (17다)에서 나타나는 명사들이 다 식용성을 가지는 명사인데도 유일하게 이 명사들만 제약이 보이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진려봉(2012)에 따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우형식(2001 :220)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우형식(2001)은 ‘뿌리’가 모양적 속성에도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는 ‘편’은 [식물성] 명사에 포함시켰는데 이 명사는 특이한 명사로 본다. ‘편’은 무게에 의한 인삼을 세는 단위다. 즉, ‘편’의 외연적 의미는 어떤 특정한 식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식물을 셀 때 그 식물을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집합’ 명사 중 ‘송아리’, ‘송이’, ‘송어리’라는 명사들은 쓰임새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세 개 다 고유 수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세 개 다 ‘꽃송이’, ‘꽃송아리’, ‘꽃송어리’와 같은 합성어를 만들 수 있는 명사이므로 이 세 개의 명사는 동의어로 처리한다.

### 3.2.2.1.2. 장소류

‘장소’를 나타내는 수 단위사는 다음과 같다.

- (18) 개표구02(開票區), 고개02[1], 곳, 교구06(敎區), 구15(區), 구역04(區域), 굽이, 국가01(國家), 나라01, 선거구(選舉區), 조사구(調查區), 지역구(地域區), 집01[2], 차선03(車線), 층02(層) 화소03(話素)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수 단위사는 ‘구(區)’와 결합하는 명사들이 대부분이다. 이 명사들은 채완(1983)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인간의 사생활과 아주 가까운 개념으로서 ‘집’과 ‘나라’처럼 단위사화를 겪은 것으로 본다.

‘개표구’와 같은 명사가 단위사화를 겪은 반면에, ‘개표구’보다 우리 일상의 측면에서 더 가까운 ‘학교’가 똑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말뭉치를 보면 ‘두 학교’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어째서 ‘학교’는 왜 단위사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우선 ‘학교’와 같은 명사는 결합하는 수사에 있어 제한적이다.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학교’와 같은 사용이 보이는데 ‘두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시대상인 ‘두 학교’가 화자와 청자에게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다. 그래서 ‘두 학교’ 같은 표현이 가능하나 이것은 ‘학교’를 단위사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예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몇 학교’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므로 최정혜(1999)가 제시한 ‘몇 + 단위사’에 대한 제약과 동일하다. 또는 사전에 따라 ‘학교’는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는 ‘기관’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기관’도 수 단위사가 아니므로 ‘기관’의 모든 하위 개념들은 단위사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 3.2.2.1.3. 용기류

이 부류에는 상대적 양을 나타내는 명사와 절대적 양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속한다. ‘용기류’의 명사들은 단위사 언어든 아니든 모든 언어에서 상관없이 찾을 수 있는 명사 부류이다. 이것은 불가산 명사의 속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위사가 있든 없든 모든 언어에서 액체를 나타내는 명사는 헤아릴 수 없거나와 찰처럼 아주 작고 많은 낱알로 이뤄진 개체도 셀 수 없는 것이다. 용기류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 (19) 가.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 가래03, 가마04, 가마니, 갑03(匣) 가자(架▽子), 공기06(空器), 광주리01, 구기01, 국자01, 구럭, 켜03(櫃), 그릇01, 다래끼01, 달구지, 대야01, 대접01, 독01, 동이01, 되들이, 뒹박, 드럼(drum), 목기04(木器), 목판01(木板), 바가지01, 바구니, 박스(box), 병05(瓶), 보시기01, 봉06, 봉지06(封紙), 사발01(沙鉢), 삼태기, 삽01, 상03(床), 상자08(箱子), 숟가락, 숟갈, 스푼(spoon), 식기01(食器), 씹지, 양채기(洋

재기), 입, 자루01, 잔02(盞), 접시, 젓가락, 종  
구라기, 종발02(鍾鉢), 종지01, 주먹, 줍01, 지  
계01, 차06(車), 초롱01, 캔(can), 컵(cup), 탕  
기01(湯器), 통09(桶), 트럭(truck), 포04(包),  
포대03(布袋)

나. 기정수 도량(既定數度量)류: 판06[4](板)<sup>11)</sup>

위의 명사들은 다 용기류 부류에 속하는데 이론적으로 모든 용기와 비슷한 명사들은 이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목록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 위의 명사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합성어가 많아서 위의 목록은 더욱 길어질 수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명사들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예컨대, ‘물잔’, ‘술잔’ 같은 명사들이다. 진려봉(2012 : 93)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목록을 보자.<sup>12)</sup>

- (20) 가. 물잔, 술잔, 소주잔, 맥주잔  
나. 밥그릇, 술그릇, 반찬그릇  
다. 술병, 물병, 약병, 젓병  
라. 담배갑, 분필갑, 성냥갑  
마. 과일바구니, 꽃바구니, 나물바구니, 빨래바구니

(2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N+잔’, ‘N+그릇’, ‘N+병’, ‘N+갑’, ‘N+바구니’와 같은 식으로 많은 합성 명사를 만들 수 있다. 위의 명사들은 본고의 단위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0)을 관찰하면 이 명사들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용기마다 공기할 수 있는 명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용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액체나 고체에 따른 제약이 보인다. 예를 들어 ‘병’은 액체를 나타내는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며 ‘갑’은 가늘고 긴 고체 명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이 원리는 합성 명사를 만

11)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달걀을 묶어 세는 단위. 한 판은 달걀 삼십 개를 이룬다.

12) 진려봉(2012 : 93)에서 제시된 목록을 조금 바꾸었다. 원본에서 ‘커피잔’과 ‘탕그릇’과 ‘담배갑’도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두 개의 단어들을 제외시켰고 마지막 단어를 고쳤다. ‘커피잔’은 합성어가 아니어서 ‘커피잔’처럼 써야 하므로 위에서 제시된 다른 명사들과 같은 부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탕그릇’은 북한어라서 본고에서 북한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담배갑’은 사잇시옷이 들어가야 하므로 ‘담배갑’으로 바꾸었다.

들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9)의 명사들이 수 단위사처럼 사용될 때도 적용되는 원리이다. 즉, ‘\*밥잔’ 같은 명사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잔’을 단위사로 사용할 때도 ‘\*밥 한 잔’과 같은 표현도 안 된다. 이 경향은 언어적인 규칙으로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만들어진 명사들이다.

위의 (19가)는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로 사용된 명사들이고 (19나)는 기정수 도량(既定數 度量)류로 사용된 명사이다.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란 한정되지 않은 분량을 말하며 기정수 도량(既定數 度量)류는 한정된 분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을 ‘밀리미터(ml)’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헤아리지 않은 이상 물의 분량을 알 수 없고 잔에 담아도 정확한 분량은 알 수 없다. ‘잔’에 담을 수 있는 물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만약에 ‘잔’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세 잔’에 들어 있는 물의 분량은 항상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19나)의 ‘판’은 그렇지 않다. 사전에 따르면 ‘판’은 ‘달걀을 묶어 세는 단위’로서 ‘한 판은 달걀 삼십 개’를 이르므로 한 판에 들어갈 수 있는 달걀은 일정한 분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은 기정수 도량(既定數 度量)류 명사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하위 부류를 더 세분해 낼 수 있다. ‘전형적 용기’, ‘비전형적 용기’, ‘인간적 용기’ 세 가지이다. 다음에 각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 (21) 가. 전형적 용기: 공기06(空器), 광주리01, 국자01, 그릇01, 대야01, 바가지01, 바구니, 박스(box), 병05(瓶), 봉지06(封紙), 상자08(箱子), 스푼(spoon), 잔02(盞), 포대03(布袋) ...  
나. 비전형적 용기: 되들이, 봉06, 숟갈, 포04(包), 입, 주먹, 줌01

#### (A) 전형적 용기류

전형적 용기들은 내용물을 포함하는 도구에서 기원한 명사들이다. 즉, ‘공기’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직접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에 담길 수 있는 어떤 셀 수 없는 내용물을 셀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밥 두 공기’에서처럼 ‘밥’은

‘공기’를 직접 단위사로 사용하는 명사이다. 그리고 ‘대야’와 같은 명사는 사전에 따르면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이므로 물만 담을 수 있는 도구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기하는 명사 없이 바로 ‘두 대야’와 같이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물 두 대야’를 함의한다. 이 명사들은 사전에서 찾으면 첫 번째 뜻풀이로서 직접 도구가 제시되어 있고 두 번째 뜻풀이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을 세는 단위로서 처리되어 있다.

### (B) 비전형적 용기류

비전형적 용기들은 도구를 직접 말하지 않는 명사들이다. ‘되들이’는 도구가 아니고 ‘곡식이나 물, 술 따위를 되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이다. 마찬가지로 ‘봉’은 ‘봉지에 담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가리킨다. 이 명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도구가 아니고 도구에 담을 수 있는 분량을 가리키는 특징이다. 이 명사들은 반복소처럼 사용할 수 없는 명사들인데 예를 들면 ‘봉’과 같은 경우에는 “\*봉 두 봉”을 말할 수 없고 전형적 용기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봉’에 대응할 수 있는 ‘봉지’를 예로 삼으면 ‘봉지 두 봉지’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류에서 조금 독특한 단위사들도 있다. 이 단위사들은 ‘입’, ‘주먹’, ‘줌’인데 인간의 몸과 연관성이 있는 명사들이다. ‘입’, ‘주먹’, ‘줌’은 사람의 몸을 비유적으로 용기로 사용하는 명사들이다. ‘입’이나 ‘주먹’은 [사물성]을 가지는 명사가 아니지만 단위사로 사용할 때 [사물성]을 가지는 명사와만 공기하므로 이 부류에 포함시켰다. ‘밥 한 입’처럼 ‘입’에 들어갈 내용물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용기류로 상정할 수 있다. 이 명사들은 주로 입과 손과 관련된 명사들인데 입에 해당하는 명사는 ‘입’ 자체가 있고 의존 명사인 ‘모금’도 있다. 그리고 손에 해당하는 명사는 ‘주먹’과 ‘줌’이 있다.

#### 3.2.2.1.4. 사물류

‘사물’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총 4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하였다. 다음을 보자.



- (22) 가. 집합: 마름01, 묶음, 모숨, 세트[1](set), 쌍02(雙), 열04(列), 이랑01, 자  
래01, 죽02, 줄01, 짝01, 편04(便)
- 나. 개체: 가리04, 가락01, 가래02, 개비01, 권질(卷帙), 꼬치01, 꼬치02, 꾸리  
01, 꾸러미[2], 꿰미, 끼01, 끼니, 낱, 다랑이, 다발01, 단01, 더미  
01, 덩어리, 덩이, 돌기01, 두둑01, 두레01, 땀기01, 롤(roll), 마투  
리, 매끼01, 모03, 모태01, 무더기, 뭉치, 바리01, 방울01, 발01, 배  
미01, 보따리, 블록02(block), 뿌리, 자11(字), 자루02, 책01(冊), 칸  
01, 타래01, 토리01, 통구리, 틀, 표04(票), 환04(丸), 획02(劃)
- 다. 부분: 개안01(個眼), 계단04(階段), 겹01, 꺼풀, 낱, 단07[2][6](段), 도막  
01, 동강01, 등분02(等分), 면05(面), 부분01(部分), 사리01, 알갱이  
02, 어절(語節), 오라기, 오리01, 울01, 울새, 줄기01[3], 조각01, 쪽  
02, 코02, 토막01, 통03, 파트(part), 페이지(page), 폭04(幅), 호동  
03(號棟), 획지(劃地)
- 라.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 가리02, 감03, 꾸러미[3]

‘사물’ 명사들은 ‘집합’, ‘개체’, ‘부분’,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로 나눌 수 있다. 사물로서 집합을 구성할 수 있고 개체를 이루고 이 개체를 더 작은 사물로 나누면 부분을 이룬다. 또는 여기도 사물 명사가 단위사로 쓰일 때 일정한 분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 명사로 처리한다.

이와 같은 구분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집합’, ‘개체’, ‘부분’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의 분류는 집합 - 개체 - 부분의 스펙트럼에 따른 결과이다. 즉, ‘세트’는 여러 가지의 물건의 집합인데 세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하나하나씩 지시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그런데 ‘다발’은 ‘개체’ 부류에 포함시켰다. 기존 연구에서 ‘다발’은 ‘집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다발’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취한다. ‘다발’은 하나 이상의 꽃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다발은 단위사로 사용될 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세트’를 볼 때 그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물건들을 중요하고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다발’을 볼 때에는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다발’을 구성하는 꽃들은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에 대한 예를 든다면 ‘계단’이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 준다. ‘계단’은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의 낱의 단을 세는 단위’로 처리되어 있다. 즉 ‘계단’이란 본래 낱의 단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유 현상을 겪으며 계단의 범위가 넓어졌고 높은 곳을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설비인 층층대까지도 가리키게 되었다.

위의 명사들과 공기하는 명사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더 자세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으로 ‘모양’과 ‘기능’으로 재분류하겠다.<sup>13)</sup>.

### (A) 사물의 모양

Aikhenvald(2000)에서 단위사들을 사물의 모양 차원에서 체계화한 바가 있다. 모든 사물은 독특한 모양이 있기 마련이고 이 속성에 따라 단위사와 공기하는 명사들은 다르게 성립한다. 유형론적으로 보았을 때 사물의 모양은 단위사를 체계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진려봉(2012: 71)에 따르면 단위사를 유형적으로 고찰할 때 다른 언어에서는 내면성, 한계성, 재료 등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언급한 속성이 단위사에 의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sup>14)</sup> 본고에서는 자립 명사 단위사들을 사물들의 자질에 따라 1차원, 2차원, 3차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1차원은 길고 가는 사물들을 가리키고 2차원에는 얇고 평평한 사물들이 속하고 3차원에서 ‘집합’, ‘개체’, ‘부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1차원과 2차원보다 더 크고 공간의 비교적 넓은 규모를 취하는 사물들을 포함한다.

---

13) (22)의 모든 명사들은 ‘모양’과 ‘기능’ 부류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이 두 가지 부류의 범위가 넓어서 이 두 부류를 선택하였다.

14) 진려봉(2012)에 의하면 고리 모양인 사물(반지, 구멍, 등)과 내부가 비어 있는 사물(축구공 등)들의 내·외부의 속성이 다르다고 해서 단위사가 달리 선택되는 경우가 없다. 한계성에 있어도 단위사가 달리 선택되는 바가 없고 재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3)	차원	자질	단위사
집합	1차원	길고 가늠	모숨, 열04(列), 줄01
	2차원	얇고 평평함	X
	3차원	동그랗고 작음	자래01
		일반 도구·쿰	세트[1](set), 족02

(23)의 1차원 부류에 들어가 있는 명사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길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사들은 집합을 이룰 때 이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각 개체들의 속성의 차이를 보인다. ‘모숨’을 이루는 개체들은 다 길고 가는 사물(예: 담배)들인데 이 긴 개체들의 집합을 ‘모숨’을 이루며 ‘열’과 ‘줄’의 집합을 이루는 개체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집합을 이루어져 있을 때 긴 모양의 배열을 이루어서 ‘모숨’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모숨’은 길고 가는 사물들의 집합이며 ‘열’과 ‘줄’은 집합을 이루고 난 후 긴 모양의 배열을 이룬다. 2차원 부류에 해당하는 단위사는 없다. 3차원은 두 가지 하위 부류로 나뉜다. ‘동그랗고 작음’ 명사는 ‘자래’인데 이것은 생선의 알상자<sup>15)</sup>를 세는 단위로서 제약적인 사용을 보인다. 또는 ‘일반 도구·쿰’ 중 ‘세트’와 ‘족’이 있다. 이 두 명사의 공통점은 어떤 사물의 묶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세트’는 [사물성] 속성을 가지는 명사이면 별 제약 없이 사용되나 ‘족’은 옷이나 그릇 따위의 열 벌을 묶어 세는 단위이므로 정해진 몇 가지 명사와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개체’를 나타내는 명사들을 모양에 따라 보고자 한다. 여기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나누었는데 1차원과 2차원은 위의 ‘집합’과 똑같은 속성을 공유하며 3차원에는 ‘동그랗고 작음’과 같이 부가적인 ‘모난 큰 물건’, ‘뭉치가 된 물건’, ‘공간’ 하위 부류도 있다. [사물] 명사들을 이렇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5) ‘알상자(알箱子)’는 ‘알을 감싸고 있는 두껍고 질긴 껍질’로서 ‘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데 상어·가오리 따위의 알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24)	차원	자질	단위사
개체	1차원	길고 가늘	개비01, 낱, 롤(roll), 매끼01, 자루02, 획02(劃)
	2차원	얇고 평평함	표04(票)
	3차원	둥그랗고 작음	꾸리01, 방울01, 환04(丸)
		모난 큰 물건	가락01
		뭉치가 된 물건	꼬치02, 꾸러미[2], 껌미, 다발01, 단01, 더미01, 덩어리, 덩이, 돌기01, 모태01, 무더기, 뭉치, 보따리, 사리01, 타래01, 토리01, 통구리
		공간	칸01, 틈

1차원을 먼저 보겠다. ‘개비’는 사전에 가늘고 짧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처럼 처리되어 있지만 공기하는 명사를 살펴보면 ‘장작’, ‘담배’, ‘향’과 같은 명사들이 있다. 이 중에서 ‘부분’ 단위를 이르는 명사는 ‘장작’뿐이다. 그래서 ‘개비’는 쪼갠 토막을 세는 데에 사용되더라도 ‘담배’나 ‘향’과 같이 이미 개체를 이룬 사물을 세는 데에도 사용되므로 ‘부분’ 속성보다 ‘개체’ 속성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본다. ‘낱’은 어떤 사물 하나하나씩 셀 때 사용되는 단위사인데 이것은 비교적 큰 제약 없이 사용되고 모양 속성에만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본다.

한편 ‘롤’은 여러 가지 원통 모양의 사물을 세는 데에 사용된 단위임에도 사전에 단위사의 기능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전을 보면 ‘물건을 눌러 펴거나 윤을 내는 데 쓰는, 둥근 통 모양의 구조물’ 혹은 ‘등사나 인쇄를 할 때 잉크 칠을 하는 방망이. 굴대처럼 구르게 되어 있다.’와 같은 뜻풀이가 있을 뿐이지 단위사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본고의 관점에서는 ‘롤’도은 휴지나 필름 따위 명사를 셀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위사이므로 이것도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끼’는 곡식과 관련된 명사와 공기하고 자루는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셀 때 사용된다. ‘획’ 글씨나 그림에서 한 번 그은 줄을 세는 단위로서 위의 명사들과 모양에 있어 비슷하게 행동하는 단위사지만 차이점은 우리가 ‘획’과 공기하는 명사를 직접 만질 수 없으므로 도구성은 없는 단위사이다. 2차원 명사는 ‘표’이고 우리 다 아주 익숙한 작은 모양의 종이를 세는 단위이다.

마지막으로 3차원을 보겠다. 여기는 제일 두드러지는 단위사들은 ‘뭉치가 된 물건’과 ‘공간’이다. ‘뭉치가 된 물건’ 명사들은 어떤 개체들의 집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개체로 다루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여러 가지 사물의 묶음을 하나의 개체로 보므로 ‘개체’ 속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식용성] 공기 명사와 사용하는 ‘꼬치’와 [식물성] 공기 명사와 쓰이는 ‘다발’을 빼고 나머지 단위사들은 별 제약 없이 서로 교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간’ 단위사들은 어떤 사물에 따라 한계적인 공간을 가리키는데 ‘칸’은 넓은 규모의 공간을 이루는 명사와 사용하고 ‘틀’은 ‘칸’보다 작은 공간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부분’ 속성에 따라 정리된 단위사들을 보겠다.

(25)	차원	자질	단위사
부분	1차원	길고 가늘	오라기, 오리01, 올01, 올새, 통03
	2차원	얇고 평평함	겹01, 꺼풀, 면05(面), 페이지(page), 폭04(幅)
	3차원	둥그랗고 작음	개안01(個眼), 알갱이02, 코02
		짧고 작은 동강	도막01, 동강01, 토막01
		공간	단07[2], 호동03(號棟), 줄기01[3], 획지(劃地)

‘부분’ 속성을 띠는 단위사들도 역시 3개의 차원으로 나뉜다. 1차원의 단위사들은 ‘광목이나 옥양목, 당목 따위를 일정한 크기로 끊어 놓은 것을 세는 단위’인 ‘통’을 빼고는 다 실이나 섬유와 관련이 있는 단위사들이다. 2차원에 들어가는 단위사들은 다 ‘종이’ 명사와 공기할 수 있고 3차원의 단위사들은 다시 3가지 하위 부류로 나뉜다.

## (B) 사물의 기능

‘모양’ 속성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운 단위사들은 기능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집합’, ‘개체’, ‘부분’ 속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아 3가지 부류로 나누고 각 부류 안에 인간이 생활하면서 이 단위사들을 어떤 분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집합’ 부류에는 ‘농경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단위사만 있고 ‘개체’ 단위사들은 다시 ‘식용’, ‘농경·상업 생활’, ‘문화 생활’, ‘건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부분’ 속성의 단위사들은 ‘건축’, ‘차원·부분 셈’, ‘문화 생활’로 나누었다.

(26)	기능	단위사
집합	농경 생활	이랑01

(27)	기능	단위사
개체	식용	가리04, 꼬치01, 끼01, 끼니, 마투리, 모03,
	농 경 · 상	가래02, 다랑이, 두둑01, 두레01, 빼기01, 바리01, 밭01, 배미01,
	업 생활	뿌리
	문화생활	개비01, 자11(字), 책01(冊)
	건물	블록02(block)

(28)	기능	단위사
부분	건축	계단04(階段), 단07[6]
	차원 · 부	등분02(等分), 부분01(部分), 조각01, 쪽02, 파트(part)
	분 셈	
	문화생활	어절(語節)

### 3.2.2. 추상성

[추상성] 명사들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생활하면서 발전한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다. [추상성] 명사와 공기하는 단위사들은 ‘공간류’, ‘시간류’, ‘등급/차원류’, ‘(추상적)사물류’, ‘행동류’, ‘사건의 횟수류’, ‘기정수 도량(既定數度量)류’,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들이 있다. 위의 모든 부류들은 [관계성], [사태성], [기타] 총 3가지 부류 안에 포함시켰다.

#### 3.2.3.1. 관계성

##### 3.2.3.1.1. 등급류/차원류

이 부류에 들어가는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 (31) 급04(級), 등급(等級), 단07(段)[3][4], 단계02(段階), 차원02(次元), 켜, 학급(學級), 학기02(學期), 학년(學年), 호봉02(號俸)

이 단위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등급을 가리키는 ‘급’, ‘등급’, ‘단계’ 등은 공기하는 명

사들에 별 제약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학술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학급’, ‘학기’, ‘학년’도 있는데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단위사보다 사용되는 분야에 따라 구매를 받는다.

### 3.2.3.1.2, 기정수(既定數) 및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

이 부류에서 무게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사들이 속한다. 이 두 가지의 부류에 들어가는 단위사들을 [추상성]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보는 이유는 무게와 길이는 직접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셀 때 인간이 만든 단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 중 기정수 단위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수동이’가 이러한 예이다. ‘수동이’는 무게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무게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개념으로 본다. 사전에 의하면 한 수동이는 광석의 37.5kg에 해당한다.

한편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 부류에 있는 단위사는 두 개가 있는데 곧, ‘마신01(馬身)’과 ‘정신09(艇身)’이다. ‘마신’은 ‘경마에서, 말과 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각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단위이고 ‘정신’은 보트와 보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보트 경주를 할 때 쓴다. 여기의 부정수 도량과 [무정성/사물성] 부류에 포함시킨 부정수 도량의 차이는 지시 대상을 세는 데에 있다. 예컨대, [사물성]의 성격을 가지는 ‘가리’는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더미를 셀 때 사용되는 단위사이고 ‘한 가리’는 스무 단<sup>16)</sup>인데 ‘가리’를 세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하나씩 헤아릴 수 있다. 반면에 [추상성]을 띠는 ‘마신’과 같은 단위사는 길이를 가리키므로 그 길이로서 사물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앞의 단위사와 다르다.

### 3.2.3.2. 사대성

#### 3.2.3.2.1. 행동류

행동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

16) 짚, 땔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

(33) 걸음, 굽이, 돌림01, 땀02, 세이브(save), 스텝01(step), 짐01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걸음’, ‘굽이’ 등은 다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들이라는 것이다. ‘스텝’과 ‘세이브’는 외래어지만 앞의 명사들처럼 역시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 3.2.3.2.2. 사건의 횟수류

사건의 횟수를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하는 단위사들은 아래와 같다.

(34) 같이02, 게임(game), 고팡이01, 골08(goal), 때01, 라운드(round), 발01, 발자국, 사리02, 세트[4](set), 채02(刷), 순03(巡), 순배(巡杯), 직01, 차례02(次例), 차시01(次時), 통화04(通話)

위의 명사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세는 데에 사용되는 단위사이다. 이를테면 ‘같이’는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반복적인 습관을 센다. 또는 ‘고팡이’와 같은 명사는 이중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새끼나 줄 따위를 사리어 놓은 돌림을 세는 단위’이며 또 하나는 ‘두 지점 사이의 왕복 횟수를 세는 단위’이다. 이 부류의 단위사들은 다 [작동성]의 속성이 있으나 위의 3.2.3.5의 ‘행동’처럼 직접 동사에서 기원하는 명사들이 아니다.

#### 3.2.3.3. 기타 (공간/시간/추상물류)

##### 3.2.3.3.1. 공간류

공간을 나타내는 단위사들은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는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공기한다. 이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29) 각07, 경11(景), 과04[1](科), 시가05, 집01[6]



(29)의 단위사들 중에서 ‘각’과 ‘시가’는 음악 분야에 사용하는 단위사인데 이들은 음악에서의 박자나 다른 음악적인 단위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사들이다. ‘경’은 연극이나 그림 따위에서 장면을 세는 단위로서 [사물성] 명사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썸의 핵심 명사가 되는 ‘장면’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구애 받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본다. ‘과’는 어떤 분야를 세는 단위라 ‘분야’도 어떤 특정한 과목에 따라 인간이 직접 만든 추상적 개념이므로 ‘과’도 [추상성]을 가지는 단위사이다. 마지막으로 ‘집’은 사전에 따라 여러 가지 뜻풀이가 있는데 여섯 번째 뜻풀이는 ‘바둑판의 빈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 3.2.3.3.2. 시간류

‘시간’에 관한 명사들은 역시 전형적인 추상적 단위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 명사와 공기하는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30) 겁01(劫), 계절(季節), 고개02[3], 기10(紀), 기19(期), 대07(代), 배01, 성상06(星霜), 세02(世), 세기03(世紀), 시간04(時間), 잠01

이 중 제일 많이 보이는 단위사는 ‘대’, ‘기’, ‘세’와 같이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사들이다.<sup>17)</sup>

### 3.2.3.3.3. 추상물류

[추상물류] 부류에 속하는 단위사들은 [무정성]과 같이 ‘개체’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집합’ 부류가 없는 이유는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추상적 개념과 복수성이 잘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단위사들은 아래와 같다.

17) 최형용 외(2017)의 《한국어 분류사 연구》에는 ‘단위사’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여기는 ‘세(世)’만 나온다. 그런데 ‘세’가 있으면 ‘대(代)’와 ‘기(紀)’도 단위사 목록에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질 시대의 역사를 보면 시간을 나눌 때 자주 나타나는 명사이며 단위사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현생누대(顯生累代)의 시간 분류 안에 3대(代)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이다. 똑같이 신생대 안에 3기(紀)가 있다. 바로 ‘제4기’와 ‘신제3기’와 ‘고제3기’이다. 마찬가지로 제4기 안에 2세(世)가 있는데 이것은 ‘홀로세’와 ‘플레이스토세’이다. 따라서, ‘대(代)’와 ‘기(紀)’와 ‘세(世)’가 다 단위사의 성격을 보이므로 단위사 체계에 포함시켰다.

(32)

가. 개체: 가닥, 가락02, 곡02(曲), 곡조(曲調), 과목02(科目), 단별(段別), 자락01, 주22(株), 줄기01[5], 트랙02(track), 학점(學點)

나. 부분: 고개02[2], 과10(課), 관항(款項), 글자(글字), 구05(句), 단위01(單元), 문장02(文章), 박자(拍子), 반08(班), 부류02(部類), 분과03(分課), 분단02(分團), 분절음(分節音), 시절02(詩節), 신14(scene), 악단02(樂段), 악장04(樂章), 악절(樂節), 억양구(抑揚句), 연19(聯), 운율구(韻律句), 음보01(音步), 음소02(音素), 음절(音節), 자릿수(자릿數), 장20(章), 장면04(場面), 줄01[5], 챕터, 텍스트(text), 토막01, 파트(part), 판08[5](版), 프레임(frame), 항05(項), 항목(項目), 행01(行), 형태소(形態素)

이 중 제일 눈에 띄는 단위사들은 학술적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글자’, ‘구’, ‘문장’, ‘음소’, ‘음절’, ‘텍스트’ 따위는 사전에 따라 항상 자기보다 더 큰 개체의 하위 부류이므로 이 단위사들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단위사들은 세는 단위에는 아주 모호한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 3.2.3. 종류

Allan(1997: 306)에는 영어의 종류 수 단위사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영어의 종류 수 단위사에는 ‘kind of’와 ‘sort of’가 해당하는데 Allan(1997)은 이것을 집합 수 단위사의 하위 부류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종류’ 수 단위사를 집합 단위사와 성질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처리해 왔다. 진려봉(2012)에서도 ‘종류’ 단위사들은 ‘집합’ 단위사와 달리 내재적이나 외재적인 속성과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큰 상위 부류로 처리하였다. 본고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입장들을 인정하여 따로 보겠다. ‘종류’ 수 단위사들은 거의 제약 없이 모든 명사와 공기할 수 있으므로 ‘집합’ 단위사보다 더 큰 범위를 취한다.

종류 수 단위사들은 다음과 같다.

(35) 갈래, 종(種), 종류(種類), 품종(品種)

‘종’과 ‘종류’는 공기하는 명사와 결합할 때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사전에 따라 이 두 개의 단위사들은 사물 따위를 셀 때 사용하는 단위사들이다. 따라서 유정성 여부와 기능 및 모양 특징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맥락에서 잘 성립된다.

(36) 가. 몇 십 종의 {동물, 생물, 경기, 배추김치, 서적, 정기간행물 ...}  
나. 여러 종류의 {여자, 개, 꽃, 과일, 재료, 김치, 세균 ...}

(진려봉 2012 : 91)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심 명사의 속성과 상관없이 ‘종’과 ‘종류’가 잘 쓰인다.<sup>18)</sup> 이 특징 때문에 많은 제약을 보이는 ‘집합’ 명사와 같이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갈래’는 사전에 ‘갈라진 낱알을 세는 단위’처럼 나오는데 지시 대상의 모양에 있어 제약이 있다. ‘두 갈래 길’과 ‘머리가 두 갈래로 땡다’처럼 하나였던 것에서 갈라진 부분을 계산할 때 나타나고 긴 모양의 사물과 사용된다. 그러나 [추상성]을 갖는 명사와만 잘 성립된다. 예컨대, ‘세 갈래의 의견’에서 ‘의견’은 추상적인 속성을 가지는 명사인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품종’은 이 ‘종류’ 수 단위사 중에 제일 많은 제약을 보이는 명사이다. 이 명사는 모양에 얽매이지 않으나 [사물성]을 나타내는 명사와만 사용할 수 있다.

### 3.3. 명사의 단위사성

---

18) 진려봉(2012: 91)에서 ‘종’과 ‘종류’가 선행하는 명사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즉, ‘종’은 한자어 수사와 같이 쓰이고 ‘종류’는 ‘한 종류’, ‘두 종류’, ‘서너 종류’와 같이 고유어 수사와 같이 쓰인다. 말뭉치에서 고유어 관형어와 같이 쓰이는 ‘종’은 11회만 확인되었고, 한자어 수사와 공기하는 ‘종’은 471회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단위사화를 겪은 한국어의 명사를 보고자 한다. Aikhenvald(2000)에서는 단위 명사로 문법화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립 명사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읽을 수 있다. 다음 표를 보자.

**<표 5> 단위사로 쉽게 문법화 되는 명사**

가. 신체부분 (Body parts)	동사 단위사 수 단위사 처소 단위사
나. 호칭 및 신적인 존재 (Nouns referring to kinship, humans and higher animates)	명사 단위사 명사 분류 (Noun classes) 소유 단위사
다. 일반 명사 (Generic nouns)	명사 단위사 동사 단위사 소유 단위사 수 단위사
라. 도량형 명사 (Unit counters)	수 단위사
마.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Culturally important items (house, canoe, etc))	모든 단위사

한국어는 가, 다, 라, 마에 부류에 해당한다. 이를 최형용(2017)에서 나오는 분류사성에 대한 조사<sup>19)</sup> 결과와도 비교하려고 한다. 여기서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공존하는 경우에 의존 명사가 더 많이 쓰이는 걸로 나왔으며 한자어 분류사가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한자어 명사와 고유어 명사가 공존하면 한자어 수사와 결합 가능한 분류사가 두드러지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sup>20)</sup> 이어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한’과 ‘몇’이 수사 자리에서 분류사와 함께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유어 명사와 수사 그리고 한자어 명사와 수사가 항상 이렇게 분류된 두 쌍으로 쓰인다.

19) 조사에서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말뭉치에서 몇 분류사 유형들이 사용된 빈도를 확인한 결과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20)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어 단위사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어에서 신체 부분은 이 단위사화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 쌍이 되는 집합은 단위사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신체와 관련된 명사 중에서 몇 가지는 수사 없이 잘 쓰이는 명사들이다. 예컨대, ‘눈’, ‘손’, ‘팔’, ‘다리’, ‘발’ 등이 있다. 우리 다 ‘두 눈’, ‘두 손’ 등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와 없이 자연스럽게 성립된다.<sup>21)</sup>

그러나 이것을 단위사와 헷갈리면 안 된다. 귀류적으로 생각하면 3개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있다고 치면 이 짐승의 눈을 헤아릴 때 ‘세 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며 오히려 의존 명사 ‘개’를 사용해서 ‘눈이 세 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호된다. 그리고 ‘다리’와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높아질수록 표현이 어색해진다. 이를테면, 사람이 ‘두 다리로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세 다리의자’와 같은 표현도 자연스럽게 ‘개가 네 다리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제시한 예시들은 다 우리 머릿속에 잘 알려진 개념이므로 이 표현이 가능하나 ‘다리’를 단위사로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다시 귀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섯 개 다리가 있는 짐승을 보면 ‘다섯 다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한 문장이다.<sup>22)</sup>

다음으로 명사들은 사용 빈도와 우리 문화에 따라 단위사화 될 수 있는데 이것도

---

개월(個月)	1586회
달	604회
명(名)	11548회
사람	3547회
일(日)	17605회
날	68회

21) 이것들은 단위사로서의 사용 방법이 보이지만 전형적인 단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속성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단위사들은 세상 지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인간에게 ‘손’이 세 개가 있다면 ‘손’과 같이 사용이 가능한 수 관형사가 ‘한, 두, 세’였을 것이다. ‘거미’에 대해서 말할 때 ‘여덟 다리’가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신체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사용법이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단위사로 설정하지 않을 것이다.

22) ‘다리’와 관련이 깊은 단위사 중에서 의존 명사 ‘족(足)’이 있는데 이것은 신체 부분이 문법화해서 단위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단위사의 속성이 다르므로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위사들과 차이가 보인다. ‘족’과 ‘족’ 자체를 셀 때 사용되지 않고 버선, 양말 등을 셀 때 사용된 단위사임으로 ‘발’, ‘손’, ‘다리’와 같은 명사와 달리 다른 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역시 모든 명사들을 단위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책상’과 같은 명사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흔한 물건인데 왜 단위사로 인정할 수 없을까? 그리고 ‘책상’처럼 단위사가 아닌 ‘남자’가 왜 단위사와 똑같은 쓰임새가 보일까? ‘남자’의 경우에는 ‘두 남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두 책상” 같은 문장은 비문이다. 이것은 ‘남자’와 ‘책상’의 상위 체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사람’의 하위 부류인데 ‘사람’이 이미 단위사로 인정받은 명사로서 자신의 하위 부류에 속하는 명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미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蔡琬(1983)에 의하여 [인간] 성질을 갖는 명사들은 쉽게 단위사 없이 수사와 성립된다. ‘책상’의 경우는 다르다. ‘책상’에 해당하는 상위 부류로 ‘가구’를 뽑을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사람’에 비하여 ‘가구’가 단위사가 아니므로 “\*이 방에 세 가구가 있다.”와 같은 문장이 비문이다. 따라서 ‘책상’도 단위사로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도량형 명사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존재하는 단위사로서 ‘용기류’와 같은 명사들은 다 별 문제없이 단위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3.4. 소결

본장에서는 단위 명사들의 의미적 속성을 고려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제2장에서도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단위 명사들은 분류화 기능보다 단위화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고 하였으나 단위 명사들의 의미에 따른 분류가 필수적이다. 세어진 명사와 공기하는 단위사들을 선택해야 할 때 단위사와 대상인 명사의 공통적인 의미적 속성에 따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 중심으로 진행한 작업은 단위사와 그의 공기 명사에 따른 분류이다. 단위사가 어떤 명사와 공기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부류를 설정하고 단위사들을 정리하였다. 이 부류들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보고 분류화하였는데 일차적인 분류로 [구체성], [추상성], [기타]가 있다. 다음으로 귀납적으로 서술하여 각 거시적 부류에 속하는 모든 명사들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초점을 두어야 할 만한 것은 [무정성] 단위 명사 안에 [사물류] 단

위사와 [용기류] 명사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용기류]의 명사들은 아주 특별한 명사들로서 이 명사들은 문맥에 따라 지시물 자체를 가리킬 수 있을 뿐더러 용기 안에 속한 액체나 고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용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시적 도량 개체로 보기가 어렵다. 이에 반하여 [사물류] 단위 명사들은 온갖 사물들에 해당하므로 기능적 그리고 모양에 따른 구별도 하였다. [사물류] 단위 명사와 [용기류] 단위 명사들은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성립될 때 이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렇게 따로 서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추상성] 단위 명사들도 여러 가지 하위 부류로 나누었고 [종류] 단위 명사들은 하위적 부류가 없이 나타났다. 본장에 서술한 개념과 기준들을 표로 재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표 4> 수 단위사에 대한 기능적 분류

1차원	2차원	3차원	범위
구체성	유정성	인간류	개체
			집합
		비인간류	개체
			집합
	무정성	식물류	개체
			집합
		장소류	X
		용기류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
			기정수 도량(既定數度量)류
		사물류	집합
			개체
			부분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
추상성	관계성	등급류/차원류	X
		기정수 도량(既定數 度量)류	X
		부정수 도량(不定數 度量)류	X
	사태성	행동류	X
		사건의 횟수류	X

23) 단위 명사의 예시를 포함한 표가 부록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기타	공간류	X
		시간류	X
		추상물류	개체 부분
종류	X	X	X

마지막으로 3.3에서는 명사의 단위사성을 보았다. 여기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의 명사 중에 어떤 명사가 더 쉽게 단위사로 문법화를 겪을 수 있을지를 보았고 기존 연구들을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한국어의 단위사들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 4. 구성에 따른 단위사의 구분

기존의 연구에 따라 단위사들은 ‘수량 단위 의존 명사’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위사 중에는 의존 명사도 있고 자립 명사도 있다. 최현배(1961)는 셈낱덩이 안옹근 이름씨(數單位不完全名詞)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만 이름씨(名詞) 중에 낱덩이 말(단위사)이 되는 것(사람, 집 따위)과 낱덩이 말(단위사)이 안 되는 것(연필, 소, 말 따위)이 있다. 따라서 단위사로 행동하는 자립 명사들도 있다.

그런데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 구분한다고 해서 자립 명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립 단위사들이 모든 문장에서 비슷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자립 단위사들은 똑같은 구성과 속성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명사가 단위사로 사용될 때 다른 쓰임새가 보인다. 자립 명사 중에서도 구성에 대한 보충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립 단위사들을 판별해 보았고 의미적인 체계를 살피면서 명사들의 의미적 속성을 확인해 보았다. 제2장에서 자립 명사의 단위성을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 명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보았다. 본 장에서는 구성상에 있어 자립 명사들의 통사적 구성을 보겠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단위 명사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다른 명사가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나아가, 각 단위사가 세는 지시 대상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앞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어떤 단위사들은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 단독적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다른 제2의 명사가 필수적이다. 이런 명사들은 의존적 단위 명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어떤 단위사들은 자립 명사처럼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의 부류와 별도로 분류되고 ‘용기류’와 같은 단위사들은 이중적인 쓰임새를 보이므로 따로 분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통사적 특성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자립 단위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준(準)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와 ‘용기류 명사’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이다. 앞에서 말한 3개의 부류에 속하는 단위사를 표로 정리한 것을 아래에 제시한다.

**<표 1> 구성상에 의한 단위사 유형**

준(準)의준 명사:	가닥, 가락01, 가래02, 가리02, 가리04, 각07, 갈래, 감03, 개비01, 경11(景), 관항(款項), 꺼풀, 꼬치01, 꾸러미, 꾸리, 꿰미, 낱, 다발01, 단01, 덩어리, 덩이, 도막01, 돌기01, 동강01, 되들이, 두레01, 떨기01, 땀기01, 롤(roll), 마름01, 매끼01, 모03, 모숨, 모태01, 무더기, 무리01, 묶음, 뭉치, 바리01, 배01, 배미01, 보따리, 봉06, 부류02(部類), 부분01(部分), 분과03(分課), 분단02(分團), 뿌리, 사리02, 사리02, 세트(set), 송아리01, 송이01, 수동이, 승어리, 쌍02(雙), 알갱이02, 열04(列), 오라기, 오리01, 올01, 올새, 입, 잎01, 자래01, 자루02, 자릿수(자릿數), 조각01, 조목01, 종(種), 종류(種類), 주22(株), 주먹, 죽02, 줄01[3], 줌01, 직01, 짐01, 짝01, 처02(處), 축01, 켜, 타래01, 토리01, 토막01, 통02, 통03, 통09(桶), 통구리, 틀, 파트(part), 판06(板), 편03(片), 포04(包), 포06(包), 포기01, 포대03(布袋), 폭04(幅), 품종(品種), 항05(項), 항목(項目), 환04(丸)
자립 명사:	가구03(家口), 가락02, 갈이02, 강16(綱), 개미, 개안01(個眼), 개표구02(開票區), 걸음, 겁01(劫), 게임(game), 계05(界), 계절(季節), 계단04(階段), 고개02, 고팡이01, 곡02(曲), 곡조(曲調), 골08(goal), 곳, 과04(科), 과10(課), 과목02(科目), 교구06(教區), 구05(句), 구15(區), 군단01(軍團), 굵이, 권질(卷帙), 그룹01(group), 글자(글字), 급04(級), 기10(紀), 기19(期), 구역04(區域), 국가01(國家), 끼01, 끼니, 나라01, 다랑이, 단07(段), 단계02(段階), 단별(段別), 단위01(單元), 대07(代), 대11(隊), 더미01, 돌림01, 등급(等級), 땀02, 떼01, 라운드(round), 마신01(馬身), 마투리, 목09(目), 문06(門), 문장02(文章), 박자(拍子), 반08(班), 발01, 발자국, 방울01, 밭01, 부부02(夫婦), 부족05(部族), 분대03(分隊), 분절음(分節音), 블록02(block), 사단07(師團), 사람, 선거구(選舉區), 성상06(星霜), 세02(世), 세기03(世紀), 세이브(save), 세트[4], 속05(屬), 췌02(刷), 순03(巡), 순배(巡杯), 스텝01(step), 시가05, 시간04(時間), 식구01(食口), 시절02(詩

	節), 신14(scene), 악단02(樂段), 악장04(樂章), 악절(樂節), 어절 (語節), 억양구(抑揚句), 운율구(韻律句), 연19(聯), 음보01(音步), 음소02(音素), 음절(音節), 인02(人), 자11(字), 잠01, 장20(章), 장면04(場面), 정신09(艇身), 조14(組), 조사구(調查區), 줄01[5], 줄기01, 중대03(中隊), 지역구(地域區), 집01, 쪽02, 차례02(次 例), 차선03(車線), 차시01(次時), 차원02(次元), 챕터(chapter), 책01(冊), 층02(層), 칸01, 커플(couple), 코02, 텍스트(text), 통 화04(通話), 트랙02(track), 팀(team), 판08(版), 패03(牌), 페이 지(page), 편04(便), 표04(票), 품02, 프레임(frame), 학급(學級), 학기02(學期), 학년(學年), 행01(行), 형태소(形態素), 호동03(號 棟), 호봉02(號俸), 학점(學點), 화소03(話素), 획02(劃), 획지(劃 地)
용기류 명사:	가래03, 가마04, 가마니, 갑03(匣), 가자(架▽子), 공기06(空器), 광주리01, 구기01, 구럭, 국자01, 궤03(櫃), 그릇01, 겹01, 꼬치 01, 다래끼01, 달구지, 대야01, 대접01, 독01, 동이01, 뒷박, 두둑 01, 드럼(drum), 등분02(等分), 때01, 면05(面), 목기04(木器), 목 판01(木板), 바가지01, 바구니, 박스(box), 병05(瓶), 보시기01, 봉지06(封紙), 사발01(沙鉢), 삼태기, 삽01, 상03(床), 상자08(箱 子), 숟가락, 숟갈, 스푼(spoon), 식기01(食器), 쌈지, 양재기(洋재 기), 이랑01, 자락01, 자루02, 잔02(盞), 접시, 젓가락, 종구라기, 종발02(鍾鉢), 종지01, 지게01, 집단(集團), 차06(車), 초롱01, 캔 (can), 컵(cup), 탕기01(湯器), 트럭(truck)

‘준 의존 명사’들은 자립 명사이면서 수량 표현에 사용될 때 의존 명사와 같은 쓰임새가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단독적으로 쓸 수 없고 다른 명사와의 공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립 명사’들은 수량 표현에 사용될 때 단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명사이다. 공기하는 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립 명사 단위사가 나타남에 있어 필수적 조건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류 명사’ 부류에 처리된 명사들은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면 공기하는 명사가 있는 여부에 따라 문장의 뜻을 바꾸어주는 명사들이다. 다음 절부터 앞에서 언급한 3개의 부류를 논의

하면서 필요할 때 더 작은 하위 부류로 나누어 보겠다.

#### 4.1. 준(準)의존 명사

준 의존 명사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명사를 가리킨다. 이 명사들은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될 때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공기하는 명사가 무조건 나타나야 한다. 즉, 맥락 없이 말하면 단위사를 꾸미는 다른 명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음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다.

- (1) 가. A: 이 꽃이 얼마예요?  
B: 세 송이 오천 원이에요.  
나. A: 피자를 다 먹었어?  
B: 두 조각 남았어.

- (2) 가. ?두 송이를 샀어요.  
나. ?한 조각 먹을래?

(1)의 문장들은 문맥을 제공해서 구성된 문장들이다. 먼저 (1가)를 서술할 것이다. 여기는 A에서 ‘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밝혀 주는 맥락이 나온다. 따라서 B에서 단지 ‘세 송이’라고 대답하면 별 문제가 없고 문장의 의미가 통한다. 마찬가지로 (1나)의 A에서 ‘피자’를 지시대상으로 삼는 문맥이 나와서 의문문 A에 대답하면 B처럼 ‘두 조각’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2)를 보면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2)에서처럼 맥락이나 예비적인 상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같은 문장이 단독적으로 나타나면 그 의미가 모호해지고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1가)에 대응하는 (2가)를 보면 이것은 꽤 어색한 문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두 송이를 샀어요.’ 이렇게 문맥 없이 말하면 단위사인 ‘송이’가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2나)도 맥락 없이 단순히 ‘한 조각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조각’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조각’의 정체를 해석할 수 없다.

이 부류에 속하는 모든 명사들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처럼 쓰일 때 다른 명사에 의존성을 많이 보이며 자립 명사의 성질을 잃는다. 이것은 단위사가 취하는 넓은 개념들의 범위에 관한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준 의존 명사들은 똑같은 범위가 없으므로 단위사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의 수는 다를 수도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을 공기하는 명사의 수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한다. 즉, ‘공기 명사가 고정된 준 의존 명사’와 ‘공기 명사가 다양한 준 의존 명사’와 ‘기타’로 삼분할 것이다. 다음은 이 구분에 대한 표이다.

**<표 2> 공기 명사에 따른 단위사의 분류**

공기 명사가 고정된 준 의존 명사:	가닥, 가락01, 가래02, 가리02, 가리04, 각07, 갈래, 감03, 개비01, 경11(景), 관항(款項), 겨풀, 꼬치01, 꾸러미, 꾸리, 꿰미, 낱, 다발01, 단01, 돌기01, 두레01, 떨기01, 빼기01, 롤(roll), 마름01, 매끼01, 모03, 모숨, 모태01, 무더기, 바리01, 배01, 배미01, 분과03(分課), 분단02(分團), 뿌리, 사리02, 사리02, 세트(set), 송아리01, 송이01, 수동이, 승어리, 알갱이02, 열04(列), 오라기, 오리01, 올01, 올새, 잎01, 자래01, 자루02, 자릿수(자릿數), 조각01, 조목01, 주22(株), 죽02, 줄01[3], 직01, 처02(處), 축01, 켜, 타래01, 토리01, 통02, 통03, 통구리, 틀, 판06(板), 편03(片), 포04(包), 포06(包), 포기01, 포대03(布袋), 폭04(幅), 항05(項), 항목(項目), 환04(丸)
공기 명사가 다양한 준 의존 명사:	덩어리, 덩이, 동강01, 도막01, 무리01, 묶음, 뭉치, 보따리, 부류02(部類), 부분01(部分), 쌍02(雙), 짝01, 종(種), 종류(種類), 짐01, 토막01, 통09(桶), 파트(part), 품종(品種)
기타:	되들이, 봉06, 입, 주먹, 줌01

‘공기 명사가 고정된 준 의존 명사’는 자기와 공기할 수 있는 명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단위사의 지시 대상은 한정되어 있어서 수량화의 기능을 할 때 모든 명사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두 가지 큰 속성을 보인다.

다. 모든 공기 명사가 [사물성]을 갖거나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사들이다. 예를 들어, ‘가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낱알의 줄이나 줄기 따위를 세는 단위.’이다. 이 뜻풀이에 따라 [+사물성] 명사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늘고 얇은 모양의 사물과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즉 ‘\*종이 한 가닥’ 처럼은 쓸 수 없다. ‘희망 한 가닥’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량 표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가닥’은 단위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sup>1)</sup>

한편 ‘알갱이’도 볼 수 있다. 사전의 ‘알갱이’에 대한 해석은 ‘열매나 곡식 따위의 낱알을 세는 단위’로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동그랗게 생긴 열매나 곡식 따위의 명사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밥알 한 알갱이’가 자연스럽게 ‘\*공 한 알갱이’가 비문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추상성]을 갖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명사들도 있다. 예컨대, ‘분과(分課)’와 ‘항목(項目)’은 각 업무 분야와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명사들이다. 따라서 모든 추상적 분야에서 사용될 수 없고 ‘이번 학술회의는 다섯 분과로 나뉘 진행한다.’의 ‘분과’와 ‘이 법안은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항목’을 서로 교체시키면 ‘\*이번 학술회의는 다섯 항목으로 나뉘 진행한다.’와 ‘\*이 법안은 10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와 같은 어색한 문장들이 생긴다.

‘공기 명사가 다양한 준 의존 명사’에 해당하는 단위사들은 비교적 많은 공기 명사와 성립한다. 이 명사들은 주로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들이다. 예를 들어 ‘종류’와 같은 명사는 사전에 의하면 ‘갈래의 수를 세는 단위’이다. 자세한 제약이 안 나타나며 [+추상성]과 [+사물성]을 가지는 모든 명사와 공기할 수 있다시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명사들이 있다. 여기서 속하는 명사들은 어떤 내용물이 담길 수 있는 명사와 관련이 있어서 제3장에서 [용기류] 부류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준(準) 의존 명사’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장에서 논의할 상위 부류의 ‘용기류’가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닥’에 대해 4개의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다. 수 단위사에 해당하는 뜻풀이는 세 번째이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희망 한 가닥’에 관하여 네 번째 뜻풀이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닥’ 구성으로 쓰여)) 아주 약간’과 같은 뜻풀이 있으니 ‘희망 한 가닥’의 ‘가닥’과 ‘줄기 한 가닥’의 ‘가닥’은 동음어로 본다.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면 공기하는 명사가 있는 여부에 따라 문장의 뜻이 바뀌지만 이 절의 하위 부류로 처리한 ‘기타’ 명사들은 직접적으로 용기(容器)를 가리키지 않으며 단순히 분량을 나타낸다.

- (3) 되들이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이나 물, 술 따위를 되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봉06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봉지 따위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입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주먹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손에 쥔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줌01 →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먹’의 준말.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위사들은 용기(容器)를 직접 가리키지 않고 용기 안에 들어갈 양만 가리킨다. 따라서 이 다섯 개 명사들은 들어 있는 내용물에 의한 제약이 있다. 즉, ‘되들이’와 ‘입’은 작은 양의 [식용성]을 갖는 명사를 허용하며, ‘봉’은 봉지에 담을 만한 [사물성] 명사를 허용하고, ‘주먹’과 ‘줌’은 손에 쥔 만한 [사물성] 명사와 공기할 수 있다.

## 4.2. 자립 명사

독립적으로 잘 쓰이는 명사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2의 명사에 의존하지 않는 단위 명사를 말한다. 이 명사들은 준 의존 명사에 비해 문맥이 제공되어 있든 없든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명사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다른 명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단순히 ‘수사 - 단위사’ 구조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다른 제약을 보인다. 준 의존 명사들은 전술한 것처럼 필수적으로 공기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기 명사들은 한정될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립 명사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자립 단위사들은 공기 명사를 허용하는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자립 명사’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을 두 가지 하위 부류로 재분류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공기 명사 허용	가락02, 같이02, 강16(綱), 개미, 개안01(個眼), 겁01(劫), 게임(game), 계05(界), 고팡이01, 곡02(曲), 곡조(曲調), 골08(goal), 곳, 구05(句), 구15(區), 군단01(軍團), 굵이, 권질(卷帙), 그룹01(group), 기10(紀), 기19(期), 다랑이, 단07(段), 단계02(段階), 단별(段別), 단원01(單元), 대07(代), 대11(隊), 더미01, 돌림01, 등급(等級), 땀02 <sup>2)</sup> , 때01, 라운드(round), 마투리, 목09(目), 문06(門), 반08(班), 방울01, 발01, 부부02(夫婦), 블록02(block), 사단07(師團), 사람, 성상06(星霜), 세02(世), 세이브(save), 세트[4], 속05(屬), 쇄02(刷), 순03(巡), 순배(巡杯), 시가05, 시간04(時間), 식구01(食口), 시절02(詩節), 신14(scene), 인02(人), 장20(章), 장면04(場面), 정신09(艇身), 조14(組), 줄01[5], 줄기01, 중대03(中隊), 쪽02, 차례02(次例), 차시01(次時), 차원02(次元), 책01(冊), 칸01, 커플(couple), 코02, 통화04(通話), 트랙02(track), 팀(team), 판08(版), 패03(牌), 편04(便), 품02, 프레임(frame), 호동03(號棟), 호봉02(號俸), 획02(劃) <sup>3)</sup> , 획지(劃地)
공기 명사 불허	가구03(家口), 개표구02(開票區), 걸음, 계절(季節), 계단04(階段), 고개02, 과04(科), 과10(課), 과목02(科目), 교구06(敎區), 글자(글字), 급04(級), 구역04(區域), 국가01(國家), 끼01, 끼니, 나라01, 마신01(馬身), 문장02(文章), 박자(拍子), 발01, 발자국, 부족05(部族), 분대03(分隊), 분절음(分節音), 선거구(選舉區), 세기03(世紀), 스텝01(step), 악단02(樂段), 악장04(樂章), 악절(樂節), 어절(語節), 억양구(抑揚句), 운율구(韻律句), 연19(聯), 음보01(音步), 음소02(音素), 음절(音節), 자11(字), 잠01, 조사구(調查區), 지역구(地域區), 집01, 차선03(車線), 챕터(chapter), 층02(層), 텍스트



	(text), 페이지(page), 표04(票), 학급(學級), 학기02(學期), 학년(學年), 행01(行), 형태소(形態素), 학점(學點), 화소03(話素),
--	--

공기 명사를 허용하는 단위사들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는 단위사들이다.

- (4) 가. 두 사람이 있다.  
가'. 학생 두 사람이 있다.

- (5) 가. 한 곡을 불렀다.  
가'. 발라드 한 곡을 불렀다.

(4가)와 (5가)를 보면 ‘사람’과 ‘곡’을 자립 명사로서 수량 표현을 나타낼 때 단독적으로 잘 쓰인다. 그리고 또는 다른 명사와 같이 사용할 때도 자연스럽다. 단순히 ‘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는 다른 명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4가')와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인 ‘사람’의 정체가 ‘학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5가')에서는 나타나는 ‘곡’은 ‘발라드’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공기 명사를 불허하는 단위사들은 다른 명사와 공기할 수 없는 명사들이다.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 (6) 가. 두 집<sup>4)</sup>이 무너졌다.  
가'. \*건물 두 집이 무너졌다.

2) 최정혜(1999)에 의해서 ‘땀’은 공기 명사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단위사이다. ‘땀’과 공기할 수 있는 명사가 ‘비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늘 세 땀’과 같은 표현만 가능하다.

3) 최정혜(1999)에 의해서 ‘획’은 공기 명사에 있어 아주 제한적인 단위사이다. ‘획’은 ‘글자’와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글자 한 획’과 같은 표현만 가능하다. 그러나 ‘획’과 ‘글씨’도 사용할 수 있다. 최정혜는 이 것은 동의어로 본다. 즉, 수량 표현에서 ‘글자’와 ‘글씨’가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의 선행 명사로 보았다.

4) 여기의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수효를 세는 단위.’를 가리킨다. 즉, ‘맛집 두 집’이나 ‘과일집 두 집’ 같은 구성들을 보지 않기로 한다. ‘맛집’이나 ‘과일집’의 ‘집’은 위에 언급한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맛집 두 집’과 같은 구성이 반복적인 구성이므로 단위사가 공기 명사의 의미적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본다.

- (7) 가. 2층에서 한 가구만 산다.  
가'. \*2층에서 가족 한 가구만 산다.

(6가)와 (7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위사들은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다. ‘집’과 ‘가구’는 다른 명사와 같이 사용되면 부자연스럽다. 이것은 (6가')와 (7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집’과 ‘건물’을, ‘가구’와 ‘가족’을 같이 사용해 보았는데 이 문장들 역시 비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위의 ‘집’과 ‘가구’처럼 공기 명사를 붙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는 관찰할 만한 현상 하나는 이 명사들의 반복적인 속성이다. 즉, 다른 명사를 허용하지 않으나 자기 자신이 반복하여 나타나 단위사가 단위사의 역할로도 나타나고 핵심 명사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위의 (6)번의 ‘집’은 다른 공기 명사를 붙여하지만 ‘집 두 집’과 같은 구성은 된다. 이미 제2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한국어에 단위사에 있어 반복소라는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문맥이 있어야 ‘집 두 집’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명사 중에서 조금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가 있다. 이 명사들은 합성 명사와 관련이 있는데, 진려봉(2012)과 최정혜(1999)의 논문에서 나오는 예를 가지고 설명할 것이다.

- (8) 가. 기차역 두 역  
나. 지지표가 58표

‘역’, ‘표’ 등의 수 단위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기 명사와의 공기를 허용하지 않지만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합성 명사와는 공기 관계가 잘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은 형태적으로 단위사의 공기 명사의 사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그런데 최정혜(1999: 45)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이런 단어들은 반복에서 오는 정보의 잉여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단위 명사로 대체하는 것이 선호된다. 예를 들어, ‘기차역 두 역’은 ‘기차역 두 정거장’과 같은 구성으로 쓰인다.

### 4.3. 용기류 명사

여기서는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류’ 명사가 속한다. ‘용기류’ 명사들은 사용에 따라 문장의 온 뜻이 바뀔 수 있으므로 따로 세 번째의 부류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단위사들은 편의상 아래에서 언급할 것이다.

가래03, 가마04, 가마니, 갑03(匣), 가자(架子), 공기06(空器), 광주리01, 구기01, 구럭, 국자01, 궤03(櫃), 그릇01, 겹01, 꼬치01, 다래끼01, 달구지, 대야01, 대접01, 독01, 동이01, 뒷박, 두둑01, 드럼(drum), 등분02(等分), 때01, 면05(面), 목기04(木器), 목판01(木板), 바가지01, 바구니, 박스(box), 병05(瓶), 보시기01, 봉지06(封紙), 사발01(沙鉢), 삼태기, 삽01, 상03(床), 상자08(箱子), 숟가락, 숟갈, 스푼(spoon), 식기01(食器), 싹지, 양재기(洋재기), 이랑01, 자락01, 자루02, 잔02(盞), 접시, 젓가락, 종구라기, 종발02(鍾鉢), 종지01, 지계01, 집단(集團), 차06(車), 초롱01, 캔(can), 컵(cup), 탕기01(湯器), 트럭(truck)

전술한 바와 같이 ‘용기류’ 명사들은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단위사이다. 이 명사들은 자립 명사로서 직접 도구를 의미할 수 있으며 환유적으로 그 도구 안에 담긴 내용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 단위사들은 같이 공기(共起)하는 명사들은 문화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존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박스’나 ‘상자’ 안에 물과 같은 액체를 담을 수도 있으나 습관적으로 ‘박스’나 ‘상자’ 안에 고체를 넣으므로 이 명사들은 액체와 공기(共起)하면 어색하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액체를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병’과 같은 도구는 고체 명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병’ 안에 ‘쌀’과 같은 고체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두 병’과 같은 문장은 이상하다.<sup>5)</sup> ‘병’ 대신에 ‘쌀’을 세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가마’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위사들과 공기하는 명사

5) 요즘에는 포장 방식이 다양화되어 병에 담겨 나오는 쌀도 있으나, 이는 비교적 최근에만 쓰이기 시작된 방식이기 때문에 명사 ‘병’이 아직까지 쌀을 세는 단위 명사로서의 자격까지 얻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들은 문화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본고에서 어떤 단위사와 어떤 명사가 잘 어울리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다.

‘용기류’ 단위사와 공기하는 명사가 있든 없든 항상 공기 명사나 공기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용기류 단위사와 잘 어울리는 명사는 문화적으로만 고를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용기류 단위사들은 다른 단위사와 기능적 차이가 보인다. 다음 예문을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 (9) 가. 두 컵이 있다.  
가'. 술 두 컵이 있다.  
나. 두 그릇이 있다.  
나'. 밥 두 그릇이 있다.

(9)에서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컵’과 고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대한 쓰임새를 볼 수 있다. (9가)와 (9나)에서 나타나는 ‘컵’과 ‘그릇’과 같은 용기류 명사가 있을 때 배경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두 개의 용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한국어에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yons(1977)에서 용기류 단위사들은 모든 언어에서 발견된다고 하였으나, 용기류 단위사들의 기능적 쓰임새에 있어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 차이점이 존재한다. 다음 예를 보겠다.

- (10) 가. 두 컵이 있다.  
가'. 술 두 컵이 있다.  
나. There are two cups.  
나'. There are two cups of alcohol.

(10)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용기류 단위사의 사용이다. 한국어에서 용기류 단위사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가)처럼 ‘두 컵이 있다’라는 문장에서는 무엇인가로 채워진 ‘컵’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컵 안

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10가')에서는 수 관형사에 '술'이라는 명사가 오므로 컵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공기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용기 안에 담긴 고체나 물체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공기 명사가 없고 맥락도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현상을 보여준다. (10나) 문장에는 한국어처럼 'cup' 안에 있는 것의 정체를 알 수 없으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cup' 자체가 두 개씩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경우에는 중의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용기류 명사가 단위사처럼 사용되었을 때 무조건 어떤 불가산 명사의 단위만 가리킬 수 있으며 단위사로 표현된 물건 자체를 가리킬 수 없으나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므로 중의적 해석을 갖는다. 영어에서도 (10나')처럼 말하면 용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문장에서는 중의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용기류 단위 명사들은 모든 언어에서 존재하더라도 의미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어에서 어떤 용기(容器)를 직접 세고 싶을 때는 위에서 서술한 방식과 달리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역시 의존 명사 '개(個)'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용기류 명사가 단위사가 아니라 공기(共起) 명사가 된다. 따라서 수량 표현에서 나타나는 용기류 명사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할 것이다.

- (11) 가. (술) 두 컵이 있다.  
나. 컵 두 개가 있다.

(11가)는 '컵'을 이용해서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셀 때 사용하는 단위사이고 (11나)는 '개'를 사용하여 '컵'을 세는 문장이다. 이 현상들을 보았을 때 용기류 단위사 체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용기류 명사 자체에 대한 것이다. 곧, 이 부류에 해당하는 단위사들은 다른 부류의 단위사와 달리 명사가 표현하는 개념을 직접 가리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같은 단위사는 '사람'을 셀 때 사용되나 '컵'과 같은 용기류 단위사는 '컵'을 셀 때 사용되지 않

는다. 대신에 여기는 ‘컵’을 셀 때 다른 단위사에 의존해야 한다. 둘째는 용기류 단위사와 같이 사용되는 명사가 공기 명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단위사 체계에서 단위사와 공기하는 명사가 원래 단위사와 상-하의 관계에 있는데 용기류 단위사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학생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개념 안에 ‘학생’이 하위 개념으로 속하지만 ‘물 한 병’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있는 ‘물’이 ‘병’의 하위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용기류 단위 명사에 대해 더 다른 구성을 볼 수 있다. ‘박스’는 사전에 따라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처리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다음 예를 보고 설명하겠다.

- (12) 가. 라면 한 박스.  
나. 음료수 한 박스.

(12가)는 ‘박스’ 안에 ‘라면’과 고체 속성을 가지는 명사가 있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스’와 같은 용기 안에 습관적으로 고체 사물이 들어가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12나) 문장은 표면적으로 이 문화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어긋난다. ‘음료수’란 ‘마실 수 있는 향이 나는 물’로서, 직접 액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어째서 ‘박스’와 공기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을까? 이것도 환유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음료수’라고 할 때 그 ‘음료수’를 담길 수 있는 병이나 병과 같은 도구를 말한다. 따라서 (12나)를 ‘[음료수가 담긴 병][한 박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병’은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박스’ 안에 액체가 담긴 다른 용기류 단위 명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위 명사가 ‘음료수’를 세는 단위인 동시에 ‘음료수’ 자체가 하나의 개체가 되어 고체성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단위사로 볼 수도 있다. 이 이유 때문의 위의 (12나)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기류’와 같은 명사가 쓰일 때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단위사로서의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명사로서의 역할이다. 전자는 수 관형사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든 없든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고체나 물체를 셀 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용기 명사가 직접 자기

를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수량 표현이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되었을 때 세는 대상이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 4.4. 소결

지난 제3장에서는 단위 명사와 공기하는 명사에 따라 의미적 분류를 하였고, 본장에서는 공기 명사에 따라 나타나는 문장 구성을 보았다. 자립 명사라면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립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로 사용되었을 때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의존 명사와 같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위 명사들을 ‘준(準)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와 ‘용기류 명사’로 삼분하여 각 종류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준(準)의존 명사’들은 다 수량 표현에 사용될 때 필수적으로 공기 명사를 요구하는 단위사들이며 이 종류의 단위사들은 다시 ‘공기 명사가 고정된 준 의존 명사’, ‘공기 명사가 다양한 준 의존 명사’, ‘기타’ 등의 하위 부류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자립 명사’들을 보았는데 이 종류의 단위사들은 준(準) 의존 명사와 달리 공기 명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또는 이 단위사들은 준(準) 의존 단위 명사에 반하여 어떤 때는 공기 명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4.2에서 이 단위사들을 공기 명사를 허용하는 단위사와 공기 명사 불허하는 명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용기류’ 단위사들은 공기 명사가 있든 없든 항상 단위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자립 단위 명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립 단위 명사들의 자립성을 이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명사의 단위사성과 단위사들의 자립성을 살피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목적을 밝힌 후 이 주제를 택한 원인을 설명하였고 연구 범위와 자료를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고의 중심 논의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선행 연구를 이용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입장에서 이 주제에 접근했는지를 설명하였다. 일단 단위 명사의 개념을 서술하고 지금까지 단위사를 가리킬 때 사용해 왔던 여러 가지 용어를 소개하고 현재 학교 문법에서 사용된 ‘분류사’ 명칭과 본고에서 사용한 ‘단위사’에 대한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이 논의 끝에 한국어의 단위 명사들은 분류화 기능보다 단위화 기능이 더 강하게 가진다는 것에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단위사라는 명칭을 선택하였다. 한편 본고의 중심적인 연구 대상은 자립 단위사지만 단위사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의존 단위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의존 명사 단위사와 자립 명사 단위사의 비교를 시행하였다. 이 절에서 자립 명사 단위사 중에서 의존 명사처럼 행동하는 단위사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존 명사 단위사와 준(準) 의존 명사 단위사와 자립 명사 단위사로 분류되는 단위사 체계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외래어 단위사에 대한 상황을 보았다. 외래어 단어들이 많이 차용되어 사용되므로 외래어 단위사도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래어 단위사들은 한국어에 어떤 개념이 없어서 채용된 단위사가 아니고 단순히 한국어 단위사보다 영어 단위사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서 선호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단위사에 대해서 말할 때 단위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사를 보았다. 한자어 수사와 고유어 수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수사의 제약을 보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하나’가 갖는 제약을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한’과 ‘하나’가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명사와 잘 성립되므로 단위사를 판별할 때 ‘하나’나 ‘한’이 있다고 해도 후행하는 명사를 무조건 단위사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단위사가 모든 수사와 잘 성립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자립 단위사는 일반



적으로 단순한 명사이므로 복수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보았고 수량 나타나는 표현에서 사용된 단위사라면 복수 표지 ‘-들’과 결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제3장은 두 개의 큰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단위사 판별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립 명사와 자립 단위사를 서로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몇’을 활용한 관한 분석 방법이다. ‘몇’과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명사들은 단위사로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선행 연구를 살펴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정리하였고 이 연구들에서 단위사들은 어떤 방식대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제3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립 단위사들을 의미적으로 나누고 모든 부류들을 설명하였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단위사들을 총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이 부류는 ‘구체성’, ‘추상성’, ‘기타’에 해당하는 단위사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큰 부류에 속하는 단위사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 하위 부류로 재분류하였다. [구체성] 단위사들은 다시 [유정성] 단위사와 [무정성] 단위사로 나누었다. 여기는 [유정성]에 해당하는 명사들은 ‘인간’과 ‘비인간’ 명사로 나누었다. [무정성] 단위사들은 ‘사물류’와 ‘용기류’와 ‘장소류’와 ‘식물류’로 구분하였다. [추상성] 단위사들은, [관계성], [사태성], [기타]의 세 가지 하위 부류로 분류했는데 이 3개 부류 안에 ‘공간류’, ‘시간류’, ‘추상물류’, ‘등급/차원류’, ‘행동류’, ‘사건의 횡수류’, ‘기정수 도량(既定數度量)류’, ‘부정수 도량(不定數度量)류’과 같은 하위 부류가 있다. 그리고 ‘종류’ 단위사들은 재분류화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단위사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여기서는 Aikhenvald(2000)에서 제시된 단위사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에는 주로 단위화의 현상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은 명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았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구성에 따른 단위사의 구분을 해 보았다. 여기는 우선 단위사들의 속성에 따라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문장의 의미가 통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단위사들은 문장에서 어떤 구성에 나타느냐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하였다. 즉, ‘준(準) 의존 명사’, ‘자립 명사’, ‘기타’이다. ‘준(準) 의존 명사’들은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에 사용될 때 필수적으로 다른 공기하는 명사의 수식을

요구하는 명사들이다. 이 부류의 단위사들은 공기할 수 있는 명사의 제약에 따라 다시 ‘공기 명사가 고정된 준 의존 명사’, ‘공기 명사가 다양한 준 의존 명사’, ‘기타’로 삼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자립 명사’들은 공기 명사가 있든 없든 수량 표현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사용될 때 항상 단독적으로 잘 성립하는 단위사들이다. 여기는 공기 명사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기 명사를 허용하는 단위사와 공기 명사 불허하는 명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기타’에 해당하는 단위사들은 ‘용기류’ 단위사들인데 이 단위사들은 공기 명사가 있을 때와 공기 명사가 없을 때 문장의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

한국어의 자립적 단위사들은 단독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많이 없다. 이 논의가 자립 단위사들의 상용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음을 보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도 많다. 예를 들어 명사들은 어떤 사회적·언어적 환경에서 단위사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또 단위사 체계가 발달한 한국어에서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와 같이 다른 의존 단위사 필요 없이 명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 그리고 정보구조 논의에서 단위사가 좋은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앞으로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단위사에 대한 더 정확하고 깔끔한 체계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사전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 연구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 연구원 편(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 [논문류]

강범모 (2010). 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1-28.  
고성철(1990), 《국어 수 분류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김선효(2005), 국어의 분류사와 문법화. 《한국어학 제27호》, 한국어학회,  
107-123.  
김인균(2005), 《국어의 명사문법 I》, 역락.  
김혜림, 박민희(2017), 명사의 분류사적 사용 빈도수 조사를 통한 분류사의 범위  
설정, 《이화어문논집》 43, 이화어문학회, 93-117.  
박소영(2017), 한국어 명사구 생략의 통사론. 《언어와 정보사회》 3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391.  
박진호(2011), 소유 분류사와 한국어의 속격 표지, 한국어유형론 연구회, 제4회 연  
구발표회, 25-19.  
박철후(1990), 《한국어 수량표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  
위논문.  
박철우(2012), 양화사와 의미.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1-23.

- 시정곤(2000), 국어 수량사구의 통사구조. 《언어》 25(1), 한국어언어학회, 73-101.
- 오성애(2009), 조선어 복수표지 “-들”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2009(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8-33.
- 우형식(1996), 분류사의 수량 명사구 분석. 《웅진어문학》 4, 웅진어문학회, 373-388.
- 우형식(2000), 한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범위. 《한글》 248, 한글학회, 49-84.
- 우형식(2000), 수 분류사의 특징과 한국어 분류사. 《언어과학》 7(2), 한국언어과학회, 127-146.
- 우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부류 표시 기능 연구》, 박이정.
- 우형식(2003), 동 아시아 주요 언어에 나타나는 수 분류사 구성 형식의 대조. 《언어》 28(3), 한국어언어학회, 427-449.
- 우형식(2005), 한국어 분류사의 원형론적 분석. 《우리말연구》 17, 우리말 학회, 71-95.
- 우형식(2015), 이운석의 『Classifiers in Korean』 (2014) 다시 읽기. 《형태론》 17(1), 형태론, 123-141.
- 이운재(2018), 1차원 분류사의 범주 확장에 관한 연구. 《중국문학》 95(0), 한국중국어문학회, 213-232.
- 이현규(1987), 셈매김씨에 대하여. 《한글》 196, 한글학회, 175-194.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어언어학회, 55-76.
- 임홍빈(1991), 국어 분류사의 변별 기준에 대하여. 《석정 이승욱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335-377.
- 정해권(2017), 한국어 수사구의 언어유형론적 고찰. 《언어학》 25(1), 대한언어학회, 183- 202.
- 진려봉(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분류사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려봉(2017), 한국어 수 분류사의 범주에 대한 고찰. 《중한언어문화연구》

- 12(0),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9-25.
- 차준경(2008), 추상 명사의 의미 유형 전이. 《한국어학》 38, 한국어학회 401-426.
- 차준경(2009), 추상 명사의 의미 분류. 《담화와인지》 16(2), 담화·인지언어학회, 149-168.
- 채완(1983), 국어 數詞 및 數量詞句의 유형적 고찰. 《어학연구》 19(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34.
- 채완(190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67-180.
- 채완(1996), 국어의 분류사 '개'의 차용 과정과 의미.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193-215.
- 채완(1998), 의존명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1), 국립국어연구원, 49-63.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연구》, 태학사.
- 최기용(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어학연구》 37(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445-482.
- 최정혜(1999), 국어 명사의 단위성 연구 : 수량 표현에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1994), 《우리말본》(1961 년 수정본), 샘 문화사.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 외(2017), 《한국어 분류사 연구》, 역락.
- 추연하(2016), 영어 추상명사의 개념적 분류: 인지문법적 접근,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Aikhenvald, Y. Alexandra(2000), 『Classifiers: a typology of noun categorization de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 Allan, K.(1977), Classifier, 『Language』 53-2, Linguistics society of America at the waverly press Inc. Baltimore, p285-311.
- Bennett, B. and Agarwal, P.(2007) 『Semantic Categories Underlying the

- Meaning of 'Place'』 In: Winter S., Duckham M., Kulik L., Kuipers B. (eds) Spatial Information Theory. COSIT 2007.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4736. Springer, Berlin, Heidelberg, p78–95,
- Chierchia(1997),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s』 . Natural Language Semantics. :339–405.
- Dixon, Robert(1991), 『Words of Our Country』 ,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Frawley, W.(1992), 『Linguistics Semantics』 . London: Lawrence Erlbaum.
- Gebhardt, L.(2011), 『Classifiers Are Functional』 , Linguistic Inquiry, 42(1), 125–130.
- Gil, D.(2005), 『Numeral Classifiers』 , In Haspelmath, M., M.S. Dryer, D. Gil and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S.(1968), 『Quantifiers in English』 , Foundations of Language
- Lee Yun–Seok(1997), 『Classifiers in Korean』 , Department of Linguistics. BA (Hons) Thesis, Canberr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Longobardi G.(1944), 『Reference and proper names: A theory of N–movement in syntax and logical form』 , Linguistic inquiry 609–665.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Vol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h(1995), 『Korean numeral classifiers: Semantics and universals』 ,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Ramstedt, G.(1968), 『A Korean grammar』 / by G. J. Ramstedt. (Suomalais–ugrilaisen Seuran toimituksia ; 82). Oosterhout N.B.: Anthropological Publications.
- Trask, L.(1993), 『A dictionary of Grammatical Terms in Linguistics』 , London: Routledge.

William Croft(1994), 『Semantic universals in classifier systems』, WORD,  
45:2, 145-171.

## [기타]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네이버: <https://www.naver.com/>

## 부록

### <수 단위사에 대한 기능적 분류>

1차원	2차원	3차원	범위	목록
구체성	유정성	인간류	개체:	사람, 인02(人)
			집합:	가구03(家口), 군단01(軍團), 그룹01(group), 대11(隊), 떼01, 무리01, 부부02(夫婦), 부족05(部族), 분대03(分隊), 사단07(師團), 식구01(食口), 쌍02(雙) <sup>6</sup> , 열04(列)*, 조14(組), 중대03(中隊), 집단(集團), 처02(處), 커플(couple), 팀(team), 패03(牌), 편04(便), 품02
		비인간류	개체:	X
			집합:	강16(綱), 계05(界), 과04[3](科), 떼01, 무리01, 목09(目), 문06(門), 속05(屬), 쌍02(雙)*, 열04(列)*
	무정성	식물류	개체:	뿌리, 잎01, 측01, 통02, 편03(片), 포03(包), 포기01
			집합:	송아리, 송이01, 송어리, 쌍02(雙)*, 열04(列)*, 떨기01
		장소류	X	개표구02(開票區), 고개02[1], 곳, 교구06(敎區), 구15(區), 구역04(區域), 굽이, 국가01(國家), 나라01, 선거구(選舉區), 조사구(調查區), 지역구(地域區), 집01[2], 차선03(車線), 층02(層) 화소03(話素)
		용기류	부 정 수 도량 (不定數 度量)류:	가래03, 가마04, 가마니, 갑03(匣), 가자(架▽子), 공기06(空器), 광주리01, 구기01, 국자01, 구럭, 궤03(櫃), 그릇01, 다래끼01, 달구지, 대야01, 대접01, 독01,



				동이01, 되들이, 뒗박, 드럼(drum), 목기04(木器), 목판01(木板), 바가지01, 바구니, 박스(box), 병05(瓶), 보시기01, 봉06, 봉지06(封紙), 사발01(沙鉢), 삼태기, 삽01, 상03(床), 상자08(箱子), 숟가락, 숟갈, 스푼(spoon), 식기01(食器), 찻지, 양채기(洋채기), 입, 자루01, 잔02(盞), 접시, 젓가락, 종구라기, 종발02(鍾鉢), 종지01, 주먹, 줍01, 지게01, 차06(車), 초롱01, 캔(can), 컵(cup), 탕기01(湯器), 통09(桶), 트럭(truck), 포04(包), 포대03(布袋)
			기 정 수 도량 (既定數 度量)류:	판06[4](板)
		사물류	집합:	마름01, 묶음, 모숨, 세트[1](set), 쌍02(雙)*, 열04(列*), 이랑01, 자래01, 죽02, 줄01, 짝01, 편04(便)
			개체:	가리04, 가락01, 가래02, 개비01, 권질(卷帙), 꼬치01, 꼬치02, 꾸러미[2], 꾸러01, 꿰미, 낱, 다랑이, 다발01, 단01, 더미01, 덩어리, 덩이, 돌기01, 두둑01, 두레01, 땀기01, 롤(roll), 마투리, 매끼01, 모03, 모태01, 무더기, 뭉치, 바리01, 방울01, 밭01, 배미01, 보따리, 블록02(block), 뿌리, 사리01, 자11(字), 자루02, 책01(冊), 칸01, 타래01, 토리01, 통구리, 틀, 표04(票), 환04(丸), 획02(劃)

			부분:	개안01(個眼), 계단04(階段), 겹01, 꺼풀, 낱, 단07[2][6](段), 도막01, 동강01, 등분02(等分), 면05(面), 부분01(部分), 알갱이02, 어절(語節), 오라기, 오리01, 울01, 울새, 줄기01[3], 조각01, 쪽02, 코02, 토막01, 통03, 파트(part), 페이지(page), 폭04(幅), 호동03(號棟), 획지(劃地)
			부 정 수 도량 (不定數 度量)류:	가리02, 감03, 꾸러미[3]
추상성	관계성	등 급 류 / 차원류:	X	급04(級), 등급(等級), 단07(段)[3][4], 단계02(段階), 차원02(次元), 켜, 학급(學級), 학기02(學期), 학년(學年), 호봉02(號俸)
		기 정 수 도량 (既定數 度量)류:	X	수동이
		부 정 수 도량 (不定數 度量)류:	X	마신01(馬身), 정신09(艇身)
	사태성	행동류:	X	걸음, 굵이, 돌림01, 땀02, 세이브(save), 스텝01(step), 짐01
		사 건 의 횟수류:	X	같이02, 게임(game), 고팡이01, 골08(goal), 때01, 라운드(round), 발01, 발

				자국, 사리02, 세트[4](set), 쇄02(刷), 순03(巡), 순배(巡杯), 직01, 차례02(次例), 차시01(次時), 통화04(通話)
	기타 (공 간/ 시간/사 물류)	공간류:	X	각07, 경11(景), 과04[1](科), 시가05, 집01[6]
		시간류:	X	겁01(劫), 계절(季節), 고개02[3], 기10(紀), 기19(期), 대07(代), 배01, 성상06(星霜), 세02(世), 세기03(世紀), 시간04(時間), 잠01
		추상물류	개체:	가닥, 가락02, 곡02(曲), 곡조(曲調), 과목02(科目), 단별(段別), 자락01, 주22(株), 줄기01[5], 트랙02(track), 학점(學點)
			부분:	고개02[2], 과10(課), 관항(款項), 글자(글字), 구05(句), 단원01(單元), 문장02(文章), 박자(拍子), 반08(班), 부류02(部類), 분과03(分課), 분단02(分團), 분절음(分節音), 시절02(詩節), 신14(scene), 악단02(樂段), 악장04(樂章), 악절(樂節), 억양구(抑揚句), 연19(聯), 운율구(韻律句), 음보01(音步), 음소02(音素), 음절(音節), 자릿수(자릿數), 장20(章), 장면04(場面), 줄01[5], 챕터, 텍스트(text), 토막01, 파트(part), 판08[5](版), 프레임(frame), 항05(項), 항목(項目), 행01(行), 형태소(形態素)
종류	X	X	X	갈래, 종(種), 종류(種類), 품종(品種)

- 6) 여기서 분류된 '쌍02(雙)'은 인간 속성이 없지만 인간 명사와 잘 어울려서 이 부류에 포함시켰다. 쌍02(雙)과 같은 다른 단위사들(열04(列))은 잘 어울리는 공기 명사의 부류에 따라 표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똑같은 단위사가 여러 가지 부류에 속할 수도 있다. 이 속성을 가지는 단위사들은 별(\*) 기호로 표시한다.

### <자립 단위 명사 목록>

표제어	뜻풀이
가 구 0 3 (家口)	「4」 『법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세대03 「2」 . ㉠ 이 집에는 다섯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다.
가닥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군데서 갈려 나온 낱알의 줄이나 줄기 따위를 세는 단위. ㉠ 두 가닥으로 땀은 머리/창을 열자 수많은 가닥의 햇살이 쏟아졌다.
가락01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가늘고 길게 토막이 난 물건을 세는 단위. ㉠ 옛 한 가락/잔칫집에 가서 국수 한 가락 못 얻어먹고 돌아왔다.
가락0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조 「2」 . ㉠ 목청을 돋우어 육자배기 한 가락을 구성지게 뽑았다.
가래02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토막 낸 떡이나 옛 따위를 세는 단위. ㉠ 떡 두 가래/예전에는 현 고무신 몇 짝만 있어도 옛 서너 가래와 바꿔 먹을 수 있었어.
가래03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을 떠서 세는 단위. ㉠ 흙 한 가래/흙 댕 가래를 퍼서 자루에 담아라.
가리02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더미를 세는 단위. 한 가리는 스무 단이다. ㉠ 장작 한 가리/불이 나서 벧짚 두 가리가 다 타 버렸어.
가리04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삼을 넣어 말리려고 몇 꼭지씩 한데 묶은 것을 세는 단위.
가마04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가마니01 「2」 . ㉠ 쌀 다섯 가마/쌀을 가마니에 담으니 한 가마가 넘는다./너는 요즘 쌀 한 가마가 얼마인지 아니?
가마니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이나 소금 따위를 ‘가마니’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가마04 「2」 . ㉠ 우리 집은 일 년에 쌀을 두 가마니 정도 먹는다./이 정도 크기의 논에서

	는 일 년에 쌀을 몇 가마니나 수확할 수 있습니까?
각07(刻)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국악에서, 장단을 세는 단위.
갈래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갈라진 낱알을 세는 단위. ¶ 두 갈래 길/머리를 두 갈래로 땀다/다리의 중간 지점에서 강은 세 갈래로 갈라져 흐른다./원정군은 몇 갈래로 나뉘어 공격을 해 왔다.
갈-이02	[1] 「명사」 『농업』 논밭을 갈고 김을 맴. =경운. ¶ 석이는 소 부리는 재미에 저녁참 훨씬 전에 갈이를 마쳤다.《오영수, 머루》
감03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옷감을 세는 단위. 한 감은 치마 한 벌을 뜰 수 있는 크기이다. ¶ 치마 한 감을 뒀다./이 비단은 한복 한 감이 되고도 남는다.
갑03(匣)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작은 물건을 ‘갑’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담배 한 갑/분필 세 갑.
강16(綱)	생물 분류학상의 한 단위. 문(門)의 아래, 목(目)의 위에 해당한다.
개비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가늘고 짤막하게 쪼갠 토막을 세는 단위. ¶ 장작 두 개비/담배 대여섯 개비/향 네 개비/김 씨도 안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물었다./그는 성냥 한 개비가 다 탈 때까지 초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개 안 0 1 (個眼)	『동물』 곤충을 비롯한 대부분의 절지동물의 겹눈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단위가 되는 눈. ≒낱눈.
개 표 - 구 02 (開票區)	개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해 놓은 단위 구역. ¶ 개표구마다 공정 선거 기구를 설치하다.
가자(架▽子)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음식을 ‘가자’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걸음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는 횟수를 세는 단위. ¶ 한 걸음/몇 걸음 건다가 았다/그는 두어 걸음 앞서 걸었다./나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다.
겁01(劫)	「명사」 『불교』 어떤 시간의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때에서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의 동안이라는

	<p>뜻이다. ≡갑과(劫簸).</p> <p>『 몇 겹이 지나도 변치 않을 굳은 맹세.</p>
계 임 (game)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경기의 횃수를 세는 단위.</p> <p>『 축구를 한 게임 하다/탁구 두 게임을 관람하다.</p> <p>「4」 『운동』 정구 경기에서, 세트를 이루는 한 단위. 4점이 한 게임이 되고 여섯 게임이 한 세트가 된다.</p>
계 0 5 (界)	<p>「1」 『생물』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큰 단위. 동물계, 식물계 따위가 있다.</p>
계 절 0 1 (季節)	<p>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일 년을 구분한 것. 일반적으로 온대 지방은 기온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로 나누고, 열대 지방에서는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여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 천문학적으로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로 나눈다. ≡때01 「7」 · 시절01(時節) 「2」 · 철01 「1」 · 철기03.</p> <p>『 가을은 독서의 계절/계절이 바뀌다/나는 계절을 타지 않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중국의 화남 지방은 계절에 관계없이 1년에 이모작을 할 수 있다.</p>
경11(景)	<p>「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연극이나 그림 따위에서 장면을 세는 단위.</p> <p>『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열두 경의 화폭에 담아 놓았다.</p>
계 단 0 4 (階段)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의 낱말의 단을 세는 단위.</p> <p>『 그는 층계를 몇 계단 내려오지도 못하고 넘어졌다.</p>
고개02	<p>「1」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p> <p>『 고개를 넘다/저 고개 너머에 우리 집이 있다./동생은 고개 꼭대기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p> <p>「2」 일의 중요한 고비나 절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 노래 중간의 그 고개만 잘 넘어가면 된다.</p> <p>「3」 중년 이후 열 단위만큼의 나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 이미 오십 고개를 넘어섰다.</p>
고쟁이01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새끼나 줄 따위를 사리어 놓은 돌림을 세는 단위.</p>

	<p>『자네도 새끼 한 고갱이 파 보겠나?/이때 묵묵히 섰던 두포가 두 어깨에 힘을 주니, 몸을 몇 고갱이로 칭칭 엮었던 굵은 밧줄이 툭툭 나갑니다.《김유정, 두포전》</p> <p>「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두 지점 사이의 왕복 횟수를 세는 단위.</p> <p>『이번 반이에는 내행 배행이나 짐 영거할 사람이 자네하고 난데 우리가 청석골을 몇 고갱이씩 할는지 아나.《홍명희, 임궏정》</p>
곡02(曲)	<p>「4」 『음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악곡이나 노래를 세는 단위.</p> <p>『노래를 한 곡 부른다.</p>
곡 조 ( 曲 調 )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음악적 통일을 이루는 음의 연속이나 노랫가락을 세는 단위. ♫가락02 「2」 · 자락01 「6」 .</p> <p>『시조 한 곡조/가야금 몇 곡조를 뜯다/유행가 한 곡조를 멋지게 뽑다.</p>
골 08(goal)	<p>「2」 축구나 농구, 핸드볼, 하키 따위에서, 문이나 바구니에 공을 넣어 득점하는 일. 또는 그 득점.</p> <p>『한 골만 더 넣으면 동점이 된다./두 골 차로 이겼다.</p>
곳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일정한 자리나 지역을 세는 단위.</p> <p>『오늘 두 곳에서 저녁 초대를 받았다./이번 주에는 은행을 네 곳이나 들렀다.</p>
공 기 0 6 (空器)	<p>「1」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 ‘빈 그릇’으로 순화.</p>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밥 따위를 ‘공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얼마나 굶주렸던지 그는 밥 세 공기를 단숨에 먹어 치웠다./쌀을 한 공기씩 가져오기로 하였다.</p>
과04(科)	<p>「1」 학과나 전문 분야를 구분하는 단위.</p> <p>『우리과는 전망이 밝다./그 사람은 무슨 과 의사입니까?</p> <p>「3」 『생물』 생물 분류학상의 단위. 속(屬)의 위, 목(目)의 아래이다.</p>
과10(課)	<p>「2」 ((주로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교과서나 강의록 따위에서 내용에 따라 차례로 구분하여 놓은 제목의 단위.</p> <p>『첫째 과를 공부하다/각 과의 첫머리에는 학습을 돕기 위한 만화가 실려 있다.</p>

과 목 0 2 (科目)	<p>「2」 『교육』 가르치거나 배워야 할 지식 및 경험의 체계를 세분하여 계통을 세운 영역.</p> <p>¶ 학기말 시험에는 전 과목을 모두 시험 본다./그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다./야학 선생들이 와서 영어다 수학이다 윤리다 하는 과목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이들도 그랬고 나도 별로 달갑지가 않았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p>
관항 (款項)	<p>「1」 조항이나 항목.</p> <p>「2」 예산서나 결산서 따위의 내용 구분 단위인 관(款)과 항(項)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가장 큰 부류로 관이 있고 다음이 항이며 그다음이 목(目)이다.</p>
광주리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물건을 ‘광주리’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사과 한 광주리.</p>
교 구 0 6 (教區)	<p>「2」 『가톨릭』 가톨릭교회를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한 단위. 주교(主教)를 중심으로 하여 대주교구, 주교구 따위가 있다.</p> <p>¶ 교황청에서는 이 기적같이 자생한 동방의 작은 나라의 교회를 북경 교구로부터 독립시켜 새로이 조선 교구를 설정했다.《한무숙, 만남》</p>
구05(句)	<p>「1」 『언어』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종류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한다.</p> <p>「2」 『문학』 시조나 사설(辭說)의 짧은 토막.</p> <p>¶ 시조는 보통 삼 장 육 구로 되어 있다./고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조각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그렇기에 한 자 한 자에 힘이 깃들었고, 한 구 한 구에 생명이 스며 있다.《안병욱, 사색인의 향연》</p>
구15(區)	<p>「1」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넓은 범위의 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으로 나눈 하나하나의 구획.</p> <p>¶ 이 정도의 넓이라면 몇 구로 나누는 것이 좋을까?/전국을 아홉 구로 나누었다.</p>
구기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술이나 기름, 죽 따위를 ‘구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기름 세 구기/석유 두 구기/호박죽 한 구기.</p>



구력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물건을 ‘구력’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그의 머리에는, 고기를 한 구력 잡아 가지고 와서 미륵레한테 한 바가지 퍼 주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한승원, 패촌》</p>
구역04 (區域)	<p>「1」 갈라놓은 지역. ㄴ구우06(區宇).</p> <p>『 출입 금지 구역/말은 구역을 순찰하다/전 국토를 문화의 특질에 따라 다섯 구역으로 분류하였다./모두가 정해진 구역에서 장사를 해야지 그 밖에 가서 팔면 큰일 나거든요.《한무숙, 어둠에 갇힌 불꽃들》</p> <p>「2」 『기독교』 한 교회의 신자들을 지역에 따라 일정 수로 나누어 놓은 단위.</p>
국자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국이나 액체 따위를 ‘국자’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국물 두 국자/우리는 국을 한 국자씩 떠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주었다.</p>
군단01 (軍團)	<p>『군사』 육군에서, 사단 이상의 병력으로 편성되는 전술 단위 부대. 군과 사단의 중간에 해당한다.</p> <p>『 소령, 경고한다. 군단 사령부의 연락 장교로서 나는 자네의 상관이다. 자네는 나를 통하여 내려온 군단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황석영, 무기의 그늘》</p>
굽-이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굽어진 곳을 세는 단위.</p> <p>『 골짜기를 여러 굽이 돌다/한 굽이만 더 돌면 집에 도착한다.</p>
권질 (卷帙)	책을 낱개로 세는 단위인 권과 여러 책으로 된 한 벌을 세는 단위인 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
퀘03(櫃)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쌀이나 돈 따위의 물건을 ‘퀘’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쌀 한 퀘.</p>
그릇01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음식이나 물건을 ‘그릇’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설령탕 한 그릇을 시키다/그는 한 끼 식사로 밥을 두어 그릇을 먹는다./그는 걸신들린 사람처럼 밥 두 그릇에 국 세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다.</p>
그룹	「1」 함께 행동하거나 공통점이 있어 한데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

01(group)	㉠ 독서 그룹/선두 그룹/그룹 지도/축구 동호인 그룹/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전체를 세 그룹으로 나눈다.
글-자(- 字)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ㄴ글 「3」 · 글씨 「2」 · 자14(字) 「1」 . ㉠ 첩판에 적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이 원시 부족은 고유의 말은 있지만 글자는 없다./글씨를 흘려 써서 이 글자가 ‘서’인지 ‘저’인지 잘 모르겠다.
급04(級)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주산, 태권도, 바둑 따위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 ㉠ 그의 바둑 실력은 삼 급쯤 된다.
기10(紀)	「2」 『지구』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대(代)보다는 작고 세(世)보 다는 큰 단위로 캄브리아기, 백악기, 쥐라기 따위가 있다.
기19(期)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일정한 기간씩 되풀이되는 일의 하 나하나의 과정을 세는 단위. ㉠ 제8기 졸업생 일동/1년을 4기로 나눈다.
겹01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그 수만큼 거듭됨을 나타내는 말. ㉠ 세 겹으로 싼 꾸러미/여러 겹으로 접은 종이/누나의 한 겹 모시 적삼.
국 가 0 1 (國家)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ㄴ나라01 「1」 · 방가01(邦家)· 방국01(邦國). ㉠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다.
꺼풀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여러 겹으로 된 껍질이나 껍데기의 층을 세는 단위. ㄴ까풀01 「2」 . ㉠ 양과 껍질을 한 꺼풀 벗긴 후 잘게 썰었다./낮 동안에 땀과 먼지로 몇 꺼풀 도배를 해 버린 몸뚱어리에 더러운 속옷을 그대로 걸친 채였고...《윤 홍길, 제식 훈련 변천 약사》
꼬치01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꼬챙이에 꿰 물건을 세는 단위. ㉠ 전복 한 꼬치.
꼬치02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눈송이나 빗방울 따위를 세는 단 위. ㉠ 컴컴하게 흐린 하늘에서는 한 꼬치 두 꼬치 눈송이가 날아 떨어지고 있 었다.《선대》/창문들을 다 열어 놓았는데도 방 안에는 한 꼬치 바람도 흘 러들지 않았다.《변회근, 뜨거운 심장》

꾸러미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꾸리어 싼 물건을 세는 단위.</p> <p>¶ 소포 두 꾸러미/열 꾸러미의 수하물.</p>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달걀 열 개를 묶어 세는 단위.</p> <p>¶ 달걀 한 꾸러미.</p>
꾸리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둥글게 감아 놓은 실 따위를 세는 단위.</p> <p>¶ 실 두 꾸리/열 꾸리의 실.</p>
퀘미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끈 따위로 퀘어서 다루는 물건을 세는 단위.</p> <p>¶ 엽전 다섯 퀘미/달주는 장에서 생선 몇 마리와 명태 한 퀘미를 사서 붓집에 얹었다.《송기숙, 녹두 장군》</p>
끼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 ≒끼니 「2」 .</p> <p>¶ 한 끼/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다.</p>
끼니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끼01 「2」 .</p> <p>¶ 쌀이 한두 끼니 먹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하루 종일 자시는 밥은 세 끼니를 합쳐서 오 흡이 아니면 육 흡뿐이었다.《박종화, 임진왜란》</p>
나라01	<p>「1」 =국가01(國家).</p> <p>¶ 나라를 다스리다/나라를 세우다/나라를 잃다/나라를 지키다.</p>
날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여럿 가운데 따로따로인, 아주 작거나 가늘거나 얇은 물건을 하나하나 세는 단위.</p> <p>¶ 티끌 한 날도 없는 맑은 공기/밤하늘엔 별 수천 날이 반짝인다.</p>
다랑-이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다랑이?’을 세는 단위.</p> <p>¶ 가파른 비탈을 쫓아 만들었기에 꼭 멍에처럼 휘어든 논배미들이 열 다랑이도 더 넘는다.《김춘복, 삼짓골》</p>
다래끼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물건을 ‘다래끼’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영성03.</p> <p>¶ 옥수수 한 다래끼/한번은 석이가 산 깊이 들어가 머루를 한 다래끼 따왔다.《황순원, 잃어버린 사람들》</p>
다발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꽃,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p> <p>¶ 장미꽃 한 다발/빈 관도 아니고 장작 두어 다발 무게는 나팔 관들이라</p>

	수월한 일이 아닐 터이던 것이다.《이문구, 장한몽》/지전 네 다발은 틀림 없는 삼십오만 원이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단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짚, 땔나무, 채소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 ¶ 벗짚 한 단/장작 두 단/장에 가서 시금치 두 단만 사 오너라./열무가 한 단에 얼마입니까?
단07(段)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인쇄물의 지면을 나눈 구획을 세는 단위. ¶ 오늘 신문 제1면 제1단에는 어떤 기사가 났느냐? 「3」 바둑, 장기, 태권도, 유도, 검도 따위의 실력에 따라서 매기는 등급. ‘급(級)’보다 위이며, 초단부터 9단까지 있다. ¶ 단을 따다/그의 가족은 모두 단이 있는 태권도 선수이다.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바둑이나 장기 또는 태권도, 유도, 검도 따위의 실력에 따라서 매기는 등급을 세는 단위.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다리, 계단 따위의 하나하나의 층을 세는 단위. ¶ 사다리를 한 번에 두 단씩 오르면 위험하다./그는 바쁜 마음에 계단을 한 번에 두 단씩 뛰었다.
단 계 0 2 (段階)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 ¶ 마무리 단계/다음 단계에 배울 내용은 뭐지?/한꺼번에 배우겠다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밟아 나가라./소설의 구성은 작가와 작품에 따라 짜임의 순서와 단계가 다양하다.
단 별 (段別)	어떠한 단계나 단락을 단위로 나눈 구별.
단 원 0 1 (單元)	「1」 『교육』 어떤 주제나 내용을 중심으로 묶은 학습 단위. 내용에 따라 교재 단위, 경험 단위, 문제 단위, 작업 단위 따위로 나눈다. ¶ 단원의 마무리/국어 과목의 읽기 단위와 쓰기 단위/한 단원을 마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다.
달구지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 따위를 ‘달구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벗단 두 달구지.

대07(代)	「5」 『지구』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기(紀)보다 큰 단위로, 시생대·원생대·고생대·중생대·신생대 따위가 있다.
대11(隊)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편제된 무리를 세는 단위. ㉠ 제일 대는 공격에 나시고 제이 대는 수비를 맡는다.
대야01	물을 담아서 무엇을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 ㉠ 대야에 물을 떠 세수하다.
대접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물 따위를 ‘대접’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대접/막걸리 한 대접.
더미01	많은 물건이 한데 모여 쌓인 큰 덩어리. ㉠ 두엄 더미/아랫목에 쌓아 둔 더미 속에서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박경리, 토지》
덩어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수박 한 덩어리/메주 한 덩어리/시꺼먼 구름 한 덩어리가 눈부신 해를 심술궂게 가리어 버린다.《나도향, 환희》
덩이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 떡 다섯 덩이/주먹밥 한 덩이/사람이란 눈빛 가지고, 찬밥 한 덩이 가지고도 평생의 우의를 맺을 수 있지만 황금을 쌓아도 친구가 못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박경리, 토지》
도막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짧고 작은 동강을 세는 단위. ㉠ 나무 세 도막/생선 한 도막/생선을 여러 도막으로 자른다.
독01	간장, 술, 김치 따위를 담가 두는 데에 쓰는 큰 오지그릇이나 질그릇. 운두가 높고 중배가 조금 부르며 전이 달려 있다. ㉠ 독에서 김치를 꺼내다/새우젓을 담는 가늘고 긴 독 속에는 큰맘 먹고 사다 넣은 보리쌀이 가득했다.《김동인, 운현궁의 봄》
돌기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로프나 실 따위를 둥그렇게 포개어 감은 뭉치를 세는 단위.
돌림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차례대로 돌아 전체를 돈 횟수를 세는 단위. ㉠ 술이 서너 돌림 돌자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다.

동강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찢막하게 잘라진 것을 세는 단위. ㉫ 나무 두 동강/긴 장작을 세 동강으로 자르다.
동이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 따위를 ‘동이’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불과 칠팔 인박에 안 되는 식구지마는 한 광주리 밥과 한 동이 국, 한 동이 막걸리, 한 동이 숯을 다 먹어 버리고 말았다.《이광수, 흙》/우물의 물은 날마다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한 집에서 두 동이 이상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박화성, 한귀》
되-들이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이나 물, 술 따위를 되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한 되들이 술병/아주머니는 닷 되들이나 될까 말까 하는 곡식을 놓고 팔았다./도현이 고문을 당할 때, 한 되들이 주전자로 세 주전자나 물을 마시고 뺏어 버렸다는 말을 했더니...《손창섭, 낙서죽》
뒷-박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 따위를 ‘뒷박’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쌀 한 뒷박.
두둑01	「4」 ‘두둑’을 세는 단위. ㉫ 창순의 집에는 넓지 아니한 두어 두둑쯤 되는 빈 땅에다 누런 국화를 심어서 바야흐로 성하게 피었다.《한용운, 흑풍》
두레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둥근 쪼로 된 덩어리를 세는 단위. ㉫ 떡 한 두레/누룽지 한 두레/옛 한 두레/이웃집에서 시루떡을 한 두레 반이나 주었다.
드 럼 (drum)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기름 따위를 ‘드럼’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근간 읍내에서는 석유가 귀해 마산서 기름 한 드럼이 도착했다면 사람들이 벌 떼처럼 몰려들기 일쑤였다.《김원일, 노을》
등 급 (等級)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여러 층으로 구분한 단계를 세는 단위. ㉫ 일 등급 품질.
등 분 0 2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똑같은 분량으로 나누어진 몫을

(等分)	세는 단위. ㉠ 케이크를 칠 등분으로 자르다/천 장이 넘는 원고를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묶었다.
땀02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을 켤 바늘로 한 번 뜯 자국을 세는 단위. ㉠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하다/몇 땀만 더 뜨면 술기가 마무리된다.
때01	「8」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끼니를 세는 단위.
떨기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무더기가 된 꽃이나 풀 따위를 세는 단위. ㉠ 한 떨기 장미.
떼01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하는 무리. ㉠ 양 떼/떼를 지어 다니다/떼로 몰려다니다/그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오른쪽으로 놓인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 한 떼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다.《김승옥, 차나 한잔》
뺨기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하게 경계를 지은 논밭의 구획을 세는 단위. ㉠ 밭 한 뺨기/그는 논 몇 뺨기를 소작하고 있다.
라운드 (round)	『운동』 「1」 권투에서, 경기의 한 회(回). 「2」 골프에서, 경기자가 각 홀을 한 바퀴 도는 일.
롤(roll)	[사전에 뜻풀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마름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이엉을 엮어서 말아 놓은 단을 세는 단위. ㉠ 이엉 한 마름.
마신01 (馬身)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경마에서, 말과 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 2번 말이 불과 반 마신 차이로 3번 말을 제치고 1위로 들어왔다.
마투리	곡식의 양을 섬이나 가마로 잴 때에, 한 섬이나 한 가마가 되지 못하고 남은 양. ≒말합 「1」 . ㉠ 두 섬 마투리/작석하고 나서 마투리가 아홉 말이 남아도 무지로 쳐 버릴 뿐만 아니라...《한무숙, 돌》

매끼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식 섬이나 곡식 단 따위를 묶을 때 쓰는 새끼나 끈을 세는 단위. ≍매04[ I ] 「2」 . ¶ 베 일곱 매끼/보릿단 열두 매끼.
면05(面)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책이나 신문 따위의 지면을 세는 단위. ¶ 그는 신문 한 면 한 면을 세세히 읽어 나갔다./그 사건은 신문 몇 면에 실렸니?
모03	「9」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두부나 묵 따위를 세는 단위. ¶ 두부 한 모.
모습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길고 가느다란 물건의, 한 줌 안에 들어올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담배 한 모습/푸성귀 두 모습.
모태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안반에 놓고 한 번에 칠 만한 분량의 떡 덩이를 세는 단위. ¶ 인절미 한 모태/흰떡 한 모태 해 먹는 집이 없어, 떡 치는 소리 대신에 여기저기 오막살이에서, 널을 뛰는 소리만 덜컹덜컹하고 들린다.《심훈, 상록수》
목 0 9 (目)	「2」 『생물』 생물 분류의 한 단위. 과(科)의 위이고 강(綱)의 아래이다.
목 기 0 4 (木器)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떡이나 두부 따위를 ‘목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떡 한 목기/두부 다섯 목기.
목 판 0 1 (木板)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 따위를 ‘목판’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떡 한 목판.
무더기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를 세는 단위. ¶ 책 한 무더기/하늘은 맑았고, 한 무더기의 구름이 산 저쪽으로 흘러갔다.《문순태, 피아골》/학교가 끝났는지, 한 무더기의 아이들이 덕고개를 넘어 왔다.《한수산, 유민》
무리01	사람이나 짐승, 사물 따위가 모여서 뭉친 한 동아리. ¶ 반란군의 무리/무리를 짓다/무리를 이루다/양의 무리가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아침하기를 좋아하는 무당 판수와 소인의 무리가 세력을 잡기 시작하였다.《김동인, 젊은 그들》/그런 성씨는 팔도를 돌아다녀도 드문데 저 무리들 가운데 있을 턱이 없죠.《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묶-음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묶어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 ㉮ 종이 한 묶음/나무 두 묶음.
문 0 6 (門)	「3」 『생물』 강(綱)의 위이고 계(界)의 아래인 생물 분류 단위의 하나. 동물에서는 발생 및 체제의 모양을, 식물에서는 엽록소의 유무나 체제의 양식 따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
문 단 0 1 (文段)	『언어』 =단락01 「2」 . ㉮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문단을 나누다.
문 장 0 2 (文章)	「3」 『언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글의 경우,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 ≡문02(文) 「2」 · 월01·통사06(統辭). ㉮ 서툰 문장/퇴고를 하면서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고쳤다./방준표의 말엔 군더더기가 한 군데도 없었다. 원고는 물론이고 메모도 없이 한 말인데도 빈틈없이 짜인 문장과 같았다.《이병주, 지리산》
몽치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데 몽치거나 말거나 감은 덩이를 세는 단위. ㉮ 봉투 한 몽치/주먹밥 두 몽치.
바가지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 따위의 액체나 곡식을 ‘바가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쌀 두 바가지/물 한 바가지/재수가 좋으면 손가락만 한 고구마 이삭을 한 바가지나 모을 수도 있었다.《이문열, 영웅시대》
바구니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과일 한 바구니.
바리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여))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p>㉮ 나무 한 바리/콩 두 바리/나무장수 한 사람은 장작 수십 바리를 보내어 밤을 새울 때 불을 피우라고 하였고...《문순태, 타오르는 강》</p>
박 스 (box)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상자09 「2」 . ‘상자09’, ‘갑05’으로 순화.</p> <p>㉮ 라면 한 박스/음료수 세 박스.</p>
박자 (拍子)	<p>「2」 『음악』 음악적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 보통 마디와 일치한다. ≡박09(拍) 「2」 .</p> <p>㉮ 박자가 느리다/박자가 빠르다/박자를 맞추다/박자에 맞춰 춤을 추다/한 박자 쉬고 노래를 시작했다.</p>
반08(班)	<p>「4」 학년을 학급으로 나눈 단위.</p> <p>㉮ 3학년 1반/반 대항 농구 시합/그 학생은 반에서 항상 1등을 한다.</p> <p>「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학급을 세는 단위.</p> <p>㉮ 일 학년을 세 반으로 나누다.</p>
발01	<p>「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걸음을 세는 단위.</p> <p>㉮ 한 발/두 발/한 발 뒤로 물러서다.</p>
발-자국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발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p> <p>㉮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p>
방울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고 둥근 액체 덩어리를 세는 단위.</p> <p>㉮ 물 한 방울/참기름 두 방울/비가 한두 방울 떨어진다./아내의 코끝에 맺힌 한 방울의 땀에 태양 광선이 집결해서 굴절하여 진주처럼 빛났다.《안정효, 하얀 전쟁》/나는 병 모가지를 기울여, 술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았다.《이제하, 소경 눈 뜨다》</p>
발01	<p>「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장기판·고누판·윳판·바둑판 따위에서, 말이 머무르는 자리를 세는 단위.</p> <p>㉮ 세 발을 가다.</p>
배01	<p>「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는 횟수를 세는 단위.</p> <p>㉮ 그 돼지는 1년에 두 배나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마다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p>
배미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구획진 논을 세는 단위.</p>

	<p>¶ 열두 배미 논을 한 배미로 만들어 농지를 개량하니 농사짓기가 편해졌다./우리 집은 겨우 두 마지기짜리 논 한 배미로 먹고살았다.</p>
병05(瓶)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액체나 가루 따위를 ‘병’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물 한 병/콜라 네 병/주량이 소주 세 병이다.</p>
보 - 따리 (褌--)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보자기에 꾸린 몽치를 세는 단위.</p> <p>¶ 헌책 한 보따리.</p>
보시기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김치나 깍두기를 ‘보시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나박김치 한 보시기.</p>
봉06(封)	<p>「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봉지 따위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과자 세 봉/약 한 봉.</p>
봉 지 0 6 (封紙)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이나 가루 따위를 ‘봉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과자 한 봉지/두꺼비는 사탕 몇 봉지, 계란 서너 개, 은단 한 갑, 사과와 빵을 한 보따리 꾸려서 내준다.《황석영, 어둠의 자식들》/아주머니와 같이 먹게 서너 봉지 끓이세요.《문순태, 피아골》/절차를 밟아 의사 선생님을 뵈옵고 약 한 봉지를 얻어 들고나왔다.《김성한, 김가성론》</p>
부 류 0 2 (部類)	<p>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p> <p>¶ 닭과 오리는 같은 부류에 속한다./육지에서 사는 생물을 부류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거리에서 거지를 보게 되면 나는 저들과는 부류가 다르다고 생각했었다.《유재용, 성역》/술 마시기와 놀음하기와 남을 비평하는 것으로 일삼는 부류도 많았다.《홍효민, 신라 통일》/한마디로 생김새로 보나, 차림새로 보나, 부도덕을 상습적으로 즐기고 다니는 그런 부류는 절대 아니었다.《서영은, 술래야 술래야》</p>
부 부 0 2 (夫婦)	<p>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내외02(内外) 「3」 · 부처02(夫妻) · 안팎 「3」 · 이인01(二人) 「2」 · 항배01(伉配).</p> <p>¶ 부부 관계/부부 싸움/맞벌이 부부/그들은 동네에서 사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이다.</p>
부 분 0 1	<p>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p>

(部分)	¶ 찍은 부분을 잘라 내다/행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이 글은 마지막 부분에 요지가 들어 있다./그의 진술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부 족 0 5 (部族)	「1」 『사회』 같은 조상·언어·종교 등을 가진, 원시 사회나 미개 사회의 구성 단위가 되는 지역적 생활 공동체. ¶ 부족 공동체/부족 통일/부족 단위로 생활하다/부족 사이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분 과 0 3 (分課)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몇 개의 과로 나눔. 또는 그렇게 나누어진 과. ¶ 분과 위원회/이번 학술회의는 다섯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분 단 0 2 (分團)	「1」 하나의 단체를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눔. 또는 그 집단. ¶ 분단을 두다/나는 우리나라 교육 전 분야 중의 일 분단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니만큼 그 분단을 관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질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오.《최상규, 신지 군》 「2」 『교육』 한 학급을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는 일. 또는 그 단위.
분 대 0 3 (分隊)	『군사』 「1」 보병 부대 편성의 가장 작은 단위.
분 절 - 음 (分節音)	『언어』 음절을 더 쪼개어 나오는, 음절보다 한 단계 작은 언어학적 단위. 자음과 모음을 이르는데, 음절 ‘말’은 ‘ㄹ’, ‘ㅏ’, ‘ㄷ’로 나눌 수 있다.
블 록 02(block )	「2」 시가지, 주거 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역. ‘구역04’으로 순화. ¶ 여기서 다섯 블록을 더 걸어가면 우체국이 나옵니다./신시장에 비해 구 시장 거리는 수많은 골목과 샛길이 사방으로 뚫렸고 한 블록 건너에는 싸구려 매춘가들이 달라붙어 있었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4」 『컴퓨터』 하나의 단위로서 다룰 수 있는 문자, 워드, 레코드의 집합. 이것을 단위로 하여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진다.
뿌리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뿌리’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수와 함께 쓴다. ¶ 인삼 한 뿌리/도라지 열 뿌리/연근 두 뿌리.
사 단 0 7 (師團)	『군사』 군대 편성 단위의 하나. 군단(軍團)의 아래, 연대(聯隊) 또는 여단(旅團)의 위이다. 여러 병과(兵科)가 모여 있으며 이를 지휘하는 사령부

	<p>가 있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p> <p>¶ 자네들의 위에는 자네들을 지휘, 통솔하는 대대와 연대가 있고, 다시 그 대대와 연대 위에는 사단과 군과 국가가 있다.《홍성원, 육이오》</p>
사람	<p>「10」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 주로 고유어 수와 함께 쓴다.</p> <p>¶ 한 사람/여러 사람/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동해에 다녀왔다.</p>
사리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수, 새끼, 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p> <p>¶ 국수 한 사리/새끼 두 사리/점심에 냉면 두 사리를 더 먹었다.</p>
사리02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모’나 ‘옷’을 던진 횟수를 세는 단위.</p> <p>¶ 모 세 사리를 치다.</p>
사발01 (沙鉢)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밥을 ‘사발’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밥 한 사발/저녁을 물리자 주모는 텁텁한 밀술을 두 사발이나 떠 들여 넣어 주었다.《문순태, 타오르는 강》</p>
삼태기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삼태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옛말에 이르기를 한 삼태기의 흙도 여럿이 모이면 태산을 이루고...《이문열, 황제를 위하여》</p>
삽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이나 모래 따위를 ‘삽’에 퍼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시멘트 두 삽/흙 한 삽/그는 부드러운 흙을 몇 삽 조심스럽게 뿌렸다.《이원규, 훈장과 굴레》</p>
상03(床)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상’에 음식을 그득하게 차린 것을 세는 단위.</p> <p>¶ 계속이 아침은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 보낼게.《심훈, 영원의 미소》</p>
상자08 (箱子)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박스 「2」.</p> <p>¶ 라면 한 상자/사과 세 상자/음료수 몇 상자만 옮겨 주시오.</p>
셋-수(-數)	<p>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인 새의 수.</p>

선거 - 구 (選舉區)	『법률』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 대선거구·중선거구·소선거구의 구별이 있다.
성상 0 6 (星霜)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햇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위. ¶ 몇백 성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지 제멋대로 마구 들어서 있는 나무 사이에...《장용학, 역성 서설》/고국을 떠나 열두 성상을 보낸 이동진의 모습에는 황혼이 깃들었다.《박경리, 토지》
세 02(世)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단위. 기(紀)보다 작은 단위로 갱신세, 최신세, 충적세 따위가 있다.
세기 0 3 (世紀)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백 년 동안을 세는 단위. ¶ 기원전 3세기/21세기의 국가적 과업을 이루다.
세 이 브 (save)	『운동』 야구에서, 선발 투수의 승리를 지켜 냄. 또는 그런 경기의 수를 세는 단위. ¶ 9회에 등장한 마무리 투수가 세이브에 성공하며 경기를 끝냈다.
세 트 (set)	「1」 도구나 가구 따위의 한 벌. ¶ 선물 세트/건축 세트/커피 세트. 「4」 『운동』 테니스·배구·탁구 따위에서, 경기의 한 판을 이르는 말. ‘판01’으로 순화.
속 0 5 (屬)	「2」 『생물』 생물 분류의 한 단위. 과(科)와 종(種)의 사이에 있다.
송아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꽃이나 열매 따위가 잘게 모여 달려 있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 ¶ 포도 한 송아리/꽃 세 송아리.
송이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꼭지에 달린 꽃이나 열매 따위를 세는 단위. ¶ 장미 열 송이/포도 한 송이/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를 꽂아 드렸다./화단이라고 해도 말만 화단이지 담벼락을 따라 꽃 몇 송이 기르고 있는 공터였다.《최인호, 지구인》
쇄02(刷)	『출판』 ((한자어 수 뒤에 쓰여)) 같은 책의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 ¶ 1판 3쇄.
수-동이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광석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37.5kg에 해당한다.
순 0 3 (巡)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활을 쏘 때에 각 사람이 화살을 다섯 대까지 쏘는 한 바퀴. ㉮ 첫 번째 순이 끝나다/두 순을 쏜다.
순 배 (巡 杯)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순배’의 분량을 세는 단위. ㉮ 술잔이 두어 순배 오갔다.《송기숙, 녹두 장군》/술이 서너 순배 돌고 나자 웬만큼들 취하는 모양이었다.《오유권, 대지의 학대》/술이 몇 순배 돌아가지도 않아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지만, 그는 사양하는 법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조해일, 펜드롱 따또》
술-가락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밥 따위의 음식물을 ‘술가락’로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두어 술가락/그는 밥을 몇 술가락 뜨다가 밥상을 물렸다.
술-갈	「2」 ‘술가락」의 준말. ㉮ 밥 한 술갈/그는 국만 몇 술갈 뜨다 말았다.
송어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꽃이나 열매 따위가 곱게 모여 달린 덩어리를 세는 단위. ㉮ 꽃 세 송어리/포도 세 송어리.
스 텡 01(step)	볼링 따위의 운동 경기나 댄스에서, 동작의 단위가 되는 발과 몸의 움직임. ㉮ 스텝을 밟다/스텝을 배우다/그들은 조용한 블루스곡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스텝을 옮겨 나갔다.
스 폰 (spoon)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물을 ‘스푼’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설탕 한 스푼/밀가루 다섯 스푼.
시 가 0 5 (時價)	『음악』 음표 또는 쉼표로 나타낸 길이. 1박을 단위로 하여 재는데, 1박의 길이는 1박의 빠르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하지 않다.
시 간 0 4 (時間)	「6」 『물리』 지구의 자전 주기를 재서 얻은 단위. 이론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간에서 독립한 변수 곧 절대 시간으로 다루어졌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양자가 물리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차원의 시공 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시 절 0 2 (詩節)	『문학』 시에서, 운율이나 억양 따위의 특징에 의하여 구분한 몇 개의 시행들로 이루어진 단위.
식 구 0 1	「1」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食口)	¶ 그는 딸린 식구가 많다./선생님은 철수네 식구가 가난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일주일 전만 해도 다섯 식구가 그런대로 단란하게 살던 자기 집에 설핏 눈이 갔다.《김원일, 불의 제전》
식 기 0 1 (食器)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식기'에 담은 음식의 분량을 세는 단위. ¶ 밥 두 식기/그는 차례를 기다려 약수를 한 식기 마셨다.
신 14(scene )	「1」 영화를 구성하는 극적 단위의 하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동이나 대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 다음 신을 찍기 위해 장소를 이동했다. 「2」 연극 또는 영화의 순간 광경. '장면04'으로 순화. ¶ 키스 신/마지막 신의 촬영을 끝냈다.
쌈지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담배나 바늘 따위를 '쌈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담배 한 쌈지/바늘 한 쌈지/부시 한 쌈지.
쌍02(雙)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둘을 하나로 묶어 세는 단위. ¶ 신혼부부 한 쌍/비둘기 한 쌍.
악 단 0 2 (樂段)	『음악』 선율의 흐름이 리듬 위에서 끊어지는 곳. 또는 그런 단위. 보통 큰악절을 가리키며, 여덟 개의 센박을 지니는 것이 기본 꼴이다.
악 장 0 4 (樂章)	「2」 『음악』 소나타·교향곡·협주곡 따위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소곡(小曲)들이 모여서 큰 악곡이 되는 경우 그 하나하나의 소곡. ≒파트(part) 「4」 . ¶ 베토벤 교향곡 제삼 악장/이 피아노 소나타는 세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 절 (樂 節)	『음악』 두 개의 악구(樂句)로 이루어져 하나의 악상(樂想)을 나타내는 단위. 대개 여덟 소절이 한 악절을 이룬다.
알갱이02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열매나 곡식 따위의 낱알을 세는 단위. ¶ 밥알 한 알갱이/콩자반 여남은 알갱이/죽만 해도 그렇지, 너 쌀 몇 알갱이 넣었니? 응, 호박 국 한 술에다 쌀 한 숟갈이나 떠 넣었니?《안희남, 농민의 비애》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고 둥그랗고 단단한 물질을 세



	<p>는 단위.</p> <p>『소지품 있는 거 마룻바닥에 다 내려놔. 먼지 한 알갱이라도 다 털어놔.』 《황석영, 어둠의 자식들》</p>
양 - 재 기 (洋--)	<p>안팎에 법랑을 올린 그릇. 양은이나 알루미늄 따위로 만든 그릇을 포함하기도 한다.</p> <p>『막걸리를 양재기에 떠서 마시다/마을 사람들이 버리기 아까워 가져다준 이 빠진 사기그릇들과 찌그러진 양재기 같은 것들도 혜화동 시절의 삼 층 장롱이나 신선로 냄비 못지않게 애착이 갔다.』《이문열, 영웅시대》/취사실에서 솥을 얻어다 구멍 뚫린 깡통에 불을 지피고 양재기에 물을 끓이도록 했다.《황석영, 한 씨 연대기》</p>
어 절 (語節)	『언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 ≡말마디 「2」·문절(文節).
억 양 - 구 (抑揚句)	『언어』 억양에 의하여 묶어지는 소리 단위. 일반적으로 문장을 그 단위로 한다.
연19(聯)	『문학』 「2」 시에서, 몇 행을 한 단위로 묶어서 이르는 말. 서양시는 압운이나 어세(語勢)에 의하여 연 구분을 하지만, 우리나라 시는 통일된 하나의 시상(詩想)을 단위로 하여 연 구분을 한다.
열04(列)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이나 물건이 죽 벌여 늘어선 줄을 세는 단위.</p> <p>『이 열 종대로 집합!/모인 사람을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세어 보니 삼십 열로 총 60명이다.』</p>
오라기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 형짚, 종이, 새끼 따위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세는 단위.</p> <p>『실 한 오라기/복스럽고 귀티 나게 큰 컷밥 밑으로는 잔머리칼 몇 오라기가 흘러내려 있었다.』《한승원, 해일》</p>
오리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 나무, 대 따위의 가늘고 긴 조각을 세는 단위.</p> <p>『맑은 못 속엔 아무리 찾아도 필재의 머리털이란 한 오리도 보이지 않고 퍼런 개구리밥만이 여기저기 떠 흐를 뿐이다.』《정한숙, 고가》</p>
울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이나 줄의 가닥을 세는 단위.</p> <p>『세 울로 튼튼하게 줄을 꼬아라./질린 듯 상기되어 있는 얼굴 위로 머리』</p>

	카락 몇 올이 흘러내려 있었다.《조정래, 태백산맥》
올-새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 이 베는 몇 올새나 될까?
운 율 - 구 (韻律句)	『언어』 문장 안에서 어절 또는 구절에 해당하는 발음 단위.
음 보 0 1 (音步)	『문학』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시에 있어서 운율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세는 단위.
음 소 0 2 (音素)	『언어』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ㄴ날소리.
음 절 (音節)	「1」 『언어』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 몇 개의 음소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 ㄴ날내·소리마디.
이랑01	「4」 ‘이랑’을 세는 단위. ¶ 한 이랑/그래도 감자밭 이랑은 까마득하고 그녀는 아직 반 이랑도 나아가지 못했다.《홍성암, 큰물로 가는 큰 고기》
인02(人)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 한자어 수와 함께 쓴다. ¶ 오 인의 가족.
입	「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번에 먹을 만한 음식물의 분량을 세는 단위. ¶ 한 입만 먹어 보자./사과를 두세 입 베어 먹다.
잎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이파리를 세는 단위. ¶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다.
자11(字)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글자를 세는 단위. ¶ 이름 석 자/글자를 한 자 두 자 배우다.
자락01	「6」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곡조 「2」 . ¶ 조출한 소리라도 한 자락 펼쳐 보고 싶은 기분이었다.《김성동, 연꽃과 진흙》
자래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쌍으로 된 생선의 알상자를 세는 단위.
자루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자루’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세 자루의 옥수수.

자루02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기름하게 생긴 필기도구나 연장, 무기 따위를 세는 단위.</p> <p>『연필 두 자루/총 한 자루/창 한 자루/호미 열 자루를 준비해라./그들의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도 무기는 없고 세 자루의 도끼와 배낭이 보였다.《이원규, 훈장과 굴레》/그는 가죽 주머니에서 칼을 한 자루 꺼내어 그리로 건주어 보았다.《김동인, 젊은 그들》</p>
자릿－수 (--數)	<p>「2」 자리의 개수. ≍자리01 「7」 .</p> <p>『내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를 전망이다./그는 10년 연속 두 자릿수 흑련 기록을 작성했다./접수가 시작되어 번호를 받고 보니 처음으로 두 자릿수였다.《박완서, 도시의 흉년》</p>
잔02(盞)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료나 술을 ‘잔’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우유 한 잔/커피 두 잔/술 석 잔.</p>
잠01	<p>「4」 『농업』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누에가 허물을 벗기 전에 뽕잎을 먹지 않고 잠시 쉬는 횟수를 세는 단위.</p>
장20(章)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글의 내용을 구분한 것을 세는 단위.</p> <p>『책의 내용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p>
장면 0 4 (場面)	<p>「2」 영화, 연극, 문학 작품 따위의 한 정경(情景). 같은 인물이 동일한 공간 안에서 벌이는 사건의 광경을 이른다.</p> <p>『섬세한 장면 묘사/전투 장면을 찍다/영화의 첫 장면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시작한다./다시 장면이 바뀌어 무대는 거실로 변한다.</p>
접시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이나 요리를 ‘접시’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떡 한 접시/과일 두 접시.</p>
젓－가락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을 ‘젓가락’로 집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p>
정 신 0 9 (艇身)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보트와 보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보트 경주를 할 때 쓴다. 1정신은 보트 전체의 길이이다.</p> <p>『한 정신의 차이로 이겼다.</p>
조14(組)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p>

	<p>세는 단위.</p> <p>¶ 토론을 하기 위하여 한 반을 다섯 조로 나누었다.</p>
조각01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떼어 내거나 떨어져 나온 부분을 세는 단위.</p> <p>¶ 얼음 한 조각/케이크 두 조각/그는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을 뜯어 입 안에 넣었다.《조세희, 칼날》</p>
조 목 0 1 (條目)	<p>「1」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말의 조나 항목. ≡ 절목03(節目)·항목(項目).</p> <p>¶ 이 규정은 다섯 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다./귀 공사가 철회하겠다는 개혁안 이십 조목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기다려 보시오.《유주현, 대한 제국》</p> <p>「2」 하나의 일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의 부분이나 갈래.</p> <p>¶ 앞으로도 당분간은 만나기 어렵게 된 이유를 몇 조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밝히고 있었다.《윤홍길, 목시의 바다》/군수 민영숙과 이방 김원택이가 누탈한 조목을 낱말이 적어 방으로 붙였다.《송기숙, 녹두 장군》</p>
조 사 - 구 (調查區)	<p>통계 조사를 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전체 단위 및 전체 지역을 적당히 구획한 단위 수와 면적. 조사의 기초 단위가 된다.</p>
종09(種)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종류를 세는 단위.</p> <p>¶ 서너 종의 견본/다섯 종의 서적.</p>
종구라기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이나 술 따위의 액체를 ‘종구라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막걸리 한 종구라기만 퍼 주세요.</p>
종 류 (種 類)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갈래의 수를 세는 단위.</p> <p>¶ 서너 종류/이 옷은 부드러운 흰색의 융과 면, 두 종류로 만들었다.</p>
종 발 0 2 (鍾鉢)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식을 ‘종발’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백부께서는 혼란된 의식 가운데서도 이 약물을 아마 한 종발이나 잡수셨던가 봅시다.《이상, 약수》</p>
종지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종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간장 세 종지/큰상에는 초간장 두 종지를 놓았다.</p>
주22(株)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권이나 주식을 세는 단위.</p> <p>¶ 국민주 50주를 샀다.</p>

주먹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손에 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p> <p>『 사탕을 한 주먹 쥐다/나뭇짐에 한 주먹씩 따 없어 가지고 돌아오는 머루가 벌써 맛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한수산, 유민》』</p>
죽02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옷, 그릇 따위의 열 벌을 묶어 세는 단위.</p> <p>『 버선 한 죽/접시 두 죽.』</p>
줄01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을 세는 단위.</p> <p>『 달걀 한 줄/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다.』</p> <p>「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글을 가로나 세로로 벌인 것을 세는 단위. ≒행01 「2」 .</p> <p>『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 보아라./세 줄씩 읽고 돌아가며 감상을 이야기해 보자.』</p>
줄기01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잇대어 뻗어 나가는 산, 강, 물 따위의 갈래를 세는 단위.</p> <p>『 두 줄기로 뻗은 산/두 줄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다/강물이 크게 두 줄기로 갈렸다.』</p> <p>「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불, 빛, 연기 따위가 길게 뻗어 나가는 것을 세는 단위.</p> <p>『 한 줄기 광명의 빛/한 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다/하늘이 먹구름에 뒤덮인 채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 햇살 한 줄기 비치지 않았다.《문순태, 타오르는 강》/금방 한 줄기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어느 첫여름의 해 질 녘...《최인훈, 회색인》』</p>
줄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먹 「3」 ’의 준말.</p> <p>『 한 줌의 흙/보리밥 한 줌/마늘 한 줌/환약 두어 줌.』</p>
중 대 0 3 (中隊)	<p>「1」 『군사』 군대 편성 단위의 하나. 소대의 위, 대대의 아래이다. 대개 4개 소대로 이루어진다.</p>
지-계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이나 땀감 따위를 ‘지게’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지게 해 왔다./땀나무 하나 들어오고 물 한 지게』</p>

	긴게 하는 것까지도 더덜이가 없었다.《송기숙, 녹두 장군》
지 역 - 구 (地域區)	『법률』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하여 설정된 선거구.
직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학질 따위의 병이 발작하는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 ¶ 학질을 세 직째 앓는다.
집01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한 사람이 한 번 지어 나를 만한 분량의 꾸러미를 세는 단위. ¶ 나무 한 집을 지어 날랐다./지서 쪽 길목에서는 나뭇짐 장수들이 지게마다 술가리...한 짐씩 지고 올라오고 있었다.《김원일, 불의 제전》
집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수효를 세는 단위. ¶ 세 집 건너 외가가 있다. 「6」 『운동』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바둑에서, 자기 돌로 에워싸 상대방 돌이 들어올 수 없게 한 빈 자리를 세는 단위. ¶ 한 집 차이로 승부가 갈라졌다.
집 단 (集 團)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 ¶ 예술가 집단/도시 빈민 집단/집단 시위/집단을 이루다/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다/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다.
짝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둘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의 각각을 세는 단위. ¶ 신발 한 짝/젓가락 두 짝.
쪽02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책이나 장부 따위의 면을 세는 단위. ≒페이지 「2」 . ¶ 몇 쪽까지 읽어야 하니?/아직 이백 쪽을 더 읽어야 한다.
차06(車)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화물을 ‘차’에 실어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모래 세 차/한 차 분량의 배추.
차 례 0 2 (次例)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이 일어나는 횟수를 세는 단위. ¶ 그는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소나기가 몇 차례 쏟아졌다./할아버지께서는 암으로 수술을 다섯 차례나 받으셨다.
차 선 0 3	「2」 ‘차로02 「2」 ’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車線)	¶ 차선 감소/차선 준수/차선을 바꾸다/차선을 변경하다/왕복 사 차선/도로 보수를 위하여 한 차선을 막고 있다.
차 시 0 1 (次時)	「2」 ((한자어 수 뒤에 쓰여)) ‘차시8)’을 세는 단위. ¶ 일 차시/총 12차시.
차 원 0 2 (次元)	「1」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 ¶ 차원이 낮은 영화/국가 차원에서 조사할 문제/한 차원 높은 대화/차원이 다른 의견/차원을 높이다/그는 신화를 문학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다./정부는 탈주자들의 망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2」 『물리』 물리량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또는 물리량의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의 관계. 「3」 『수학』 기하학적 도형, 물체, 공간 따위의 한 점의 위치를 말하는 데에 필요한 실수의 최소 개수.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이지만 n차원이나 무한 차원의 공간도 생각할 수 있다.
챕 터 (chapter)	[사전에 뜻풀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책01(冊)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옛 서적이나 여러 장의 종이를 하나로 묶은 것을 세는 단위. ¶ 《목민심서》는 48권 16책으로 되어 있다.
처02(處)	「1」 중앙 행정 관서의 분류 단위의 하나. 「2」 육군의 사단급 이상 사령부의 참모 부서를 분류하는 단위. ¶ 사령관은 각 처의 참모들을 불러서 작전 회의를 열었다. 「3」 어떤 조직에서 일정한 사무를 맡아보는 부서를 분류하는 단위의 하나.
초롱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석유나 물 따위의 액체를 ‘초롱’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물 한 초롱/준비해 둔 석유가 반 초롱쯤 남아 있었다.《김성동, 만다라》
축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난초의 포기를 세는 단위. ¶ 그 사내는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동양란 한 축을 갈라 주었다.
층02(層)	「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위로 포개어 지은 건물에서, 같은 높이의 켜를 세는 단위.

	<p>『 지상 10층 건물/그 건물에는 지하 3층에 주차장이 있다./그는 운동 삼아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23층짜리 호텔이다.</p> <p>「6」 『지리』 지층을 구분하는 단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층은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암석으로 이루어지며 지질도에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p> <p>「7」 『지리』 퇴적물 알갱이의 크기·색·성분 따위가 서로 달라서 위아래의 암석과 구분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층. 두께는 수 mm에서 수 미터에 이른다.</p>
칸01	「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집의 칸살의 수효를 세는 단위.
캔(can)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주로 음식물을 ‘캔’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맥주 다섯 캔만 주세요.</p>
커플(couple)	<p>짝이 되는 남녀 한 쌍. ‘부부03’, ‘쌍02’, ‘짝01’으로 순화.</p> <p>『 환상의 복식 커플/다정한 커플/건너편 좌석에 남녀 대학생인 듯한 커플이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p>
컵(cup)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음료 따위를 ‘컵’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p> <p>『 맥주 한 컵/물 한 컵/찬물을 두어 컵 들이켜고 나니까 정신이 나는 것 같았다.</p>
켜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포개어진 물건 하나하나의 층을 세는 단위.</p> <p>『 창고에는 옷감들이 여러 켜로 쌓여 있었다.</p>
코02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뜨개질할 때 눈마다 생겨나는 매듭을 세는 단위.</p> <p>『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아내는 자신이 뜬 목도리를 두른 남편의 모습을 그리면서 행복해했다.</p>
타래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사리어 뭉쳐 놓은 실이나 노끈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p> <p>『 울가울에 쓸 가마니를 짜려면 새끼 몇 타래로는 어렵었다./상판은 한참 동안 색실을 요모조모 구경하다가 일곱 색의 색실 한 타래를 사고 돈을 건</p>



	냈다.《김원일, 불의 제전》
탕 기 0 1 (湯器)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찌개 따위를 ‘탕기’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국 한 탕기/미음을 한 탕기 비우다.
텍 스 트 (text)	「2」 『언어』 문장보다 더 큰 문법 단위.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글을 이른다.
토리01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실뭉당이를 세는 단위. ¶ 명주실 두 토리.
토막01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말, 글, 생각, 기간 따위에서 잘려지거나 떼어 낸 한 부분을 세는 단위. ¶ 갈치 세 토막/이야기 한 토막/두 토막이 난 통나무.
통02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배추나 박 따위를 세는 단위. ¶ 수박 한 통/친구라고 해서 양배추 한 통 싸게 주는 법 없이 또박또박 시장 금새 다 받아.《황순원, 신들의 주사위》
통03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광목이나 옥양목, 당목 따위를 일정한 크기로 끊어 놓은 것을 세는 단위. ¶ 뱃삯은 짐작대로 호되어 옥양목 열댓 통 값인 백 원이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통09(桶)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통’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 막걸리 한 통/통조림도 몇 통 사 들었다. 산모와 아이들에게 줄 과일과 오징어 발도 사 가져왔다.《이정환, 셋강》
통 화 0 4 (通話)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통화한 횟수를 세는 말. ¶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있을까요?/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을 괜히 어렵게 생각하였다.
통구리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크기로 묶은 덩어리를 세는 단위. ¶ 종이 한 통구리/새끼 두 통구리.
트 릭 (truck)	『교통』 =화물 자동차. ¶ 트럭 운전자/트럭을 몰다/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삿짐을 트럭 두 대에 나누어 실었다./먼 곳으로 떠나는 대형 화물 트럭들은 벌써 선선한 새벽에 출발한 뒤였으며...《황석영, 무기의 그늘》

트랙02	『정보·통신』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부분. 자기 테이프에서는 테이프 주행 방향에 병렬로 7~9개의 트랙이 있으며, 자기 디스크에서는 원판 위에 동심원 모양으로 트랙이 있다.
틀	「7」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가마, 상여 따위와 기계를 세는 단위. ㉮ 가마 한 틀/상여 두 틀/처음에는 손이 둔해 하룻저녁 한 틀에서 두 닢도 어려웠으나...《송기숙, 자랏골의 비가》
팀(team)	「1」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동아리의 사람. ㉮ 국가 대표 팀/같은 팀에 속하다/팀을 이루다/출전한 5개 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우리 연구소에서는 팀장 한 명과 팀원 여섯 명이 한 팀을 이룬다./발돋움을 하고 서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내게로 들것을 어깨 위에 댄 미군 구명조 일 개 팀이 다가왔다.《조해일, 아메리카》 「2」 『운동』 운동 경기의 단체. 곧 두 조로 나누어 행하는 경기의 한 조를 이룬다. ‘조15’, ‘편04’로 순화. ㉮ 친선 시합이 무려 수십 회나 치러져 나가는 동안 두 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나가고 있었다.《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파트 (part)	「1」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 ‘부분01’, ‘일부02’로 순화. ㉮ 그들은 어느새 세 파트로 나누어져 각자 큰 소리로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다.《홍성원, 육이오》 「4」 『음악』 =악장04(樂章) 「2」 .
판06(板)	「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달걀을 묶어 세는 단위. 한 판은 달걀 삼십 개를 이룬다. ㉮ 달걀 두 판. 「5」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조각을 내어 먹는 음식을 자르기 전의 큰 덩어리로 묶어 세는 단위. ㉮ 피자 두 판/두부 한 판/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판을 들고 들어왔다.
판08(版)	「5」 ((한자어 수 뒤에 쓰여)) 책을 개정하거나 증보하여 출간한 횟수를 세는 단위. 1판은 초판, 2판은 중판 또는 재판이라고도 한다. ㉮ 삼 판/4판 3쇄.
패03(牌)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무리를 세는 단위.

	<p>¶ 작은 오해 때문에 우리는 두 패로 갈렸다./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길을 떠났다./또 한 패는 부엌에서 떡을 찌느라고 법석이다.《이무영, 농민》</p>
페 이 지 (page)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쪽02 「2」 . ‘쪽02’, ‘면05’으로 순화.</p> <p>¶ 두 페이지/이 책은 무려 900페이지에 달한다.</p>
편03(片)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저울에 달아 파는 인삼의 낱개를 세는 단위.</p> <p>¶ 인삼 열 편.</p>
편04(便)	<p>여러 패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하나의 쪽.</p> <p>¶ 편을 가르다/약자의 편에 서다/우리 편 이겨라./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갈라졌다.</p>
포03(包)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양으로 찐 인삼을 세는 단위.</p> <p>¶ 인삼 두 포.</p>
포04(包)	<p>((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배자루’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포대.</p>
포기01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뿌리를 단위로 한 초목의 낱개를 세는 단위.</p> <p>¶ 풀 한 포기/배추 스무 포기로 김장을 하다/바위 아래는 몇 포기 난초가 노란 꽃을 벌리고 있다.《김동인, 광화사》</p>
포 대 0 3 (布袋)	<p>「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물건을 ‘포대’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포06(包).</p>
폭04(幅)	<p>「4」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종이, 널, 천 따위의 조각 또는 그림, 족자 따위를 세는 단위.</p> <p>¶ 열두 폭 치마/한 폭의 동양화/열두 폭 병풍/손천민은 그의 앞으로 나가 기치 한 폭을 그에게 바쳤다.《유주현, 대한 제국》/품에서 큼직한 광목 한 폭을 꺼내 그것을 땅에 펴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이제하, 초식》</p>
표04(票)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선거를 할 때에, 유권자가 투표한 쪽지를 세는 단위.</p> <p>¶ 그는 백만 표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하였다./일만 칠천 표를 무소속 두 사람이 꼭 같이 나눈다고 하더라도...《채만식, 돼지》</p>
품02	<p>「3」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어떤 일에 필요한 일꾼을 세는 단</p>

	<p>위.</p> <p>『 난 이백 명 품을 잡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림없겠는데!《이무영, 농민》/ 그 집은 두 손포가 있으니까 설마 한 품을 얻을 수 있겠지!《이기영, 고향 》</p>
프 레 임 (frame)	[사전에 뜻풀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품 종 ( 品 種)	<p>「3」 『생물』 생물 분류학상, 종(種)의 하위 단위. 아종, 변종 또는 식물에 서 유전적 개량을 통하여 생긴 새로운 개체군을 이른다.</p>
학 급 ( 學 級)	<p>『교육』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성되는 단식 학급이 보통이지만, 소규모 학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는 두 학년 이상에 걸치는 복식 학급을 편성하는 수도 있다. ≡학반01 (學班).</p> <p>『 학급 활동/학급을 편성하다/이 학교는 한 학년에 다섯 학급씩 있다./영수 는 자기 학급에서 키가 제일 크다.</p>
학 기 0 2 (學期)	<p>『교육』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 보통 3~8월 과 9~2월의 두 학기로 나눈다.</p> <p>『 3학년 2학기/새 학기를 시작하다/우리 학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소풍을 간다.</p>
학 년 ( 學 年)	<p>『교육』 「2」 수업하는 과목의 정도에 따라 일 년을 단위로 구분한 학교 교육의 단계.</p> <p>『 이 학년/육 학년이 되다/그 아이는 나보다 한 학년 아래이다./택의 아이 는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나는 주로 삼 학년을 맡아 미술을 지도했다.</p>
학 점 ( 學 點)	<p>『교육』</p> <p>「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생의 학과 이수를 계산하는 단위.</p> <p>『 학점을 따다/학점을 취득하다/우리 학교는 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한 다./이번 학기에는 모두 이십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p> <p>「2」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과에 대한 성적을 표시하는 단위. 보통 A 에서 F까지 있으며, D 이상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다.</p> <p>『 A 학점/이 과목은 F 학점을 받아서 다음 학기에 재수강해야 한다.</p>
항05(項)	<p>「1」 내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단위의 하나. 법률이나 문장 따 위의 각개의 항목을 구분할 때 쓴다.</p>

	¶ 법률 제5항/공동 선언문은 모두 10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 =조목01(條目) 「1」.
항 목 (項 目)	¶ 이 법안은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계획안의 다섯 번째 항목은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기로 했다.
행01(行)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줄01[ I ] 「5」. ¶ 두 행을 건너뛰다/50쪽 3행부터 읽어 보자. 「3」 『문학』 한시(漢詩)의 체의 하나. 악부(樂府)에서 나온 것으로 사물이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형식이다.
형 태 - 소 (形態素)	『언어』 「1」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의 ‘이야기’, ‘책’ 따위이다.
호 동 0 3 (號棟)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호수에 따라 나누는 집채를 세는 단위.
호 봉 0 2 (號俵)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급여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 ¶ 3급 2호봉.
화 소 0 3 (畫素)	『전기』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최소의 단위 면적. 영상 전체의 화소 총수는 화질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 900만 화소 디지털카메라.
환 0 4 (丸)	『한의학』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환약의 개수를 세는 말.
획02(劃)	「2」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글씨나 그림에서, 붓 따위를 한 번 그은 줄이나 점을 세는 단위. ¶ 한 획 두 획 정성껏 쓰다.
획 지 (劃 地)	도시의 건축용지를 갈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7) 「1」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 따위에 있는 계단식으로 된 좁고 긴 논배미. ≒논다랑이.

8) 「1」 단위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 내용 전체를 시간별로 쪼갠 것.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ying use of Korean nouns

Satta Giacom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the classifying usage of Korean nouns. Although in the current Korean school system these nouns are called with a name which can be translated as ‘classifiers’, this paper decided to refer to these kind of Korean nouns as ‘counters’. The main scope of the paper was to study Korean nouns in order to show their proneness to be a counting unit instead of a classifying unit. In fact, when these counting nouns are used in the Korean language, it is more for their counting function than their classifying one. After arguing the above mentioned statement, the study then proceed in analyzing the Korean nouns and in differentiating between bound and un-bound nouns.

The second chapter focuses on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bound and un-bound nouns and through this, showing how this classification can also be applied to the counting nouns. After this preliminary step, the paper probes on how these nouns come together with numeral expressions and how they are affected by numbers.

In chapter three, the semantic role of counting nouns was explored. Until now, the literature concerning this topic was centered on classifying nouns in order to discover the numerical entity they referred to, but this study focused its classification on the relations existing between counting nouns and the

target that is been counted. To do so, the concept of complementary noun is introduced. Acquiring the knowledge of this relation between the two components of a numerical expression can be useful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in which counting nouns could be used in an ‘un-bound’ form.

Chapter four focuses on the sentence structure in which counting nouns appear. While doing so, the paper encountered that, although un-bound nouns are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there are cases where these un-bound nouns assume the bound noun’s form. Delving in this type of classification, the concept of semi bound nouns is introduced.

In conclusion, this thesis focused on highlighting the existing distinction among the various nouns belonging to the counting system (also referred as classifying) in the Korean language. Hopefully more studies on this topic will follow, and a general rule for the use of the un-bound counting nouns will be drafted.

**Keywords:** classifiers, counters, complementary noun, bound noun, unbound noun, semi-bound noun

**Student Number:** 2017-22448